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심 치 열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혼담과 조력 서사의 상관성

202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 은 미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혼담과 조력 서사의 상관성

심 치 열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 은 미

인 준 서

박은미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5월

심사위원장 강혜선 (인)
심사위원 최기숙 (인)
심사위원 김준형 (인)
심사위원 엄태식 (인)
심사위원 서희연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혼담이 여성영웅소설의 성격을 규정짓는 기초 서사이자 근본 서사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여성영웅소설은 남성영웅소설과 달리 군담뿐만 아니라 혼담이 주요 서사로 부각되면서 남성영웅소설과는 다른 서사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서사는 혼담의 순차구조에 따라 선훈담 서사와 후혼담 서사로 나타났다. 선훈담 서사는 혼담이 먼저 제시되고 이후 군담이 나타나는 구조로 모든 서사가 혼담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한편 후혼담 서사는 군담이 먼저 제시되고 이후 혼담이 나타나는 구조로, 서사 초반에는 군담과 관련된 서사만 진행되다가 작품 중반부터 혼담이 개입되는 방식이다. 여성영웅소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선훈담 서사는 ‘혼담→군담→혼담’ 순으로 서사가 진행되면서 혼담이 근본서사로 작용하고 있으며, 후혼담 서사도 ‘군담→혼담→군담’으로 서사가 진행되지만 혼담 비중이 군담에 비해 작지 않다. 특히 확장된 서사를 통해 혼담과 관련된 갈등이 길게 묘사되면서 군담보다 비중 있게 다뤄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여성영웅소설은 혼담을 근본적 서사로 삼으면서 남성영웅소설과는 확연하게 대별되는 서사 구조를 확보하고 있었다.

한편 여성영웅소설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사가 진행되면서 공간별로 여성의 지위가 변화하게 된다. 선훈담 서사는 부모의 공간에서 영웅의 공간으로, 다시 부부의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성별적 제약을 받던 여성이 영웅으로 그 지위가 변화하고 다시 여성 영웅이 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이 영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반면 후혼담 서사는 부모의 공간에서 영웅의 공간으로, 다시 부부의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영웅이었던 주인공이 여성으로 회귀하였다가 다시 영웅의

지위를 되찾아 여성 영웅이 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선혼담 서사와 달리 여성의 주체성이 파괴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 제도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선혼담 서사와 후혼담 서사는 같은 공간이더라도 혼담의 위치에 따라 여성의 지위가 다르게 형상화되고 있으며 여성영웅소설의 주제의식도 다른 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한편 여성영웅소설의 또 다른 특징인 조력은 초월계 조력과 현실계 조력으로 나뉘어 나타난다. 초월계 조력은 영웅성 및 배우자를 암시, 여성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여성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여성의 정신적 안정감을 형성, 여성의 역량을 계발·지원해 주는 역할로 나눌 수 있다. 현실계는 여성의 위기를 감지하여 고지, 보호와 양육을 지원, 정서적 연대를 형성, 동지적 연대를 형성하는 역할로 나타난다.

이러한 조력 관계는 서사 유형에 따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조력 관계망을 형성하게 된다. 선혼담 서사는 여성의 성장을 돕는 조력망이 형성되어 여성과 연대, 소통하며 여성을 영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사회적 공동망을 형성한다. 여성영웅소설은 보통 영웅 서사와 혼담 서사로 분리될 수 있으며 선혼담 서사에서는 두 서사가 각기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된다. 이때 영웅 서사에서는 천상계가 주요 조력으로 나타나 성별적 제약 대상인 여성을 영웅으로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조력이 이루어지고, 혼담 서사에서는 현실계가 주요 조력으로 나타나 혼담(결연과 늑혼)을 이용하여 여성을 사회로 진출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연대관계를 형성하며 여성이 아닌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조력하게 된다.

반면 후혼담 서사는 영웅 서사와 혼담 서사가 분리되어 각기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데 영웅 서사에서는 천상계가 주요 조력으로 나타나지만 그 조력이 약화되어 나타난다. 이후 발생하는 혼담 서사에서는 주로 현실계가 주요 조

력으로 나타나지만 조력 대상의 역전이 발생하게 된다. 즉, 영웅 서사에서는 여성과 연대 관계에 있던 부친, 유모, 천자 등의 주변인들이 혼담 서사로 진입하는 순간 여성에게는 反조력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때 여성과 반조력 관계를 형성하는 주변인들은 배우자 남성을 조력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조력 대상의 역전이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후혼담 서사는 여성에게 反조력망이 형성되면서 영웅 서사가 여성 억압 서사로 전환되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군담을 통해 여성의 영웅성을 최고조로 이끌어 낸 직후 혼담을 개입시켜 영웅을 여성으로 회귀시키는 방식은 여성에 대한 사회의 억압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후혼담 서사는 혼담이 여성에게 얼마나 부당하게 작용하는지, 여성의 능력과 상관없이 여성을 차별적 대상으로 규정하고 남성의 가부장적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대상으로 묘사함으로써 당대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영웅소설은 혼담과 조력 서사가 관계망을 형성하며 전체 서사의 방향성을 이끌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며 여성영웅소설이 영웅 서사와 더불어 조력 서사, 혼담 서사가 밀접한 관계망을 형성하며 서사를 구성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여성영웅소설의 주제의식도 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하면서 여성영웅소설의 가치를 부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주제어 : 여성 영웅, 영웅소설, 여성영웅소설, 여성 서사, 혼담, 군담, 조력자, 예언, 구출, 후견, 김태자전, 김희경전, 백학선전, 오선기봉, 위봉월전, 음양옥지환, 이대봉전, 이봉빈전, 운향전, 장국진전, 정비전, 흥연전, 화옥쌍기, 황운전, 방한림전, 석태룡전, 옥주호연, 홍계월전, 이형경전, 정수정전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사 검토	5
3. 연구 방법 및 대상	14
II.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혼담의 특성	21
1. 여성영웅소설의 서사 유형	21
1) 선혼담 서사	22
(1) 혼담 서사의 초석 : 출생	23
(2) 혼담 서사의 서막 : 결연	25
(3) 강제적 사회 진출 : 능혼	27
(4) 영웅으로의 성장 : 수학	30
(5) 사회적 지위 획득 : 출정	31
2) 후혼담 서사	32
(1) 영웅 서사의 초석 : 출생	33
(2) 영웅으로의 성장 : 수학	34
(3) 영웅 서사의 완성 : 1차 출정	37
(4) 여성으로의 강제 회귀 : 능혼	38
(5) 사회적 지위 회복 : 2차 출정	40

2.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혼담의 특성	41
1) 여성에서 영웅으로 성장	41
(1) 공간에 따른 여성의 지위 변화 : 주체성 확립	42
(2) 이상적 삶에 대한 회구	47
2) 영웅에서 여성으로 회귀	50
(1) 공간에 따른 여성의 지위 변화 : 주체성 파괴	51
(2) 억압적 삶에 대한 저항	54

Ⅲ. 여성영웅소설의 서사 유형에 따른 조력의 특성

1. 여성영웅소설의 조력 형상화 방식	63
1) 초월계의 조력	64
(1) 영웅성 및 배우자 암시	64
(2) 위기 구출 및 기회 제공	70
(3) 정신적 안정감 형성	74
(4) 역량 계발 지원	77
2) 현실계의 조력	84
(1) 위기 감지	84
(2) 보호와 양육 지원	87
(3) 정서적 연대 형성	90
(4) 동지적 연대 형성	92
2. 여성영웅소설의 서사 유형에 따른 조력의 특성	95
1) 선혼담 서사 속 조력의 특성	95
2) 후혼담 서사 속 조력의 특성	100

IV.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혼담과 조력 서사의 유기적 의미	108
V. 결론	117

참고문헌

ABSTRACT (영문초록)

I. 서론

1. 연구 목적

영웅소설은 주인공이 영웅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며 난세를 평정하고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해내는 군담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주인공은 서사 초반 영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 영웅으로 거듭나고, 군담을 통해 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독자에게 대리만족을 부여하였다. 특히 영웅소설은 소설의 상업화와 맞물리면서 대중소설로서 자리 잡으며 여성영웅소설도 많은 인기를 구가하였다.

그런데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진행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남성영웅소설과 다른 개성과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 남성영웅소설은 군담이 중심 서사축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여성영웅소설은 군담 외에 혼담이 핵심 서사로 자리 잡으면서, 혼담 과정에서 영웅성이 부각되도록 동기부여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혼담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때 서사의 진행은 혼담의 순차구조에 따라 두 가지 서사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선혼담 서사’와 ‘후혼담 서사’로 분류하고자 한다. 말 그대로 선혼담 서사는 군담보다 혼담이 먼저 야기되는 서사구조이고, 후혼담 서사는 혼담보다 군담이 먼저 진행되는 서사구조를 의미한다. 즉 선혼담 서사의 경우 ‘혼담→군담→혼담’ 순으로 서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후혼담 서사의 경우 ‘군담→혼담→군담’으로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서사 유형 중에서 여성영웅소설은 선혼담 서사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혼담이 여성영웅소설만의 서사적 특질로 작용하게 된다. 즉 남성영웅소설과는 다른 여성영웅소설만의 서사적 특징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여성영웅소설의 초기 연구에서는 여성영웅소설을 남성영웅소설의 아

류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이는 영웅소설이 군담소설로 불릴 만큼 본질적 서사를 군담에 두었기 때문이다. 여성영웅소설도 군담소설의 대중성에 힘입어 군담을 포함하면서 남성영웅소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 저평가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적 특질은 군담이 아니라 오히려 혼담에 있다.

여성영웅소설의 대부분 작품이 선혼담 서사에 속한다는 점은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다. 또한 후혼담 서사도 ‘군담→혼담→군담’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혼담의 비중이 군담에 비해 적지 않다. 특히 확장된 서사를 통해 혼담과 관련된 갈등이 길게 묘사되면서 군담보다 비중 있게 다뤄지기도 한다. 따라서 여성영웅소설은 혼담을 근본적 서사로 삼으면서 남성영웅소설과는 확연하게 대별되는 서사 구조를 확보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혼담의 서사적 특질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렇다면 여성영웅소설은 왜 혼담을 서사의 본질로 두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발생한다. 조선시대 혼인 제도는 여성에게 결코 유리한 사회 제도가 아니었던 만큼 여성을 영웅으로 내세운 여성영웅소설에서 가치관이 충돌되는 혼담을 개입시킬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인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영웅소설의 출현 배경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성영웅소설의 출현은 당대 사회변화로 인한 여성 의식의 성장과 관련된다. 조선은 임병양란(壬丙兩亂) 이후 사회가 혼란해지며 외적으로는 전통적인 여성상이 사회 전반에서 강요되었지만 내적으로는 여성상의 동요와 변모가 발생하였다. 양란을 통해 무능하게 무너져 버린 집권층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여성들도 반체제적, 반전통적인 가치관을 수립하고 확산시키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여성상의 변화를 촉진한 것이다. 이러한 여성상의 변화는 여성 스스로의 의식 변화도 일으키면서 가부장적, 봉건적 관계에서 드러나는 모순과 불합리성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평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의 정립을 위해 힘쓰게 된다. 즉 여성의 권리와 가치를 보장받고 획득하고자 하는 여성 의식이 대두된 것이다.¹⁾ 이러한 여성 의식의 성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를 불러일으켰고, 그러한 욕망은 자연스럽게 여성영웅소설에 투영되며 여성 영웅이 출현하는 동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시대 혼례 관행은 이러한 여성 의식 성장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조선 초기 혼례 관행은 사위가 장가들어 처가살이를 하는 남귀여가(男歸女家) 또는 서유귀가(婿留歸家) 혼속이었다. 하지만 국가에서 성리학적인 혼인 풍속으로 변화시켜 기존의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과 친영제(親迎制)가 섞여 시행되다 반친영의 형태로 18세기부터 일반화되었다. 이는 모계 또는 처가 거주를 부계 또는 시가 거주의 풍습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종법제를 강화하여 부계 중심의 가족 질서와 친족제도를 정착시키는 주요 기제가 되었다.²⁾ 따라서 혼인은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여성과 남성의 관계가 상하관계, 귀속관계로 규정되었고 이로 인해 여성은 남성에게 복속되며 통제대상이 되었다. 이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더욱 고착화되어 여성에게 불리한 사회제도로 자리하게 된다.

이처럼 혼인은 여성에게 불리한 사회제도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륜지대사로 여겨졌다. <경국대전> 속 혼인장려책에는 집안이 궁핍하지 않으면서도 나이가 30세 이상이 되도록 시집가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장(家長)을 엄중히 논죄한다는 조항이 있을 만큼 혼사는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닌 국가정책의 일환이었다.³⁾ 따라서 혼담은 여성영웅소설에도 자연스럽게 자리하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 여성영웅소설은 이질적인 두 가지, 즉 여성 영웅과 혼담이

1) 양민정, 「고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과 의의-장편 가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11, 한국어문학연구회, 2000. 21~23쪽.

2) 조희선, 「조선시대에서 혼인의 사회적 의미-가부장제 강화와 신분제 실천기제로서의 혼인」, 『유교사상문화연구』 17, 한국유교학회, 2002. 2~5쪽.

3) 정지영, 「조선시대 혼인장려책과 독신여성」, 『한국여성학』 20, 한국여성학회, 2004. 9쪽.

상충하게 되었다. 여성 영웅은 여성 의식이 성장하며 형성된 여성상이고 혼담은 성리학적 가치관이 고착화되며 형성된 사회제도이다. 여성 영웅과 혼담은 서로 다른 방향성을 지향하므로 양립하기 어려워 충돌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상충하는 지점에 주목하였다. 소설에 제시된 가치관은 작가의 목적과 부합하며 주제 의식으로 구현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가치관이 충돌하는 지점은 작품의 주제 의식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점이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혼담을 여성영웅소설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해석법으로 이해하고 혼담의 서사적 특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혼담에 따른 여성영웅소설의 서사 유형을 두 형태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혼담의 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편 영웅소설에서 조력은 영웅의 일생에 관여하며 주인공과 공감, 협력, 연대 관계를 구축하여 주인공의 운명을 영웅으로 현실화시키는 동력이 된다. 따라서 조력은 영웅과 분리될 수 없는 공동운명체이며 필수불가결한 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력은 여성영웅소설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혼담과 유기적 연관성을 형성하게 된다. 혼담이 서사 초반에 배치될 경우 조력은 혼담과 밀착되어 여성을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만 혼담이 서사 중반에 배치될 경우 조력은 약화되어 나타나는 것은 물론 여성의 조력자가 혼담 서사의 개입과 동시에 여성을 조력하던 주변인들이 배우자 남성을 조력하는 조력 대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여성과 반조력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처럼 조력은 여성영웅소설에서 단순히 여성을 보조하는 역할에만 그치지 않고 혼담의 위치에 따라 조력이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 다른 목적의 조력을 행하게 된다. 이러한 조력 서사는 여성영웅소설에서 영웅 서사, 혼담 서사와 결합하며 유기적인 관계망을 형성하여 주제의식을 구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세 가지 서사망, 즉 영웅 서사, 혼담 서사, 조력 서사가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관계망을 형성하

는가에 따라 여성영웅소설의 주제 의식이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그동안 여성영웅소설은 여성영웅소설, 여걸소설, 여호걸계소설, 여장군 소설, 여성군담소설 등 다양한 명칭⁴⁾으로 불리며 상당량의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초창기 연구는 주로 여성영웅소설의 형성 동인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⁵⁾, 개념이나 범주 등을 파악하는 연구⁶⁾, 형성 시기에 대한 연구⁷⁾, 여성영웅소설의 유형을 분류하는 연구⁸⁾ 등 여성영웅소설이라는 장르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
- 4) 제시한 순서대로 민찬, 「여성영웅소설의 출현과 후대적 변모」,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6 ; 성현경, 「여걸소설과 <설인귀전>」, 『국어국문학』 62, 국어국문학회, 1973 ; 정명기, 「여호걸계 소설의 형성 과정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 논문, 1980 ; 여세주, 「여장군 등장인물의 고소설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1981 ;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제이앤씨, 2008.
 - 5) 성현경, 「여걸소설과 설인귀전」, 『국어국문학』 62, 국어국문학회, 1973 ; 정명기, 앞의 논문 ; 전용문, 「여성계 영웅소설의 설화적 연원」, 『한국언어문학』 25, 한국언어문학회, 1987 ; 강봉근, 「여성영웅소설의 출현동인 일고찰」, 『국어문학』 26,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1986. ; 여세주, 「여장군등장의 고소설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1981.
 - 6) 서대석, 위의 논문. ; 임성래, 『영웅소설의 유형연구』, 태학사, 1990. ; 박일용,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월인, 2003. ; 성현경, 위의 논문. ; 정명기, 앞의 논문. ; 전용문, 「한국 여성계 영웅소설의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1978 ; 여세주, 앞의 논문 ; 손연자, 「조선조 여장군형 소설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2 ; 민찬, 앞의 논문 ; 임병희, 「여성영웅소설의 유형과 변모양상」,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9 ; 박상란, 「여성영웅소설의 갈래와 구조적 특징」,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92.
 - 7) 성현경, 앞의 논문 ; 박일용,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월인, 2003. ; 정명기, 앞의 논문.
 - 8) 박상란, 앞의 논문 ; 정병헌, 「여성영웅소설의 서사 구조와 변이 양상 연구」, 『한국언어문학』 36, 한국언어문학회, 1996 ; 정준식,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적 기반과 정착 과정」, 『한국문학논총』 61, 한국문학회 2012 ; 민찬, 앞의 논문 ; 성현경, 앞의 논문 ; 이윤경,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남장의 특징과 의미」, 『돈암어문학』 13, 돈암어문학회, 2000. ;곽정식·강화수, 「여성영웅소설의 존재양상과 역사적 전개」, 『인문학논총』 9,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이후 작품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며 여성 영웅의 의식 세계를 연구하거나 성별적 특성과 관련지어 연구⁹⁾되기도 하였고 개별 작품에 대한 세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남성영웅소설과는 다른 여성영웅소설만의 고유한 특성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한편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혼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혼담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단독으로 연구되기보다는 여성영웅소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먼저 혼담을 여성영웅소설만의 서사구조로 논의한 경우이다. 민찬은 남녀 이합이 영웅소설에서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여성영웅소설에 이르러 작품구조로 부상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남녀 이합 과정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군이 성립된다고 보고 <이대봉전> 계열과 <홍계월전> 계열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이대봉전> 유형은 여성영웅소설 중에서 영웅소설의 면모를 가장 잘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며 남녀 분리가 급속하게 진행된 반면 남녀 결합은 불완전한 설정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았다. <홍계월전> 유형은 남녀 대립이 첩을 매개로 한 구체적 현실에서 진행된다고 보았다. 남자에게 예측된 생활을 거부하는 여주인공의 의지가 첩과의 충돌이라는 매개항을 설정하여 구체적 현실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가정 내 남녀 신분상의 고하를 가정 밖으로 옮겨 직위에 따른 고하로 역전시키며 여성 우위 현상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이때 영웅소설은 여성영웅소설에 이르면서 주인공의 영웅성이 현저히 위축되어 일상인의 면모를 띠게 되었으며 여성 영웅은 결국 여성영웅소설을 영웅소설과 남녀이합형 소설의 중간에 위치시켜 놓았다고 보았다.¹⁰⁾

민찬의 경우 남녀이합을 전체 서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해석하

9) 김수연, 『여성영웅소설의 서사형식과 사회적 의미』,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1 ; 광기숙,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양식과 의식세계」,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02 ; 박성미, 「여장군 소설 주인공의 변신 연구-서사적 기능과 문화적 의미를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01 ; 박혜숙, 「여성영웅소설과 평등, 차이, 정체성의 문제」, 『국문학연구』 16, 국문학회, 2007 ; 최지녀,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와 이념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5.

10) 민찬, 앞의 논문. 15~23쪽

고 있어 본고의 견해와 일치하는 지점이 많다. 다만 본고에서는 혼담 서사만으로 작품을 해석하기 보다는 영웅 서사와 혼담 서사, 조력 서사의 다층적인 관계 속에서 혼담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백학선전>과 <정비전> 등을 영웅소설에서 벗어난 작품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혼담 방식의 차이로 이해하면 여성영웅소설을 좀 더 다양하게 이해할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한편 민찬은 여성영웅소설에서 여주인공이 여화위남을 거치면서 종국적으로 여자의 신분으로 되돌아올 때 여성의 신분과 영웅의 행적이 일으키는 불일치로 영웅성이 위축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여주인공의 삶의 행적이 남녀이합과정에 점철되어 있어 주변적 삶의 관심 사항이 부상함에 따라 영웅성이 현저히 위축되었다고 보았다.¹¹⁾

하지만 본고는 여성영웅소설에서 혼담의 목적성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가에 따라 혼담의 의미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여성영웅소설이 표면적으로는 남녀의 결연 서사처럼 보이지만 이를 혼담의 배치 관계나 조력망과의 연계성으로 해석할 경우 충분히 다른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대곤은 민찬이 설정한 남녀 이합 과정을 유용한 기준으로 보고 이를 참고하여 여성영웅소설은 대체로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주인공으로 설정되어 남녀 주인공의 이합과정이 작품 전체를 포괄하는 구조로 부상한다고 보았다. 또한 18세기 작품들을 결연담과 영웅담이 불완전하게 결합된 것으로 보고 20세기에는 19세기에 마련된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이 더욱 고착화됨으로써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에 영향을 받지 않고 형성되었던 작품들도 남녀 주인공의 영웅담과 결연담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향으로 변모된다고 보았다.¹²⁾

여성영웅소설이 영웅담과 결연담이 유기적으로 결합했다는 견해에 대해 본고 또한 같은 견해에서 출발하고 있다. 다만 본고에서 더욱 주목하는 바는 혼담의 순차구조에 있다. 여성영웅소설은 혼담의 순차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목

11) 민찬, 앞의 논문. 115쪽.

12) 김대곤, 「활자본 여성영웅소설 연구」, 동의대 석사학위논문, 2012.

적성을 가지고 서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영웅담과 혼사담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었다는 견해와 더불어 혼담의 순차를 중점에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다음은 혼담을 중심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나 혼담을 언급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정준식은 여성영웅소설만의 독특한 서사모형으로 ‘수학-응과 급제-출정 입공-지위 극대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영웅담과 ‘만남-헤어짐-다시 만남’의 과정을 보여주는 결연담이 남장 모티프를 매개로 절묘하게 결합되면서 확립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서사모형은 일순간에 마련된 것이 아니라 모색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완성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때 모색기 작품인 <설저전>은 남주인공이 등장하지 않아 결연담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현경전>은 어설프지만 결연담을 모색한 흔적을 보인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결연담은 남녀의 만남과 이별이 혼인 이전에 설정되어 있고 혼사 장애를 극복한 뒤 다시 만남이 혼인이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현경전>의 결연담은 혼인 이후의 부부갈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설정된 것이어서 온전한 결연담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¹³⁾

정준식은 결연담의 개념을 ‘남녀의 만남과 이별이 혼인 이전에 설정되어 있고 혼사 장애를 극복한 뒤 다시 만남이 혼인이란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결연의 의미를 조금 더 확장 해석해 보고자 한다. 결연담을 혼인 이전으로 설정한다면 <이현경전>, <홍계월전>, <석대룡전>, <옥주호연> 등이 모두 불완전한 결연담을 내포하고 있는 소설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결연의 의미를 보다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혼인과 관련된 서사라는 뜻의 혼담이라는 용어를 활용하고자 한다.

한편 이윤경은 ‘정혼’ 단락이 남성영웅소설보다 여성영웅소설에서 더 큰 의

13) 정준식, 앞의 논문.

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여성영웅소설의 전형적 특징을 입신양명과 혼사 장애의 결합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혼사 장애의 경우 여성영웅소설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고 서사 전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정혼으로 인한 남주인공과의 애정을 성취하기 위해 여주인공들은 일생에 걸쳐 남주인공과의 재회 및 결연을 위해 노력한다고 보았다.¹⁴⁾

본고 또한 혼사 장애가 여성영웅소설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이해하고 있으며 여성영웅소설의 기초 서사라고 판단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때 본고는 혼담 서사를 영웅 서사와 조력 서사까지 결합하여 이해함으로써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서 여성영웅소설을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여성영웅소설의 목적이 혼담 자체에 있기보다 혼담 서사를 활용하여 여성이 자립하는 성장 서사를 보여주거나 여성의 현실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입장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한편 선행 연구에서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혼사담으로 인해 여성영웅소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박상란은 여성영웅소설이 고소설의 일반의 주제로 일관하고 있어 형식상의 한계와 아울러 소설사의 정체를 유발시켰다고 보면서 특히 여성 영웅이 공적인 지위에서 활약하다가 대부분 가정으로 함몰되면서 일가의 화락만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고소설 일반의 주제를 탈피하지 못했다고 하였다.¹⁵⁾

임성래는 애정성취형 영웅소설을 하나의 영웅소설의 유형으로 보고 하늘이 정해 준 배필들이 어린시절에 정혼했다가 혼인을 이루기 전에 발생한 고난과 그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혼인을 성취하는 과정을 작품화한 소설이라고 하였다. 대표적으로 <백학선전>, <이대봉전>, <정수정전>, <황운전>을 보았다. 줄거리의 전개과정이 정혼을 방해하는 과정과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혼인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고 정혼을 방해한 인물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작품 전개의

14) 이윤경, 앞의 논문. 269~270쪽.

15) 박상란, 앞의 논문. 85쪽.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 유형의 내용은 남녀 주인공들의 혼인 성취라는 개인문제의 차원에서 작품이 성립되었다고 하였다. 국가의 문제로 여러 종류의 반란 등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애정 성취를 완성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어 현실인식은 사회문제와 분리되어 있었고 그들의 관심은 개인적인 데 머물렀다고 하였다.¹⁶⁾

여성영웅소설에서 여성이 남성 중심 사회에 진출하여 어렵사리 획득한 사회적 지위가 혼담으로 인해 모두 회수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가부장제가 강하게 적용되는 가정에 여성이 포괄되는 상황은 분명 전통 체제 속에 여성이 매몰되는 모습으로 비취질 수 있다. 여성영웅소설이 혼담과 여성의 결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혼담 장애 서사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본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석하는 관점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자 한다. 여성영웅소설은 혼담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웅과 조력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영웅소설의 본질은 영웅 서사이자 조력 서사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여성영웅소설은 여성 서사와 혼담 서사까지 결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다층적인 서사를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혼담이 여성영웅소설의 한계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된 서사로 이해하고 혼담과 영웅담, 조력담과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여성영웅소설을 해석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혼담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았다. 본고는 혼담이 여성영웅소설의 특징적 서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점에 주목하였다. 본고는 혼담을 오히려 여성영웅소설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초 서사이자 근본 서사로 두고 여기에 영웅 서사와 조력 서사가 다층적으로 연결된 관계망에 주목하여 새롭게 여성영웅소설을 해석하는 관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편 영웅소설의 조력과 관련된 연구는 조력이 주인공을 위한 보조적인

16) 임성래, 앞의 책. 49~50쪽.

개념으로 이해되며 독자적인 연구가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영웅소설을 다루면서 단편적으로 조력의 역할과 그 의미를 논의할 뿐이었다.

대표적으로 조동일이 <홍길동전>과 <소대성전>을 비교하며 노승의 역할을 간략하게 살폈고¹⁷⁾, 서대석은 창작 군담소설의 서사 유형을 살피면서 노승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였다.¹⁸⁾

김재용은 영웅소설의 두 주류를 파악하면서 영웅의 스승을 다뤘는데 조력자 대신 ‘구조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단순히 위기를 해소시켜 주는 구조자와 성격을 달리한다고 하였다.¹⁹⁾

안기수는 초월적 구원자에 대해 언급하면서 신과 같은 존재로 주인공의 사상, 행동 양식까지 변신시키는 창조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류준경²⁰⁾은 전직 승상과 노승을 언급하며 대표적 조력자로 보았다. 전직 승상과 노승은 이후 서사적 추동력을 마련하여 영웅소설 서사의 기본 두 축인 결연담과 군담을 형성한다고 보았다.²¹⁾

윤보윤은 초월적 조력자를 중심으로 불교서사와 고전소설에 나타난 초월적 조력자를 비교하여 고전소설에 나타난 초월적 조력자는 주인공이 모두 천상계에서 선관 혹은 선녀였기 때문에 시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력을 단행한다고 보았다. 또한 초월적 조력자로 인해 서사 전개가 환상성을 갖는다고 보았으며 불교 서사의 영향을 받아 고전소설에서의 초월적 조력자가 창출되었다고 보았다.²²⁾

최지녀는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조력자 중 지기로서의 여성 배우자와 시비군을 조력자로 설정하여 이들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지기로서의 여성 배

17)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해』, 지식 산업사, 2012.

18) 서대석, 앞의 논문, 2008.

19) 김재용, 「영웅소설의 두 주류와 그 원천」, 『한국언어문학』 22, 한국언어문학회, 1983.

20) 류준경, 「한국 고전소설의 작품 구성원리」, 『한국 고전소설의 세계』, 돌베개, 2006.

21) 안기수, 『영웅소설의 수용과 변화』, 보고사, 2006.

22) 윤보윤, 「재생서사에 나타난 초월적 조력자의 비교 연구-불교서사와 고전소설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6. 21-86쪽.

우자는 도사나 선녀와 같은 초월적 조력자, 은인으로서의 세속적 조력자, 혹은 시비군이 주로 여성영웅이 남성으로 활약하는 한정된 시간에 조력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여성으로 돌아온 후에도 조력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한편 시비군은 여성 영웅이 규중의 유약한 여성으로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남성으로 가장하고 살아가는 고민을 극복한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특히 시비군은 결혼 서사를 추동하는 조력자로 보았다.²³⁾

이처럼 조력자에 대한 꽤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력은 단편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영웅소설에서 조력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밝혀주지 못한다. 조력은 어떤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만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영웅과 밀착 관계를 형성하며 영웅의 일대기에 관여하여 영웅을 영웅답게 만들어주는 동력으로 작용하는 등 서사 전반에 걸쳐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력 관계를 특정한 인물이나 장면에 치우쳐 단편적으로 연구하게 되면 전체적인 영웅소설의 흐름을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영웅소설은 영웅만으로 구성된 소설이 아니다. 조력이 없다면 영웅도 범인(凡人)에 불과할 뿐인 것이다. 따라서 조력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본격적으로 조력자에 대해 논의한 연구들도 보인다. 김태영은 여성우위형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보조인물, 즉 <이형경전>의 유모, <정수정전>의 시모, <홍계월전>의 도사가 함께 등장하는 다른 보조 인물들보다 존재감이 뚜렷하다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보조인물의 양상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주로 유모와 시모, 도사 등의 보조인물의 기능을 살피면서 보조인물이 주인공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작품 전체에 구조와 주제면에서도 개입하며 작품 안에서 시대적 의미를 부여하여 단선적으로 바라봤던 작품을 다각적으로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았다.²⁴⁾

23) 최지녀, 앞의 논문. 92-106쪽.

24) 김태영, 「여성우위형 여성영웅소설의 근대적 성향 연구 : <이형경전>, <정수정전>, <홍계

이러한 김태영의 논의는 본고의 논의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그동안 영웅을 중심으로 해석했던 영웅소설을 보조인물을 통해 다각적으로 살핌으로써 영웅소설에 대한 해석의 시각을 넓혀줬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된다. 다만 여성우위형 소설군만을 다루고 있어 전체 조망이 어려운 점이 있어 본고는 이를 여성영웅소설 전체의 조력 관계망으로 확장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정선희는 장편고전소설에 나타난 여성 보조인물을 중심으로 선한 보조인물과 악한 보조인물로 나누어 그 추이와 그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우선 선한 보조인물은 자신의 주인이 곤경에 빠져 있을 때 등문고를 올리거나 초사를 쓰는 등 공적인 절차를 밟음으로써 갈등 상황을 타개하기도 하고 자신이나 주인공이 남장을 하게 하거나 옷을 바꿔 입는 등의 지혜로 위기를 모면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한편 악한 보조인물은 악한 주인공과 함께하며 악한 인물의 기대에 맞게 악행을 적절히 기획하며 주인이 좌절할 때는 해결사 노릇을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보조인물들은 서사 확장과 갈등을 첨예화시키거나 여성의 힘과 욕망의 환상을 표출하도록 돕고 있으며 개연성 제고와 여성 독자층의 실상을 반영한다고 보았다.²⁵⁾

여성영웅소설에도 남장을 한 주인공과 옷을 바꿔 입어 위기를 모면하게 만드는 보조 인물이 등장하며 악한 보조인물도 등장하여 여성 영웅과 대립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은 장르를 넘어 여성 서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서사로 보고 본고에서 연구함에 있는 큰 참고점이 된다.

이처럼 영웅소설 속 조력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성영웅소설 전체의 조력자를 조망하는 심층적인 접근에는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좀 더 확장된 조력자의 개념을 통해 여성영웅

월전>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2004. 13-82쪽.

25) 정선희, 「장편고전소설에서 여성 보조인물의 추이와 그 의미-여성 독자층, 서사 전략과 관련하여」, 『고소설연구』 40집, 한국고소설학회, 2015. 174-194쪽.

소설에 나타난 조력의 형상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여성영웅소설에서 형성된 조력망이 단순히 보조 인물로서의 역할이 아닌, 조력 자체가 서사적 유기성을 가지고 다른 서사들과 긴밀하게 작동하며 주제 의식 구현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및 대상

앞서 연구사에서 검토했듯이 지금까지 여성영웅소설 연구는 단편적 혹은 유형분류를 포함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여성영웅소설의 연구 텍스트로 삼았던 작품들은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 | | | |
|----------|----------------|-------------|
| 1. 금향정기 | 16. 설소저전 | 31. 이춘풍전 |
| 2. 계상국전 | 17. 신유복전 | 32. 이형경전 |
| 3. 권익중전 | 18. 심청전 | 33. 장국진전 |
| 4. 금방울전 | 19. 이대봉전(양주봉전) | 34. 재생연전 |
| 5. 김태자전 | 20. 오선기봉 | 35. 정비전 |
| 6. 김희경전 | 21. 옥루몽 | 36. 정수정전 |
| 7. 남강월전 | 22. 옥수기 | 37. 최익성전 |
| 8. 명주기봉 | 23. 옥주호연 | 38. 춘향전 |
| 9. 박씨전 | 24. 운향전 | 39. 하진양문록 |
| 10. 방한립전 | 25. 위봉월전 | 40. 현씨양옹쌍린기 |

- | | | |
|-------------|-----------|-----------|
| 11. 백학선전 | 26. 위씨절행록 | 41. 홍계월전 |
| 12. 벽허담관제언록 | 27. 유문성전 | 42. 홍연전 |
| 13. 부장양문열효록 | 28. 유씨삼대록 | 43. 화옥쌍기 |
| 14. 사각전 | 29. 음양옥지환 | 44. 화정선행록 |
| 15. 석태룡전 | 30. 이봉빈전 | 45. 황운전 |

기존에 논의된 여성영웅소설 작품군은 연구자가 어떤 기준을 선택하여 작품을 선정했는지에 따라 그 범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는 기준에 따라 여성 영웅소설의 범주에 넣기 애매한 작품도 포함되어 있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음의 기준을 근거로 삼아 논의에 적합한 작품을 선정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영웅소설은 영웅 서사와 관련되어 있으면서 여성이 직접 군담에 참여하여야 한다. 먼저 여성의 능력 면에서 여성이 남성과 대등하거나 남성을 초월한 여성 영웅이 등장해야 한다. 이는 여성영웅소설과 남성영웅소설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남성영웅소설은 남성 영웅만 존재할 뿐 여성 영웅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성영웅소설의 경우 혼담에 대한 서사보다 군담 서사가 확대되어 나타나면서 남성의 영웅성만 강조되고 그 배우자인 여성은 그 존재가 미미하게 설정되어 서사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반면 여성영웅소설은 영웅성을 지닌 남성이 등장하더라도 그에 준하거나 더 뛰어난 여성 영웅이 반드시 등장하여 서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여성 영웅이 등장했다면 여성영웅소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이 직접 군담에 참여해야 한다. 여성영웅소설도 영웅소설이므로

군담적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그 군담에 여성 영웅이 직접 참여하여 영웅성을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권익중전>의 경우 여성이 혼사 장애로 인해 자결한 후 지상계가 아닌 천상계에 머물다 모든 사건이 종결된 후에야 비로소 환생하는 서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천상계에 머물면서 간접적으로 군담에 참여하는 방식은 여성 영웅소설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둘째, 혼담 서사가 포함된 작품이어야 한다. 본고는 혼담을 여성영웅소설의 기초 서사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여성영웅소설에서 혼담 서사는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이때 혼담은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남녀 간의 만남과 이별을 전제로 한 결연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에게 혼사를 강요하는 늑혼이다. 결연은 대부분 천상계로부터 운명론적 세계관으로 묶인 남녀 간의 결합을 의미한다. 출생부터 초월계가 관여하여 여성과 남성의 인연을 맺어 놓음으로써 형성되는 혼담 방식이다. 반면 늑혼은 한쪽의 혼인 주체가 권력이나 재물 등을 이용하여 상대 혼인 주체에게 혼사를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⁶⁾ 이처럼 여성영웅소설은 결연과 늑혼이라는 두 가지 방식의 혼담이 나타나게 되고 전체 서사와 긴밀한 연관관계를 형성하며 서사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된다.

셋째, 조력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 작품이어야 한다. 여성영웅소설에서 주인공을 영웅으로 성장시키는 동력이자 영웅과 협력, 연대 관계를 형성하며 주인공이 영웅으로 활약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해 주는 역할이 바로 조력이다. 이처럼 조력 서사는 영웅 서사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영웅소설로서의 기준점으로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번안 및 미완결, 그리고 삽화 형식의 작품들은 제외되어야 한다. 먼저 국적 문제이다. 일부 연구에서 중국 번안 작품도 여성영웅소설에 포함시키고

26) 장시광, 「고전 대하소설의 남녀 결연 관련 모티프 연구-늑혼 모티프를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23권,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6년. 175쪽.

있어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고는 중국 작품 번안(<금향정기>, <재생연전>)을 우리 소설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 한국 문학의 범주를 정하는 기준은 ‘한민족의 경험·사고·상상이 역사상 각 단계마다의 생활방식과 문화적 조건에 상응하는 표현 언어를 통하여 형상적으로 창조된 문학의 전체’²⁷⁾라고 볼 수 있다. 범위를 아무리 확장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승한 언어의 문제이지 의식의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여성영웅소설은 우리나라에서 창작된 소설만을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다음은 미완결된 작품에 대한 문제이다. <최익성전>은 1책으로 필사본만 전해지며 다른 이본은 없다. 그런데 <최익성전>은 전쟁이 치열한 절정 부분에서 끝나 버린 미완성의 작품으로 이후 어떤 방식으로 신분이 탄로 나고 가정으로 복귀되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완결된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삽화 형태로 삽입된 여성 영웅에 대한 문제이다. 대장편 소설에서 일부 에피소드 형태로 삽입(<명주기봉>, <벽허담관제언록>, <부장양문열효록>, <옥수기>, <유씨삼대록>, <하진양문록>, <현씨양옹쌍린기>, <화정선행록>)되어 나타나거나 적군으로 등장하는 여성(<사각전>, <신유복전>)까지 여성 영웅에 포함시켜야 하는가는 재고할 문제다. 대장편소설은 한 명이 중심이 되는 서사가 아니라 여러 명이 얽혀 있는 서사이기 때문에 여성영웅소설이라는 장르의 입장에서 보면 에피소드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적군 진영측 장군으로 잠시 출현했다가 죽임을 당하고 서사에서 사라지는 인물이 영웅성을 보인다고 해서 여성영웅소설로 분류하게 되면 그 양이 상당히 방대해질 것이다. 여성 영웅소설은 일정한 사사 구조 아래 여성 영웅이라는 요건을 가지고 있되 주인공에 해당하는 형태로 등장해야만 여성 영웅소설이라는 장르 안에 묶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소설만을 대상으로

27)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2000. 22쪽.

삼고자 한다.

이와 같이 제시한 조건에 부합한 작품을 선별하면 <홍계월전>, <이형경전>, <이대봉전>²⁸⁾, <이봉빈전>, <옥주호연>, <정수정전>, <정비전>, <방한립전>, <황운전>, <김희경전>, <음양옥지환>, <백학선전>, <운향전>, <위봉월전>, <석태룡전>, <장국진전>, <김태자전>, <홍연전>, <화옥쌍기>, <오선기봉>이다.

따라서 본고는 총 20편의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다음 표는 대상 작품을 정리한 것으로 대표명으로 표기하되 이칭도 함께 제시하였다.

	대상 작품	이칭(異稱)
1	<홍계월전>	<계월전>, <계월충렬록>, <평국전>, <홍평국전>
2	<이형경전>	<이현경전>, <이상서전>, <이학사전>
3	<정수정전>	<여장군전>, <여자충효록>
4	<이대봉전>	<대봉전>, <봉황대>, <양주봉전>
5	<이봉빈전>	<봉빈전>
6	<옥주호연>	<음양삼태성>, <삼옥삼주기>, <삼주기화>
7	<정비전>	<정각록>, <정빈전>, <정설매전>, <정성모전>, <정태비전> <정현무전>, <정후비전>
8	<방한립전>	<가심쌍완기봉>, <계심쌍환기봉>, <낙성전>, <쌍완기봉> <쌍환기봉>
9	<김희경전>	<금환기봉>, <김상서전>, <쌍문충효록>, <여중호걸>

28) 임치균은 <이대봉전>과 <양주봉전>의 관계를 이본 관계라고 보았다. 놀라운 점은 각 단락에서 보이고 있는 디테일한 내용의 일치라고 하였다. 다만 주요 중심 인물들의 이름이 다르고 아버지의 신분이 다르며 <이대봉전>에서는 장애황이 남북으로 집을 나와 먼저 여승에게 구원을 받아 학업을 한 후 호부인 집으로 가나 <양주봉전>에서는 곧장 호부인 집으로 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다르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서사에서 두 작품이 서사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여러 근거를 종합해본 바 두 작품은 이본 관계라고 보았다. (임치균, 「<이대봉전> 연구-<양주봉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20권, 1995. 255-264쪽)

		<장씨효행록>
10	<황운전>	<황설록>, <황운설련전>, <황장군전>
11	<음양옥지환>	
12	<백학선전>	<유백로전>
13	<운향전>	
14	<위봉월전>	
15	<석태룡전>	
16	<장국진전>	<모란정기>, <장국증전>
17	<김태자전>	<육미당기>, <육소기>, <보타기문>
18	<홍연전>	
19	<화옥쌍기>	
20	<오선기봉>	<오로봉기>, <황태을전>

<선정 20편의 여성영웅소설 목록>²⁹⁾

29) 본고 선정 작품군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홍계월전>(인천대학 민족문화연구소, 『(구활자본)고소설전집』 16, 은하출판사, 1983.) ; <이형경전>(사재동본, 필사본, 기축년 필사.) ; <정수정전>(인천대학 민족문화연구소, 『(구활자본)고소설전집』 26, 은하출판사, 1984.) ; <이대봉전>(인천대학 민족문화연구소, 『(구활자본)고소설전집』 11, 동서문화원, 1983.) ; <이봉빈전>(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7, 아세아문화사, 1976.) ; <육주호연>(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5, 아세아문화사, 1976.) ; <정비전>(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7, 아세아문화사, 1976.) ; <방한림전>(나손본 필사본, 『고소설자료총서』 11, 보경문화사, 1991.) ; <김희경전>(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2, 아세아문화사, 1976.) ; <황운전>(인천대학 민족문화연구소, 『(구활자본)고소설전집』 1, 동서문화원, 1983.) ; <음양옥지환>(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5, 아세아문화사, 1976.) ; <백학선전>(조동일 소장, 『국문학연구자료』 2차분 19~30, 박이정, 1999.) ; <운향전>(김기동, 『(필사본)고전소설전집』 3, 아세아문화사, 1980.) ; <위봉월전>(사재동 소장본(충남대), 『필사본 위봉월전』) ; <석태룡전>(김기동, 『오옥기담 외』 21, 아세아문화사, 1983.) ; <장국진전>(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7, 아세아문화사, 1976.) ; <김태자전>(선우일, 『김태자전』, 유일서관, 1917.) ; <홍연전>(단국대 울곡기념도서관 소장본. 필사본. 발행연도 미상.) ; <화옥쌍기>(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활자본)고전소설전집』 12, 아세아문화사, 1976.) ; <오선기봉>(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4, 아세아문화사, 1976.)

앞서 밝혔듯이 본고의 연구 목적은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혼담 서사와 조력 서사의 상관성을 도출해 내는 것이다. 따라서 2장에서 혼담에 주목하여 혼담 배치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는 서사 유형을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혼담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조력에 주목하여 여성영웅소설의 조력 형상화 방식을 초월계와 현실계로 나눠 분석한 후 서사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조력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4장에서는 이러한 혼담과 조력 서사의 상관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기존과 다른 관점으로 여성영웅소설의 가치를 좀 더 의미있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혼담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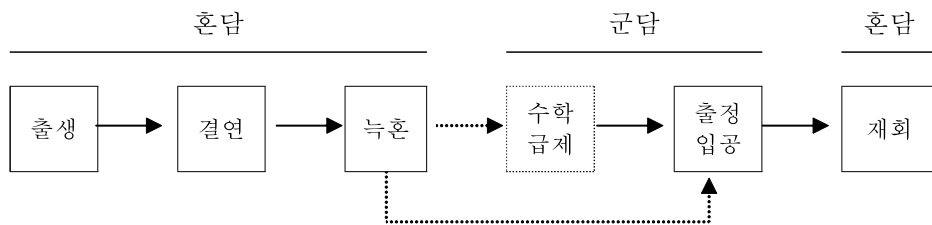
여성영웅소설을 영웅 서사이면서 여성 서사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혼담이다. 전통 사회에서 혼담은 일륜지대사로 매우 중요한 의례 중 하나였다. 하지만 혼담은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여성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여성영웅소설은 이러한 혼담을 주요 서사로 내세우며 여성을 그 제도 속에 종속시키려 한다. 여성 영웅이라도 인생의 주요 의례인 혼담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혼인이 서사의 주요축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영웅소설이라는 장르를 고려해 봤을 때 혼담의 의미는 단순하지 않다. 여성영웅소설은 남성 영웅을 여성 영웅으로 성별만 바꾼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담 또한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혼담은 여성영웅소설의 성격을 규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세심한 분석을 요구하게 된다.

1. 여성영웅소설의 서사 유형

여성영웅소설은 혼담의 순차구조에 따라 서사 유형이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선혼담 서사이고 다른 하나는 후혼담 서사이다. 선혼담 서사는 혼담이 먼저 제시되고 이후 군담이 나타나는 서사를 말하며, 후혼담 서사는 군담이 먼저 제시된 후 혼담이 나타나는 서사를 의미한다. 여성영웅소설은 대체로 두 서사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며 순차구조에 따라 혼담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1) 선혼담 서사

혼담이 먼저 제시되고 이후 군담이 나타나는 구조를 편의상 ‘선혼담’ 서사라고 지칭한다. 선혼담 서사는 본고가 선정한 20편의 작품 중 <김태자전>, <김희경전>, <백학선전>, <오선기봉>, <위봉월전>, <음양옥지환>, <이대봉전>, <이봉빈전>, <운향전>, <장국진전>, <정비전>, <홍연전>, <화옥쌍기>, <황운전>, <정수정전> 등 15편이 해당한다. 그만큼 선혼담 서사는 여성영웅소설을 대표하는 서사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표가 된다.



<선혼담 서사의 서사 진행 방향>

위의 도표에서처럼 선혼담 서사의 경우 순차구조는 ‘혼담→군담→혼담’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여성영웅소설은 선혼담 서사가 대다수로 나타난다. 본고에서 선정한 20편의 작품 중 15편이 선혼담 서사에 해당할 만큼 혼담이 주요 서사틀로 작동한다. 이때 서사는 혼담으로 시작하여 혼담으로 종결되고 있으며 군담은 그 사이에 자리한다. 이는 혼담 서사가 여성영웅소설의 본질적 서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혼담 서사의 초석 : 출생

영웅소설에서 출생 서사는 기자치성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주인공의 부모는 명문가 출신으로 고관대작이거나 퇴임한 재상 등으로 형상화된다. 하지만 부모는 나이가 늦도록 자식을 얻지 못해 기자치성을 드리게 된다. 그리고 그 정성에 대한 답으로 태몽을 얻게 된다.

출생담 및 배우자 예언 관련 작품		여주인공		남주인공	
		출생담 유무	배우자 예언	출생담 유무	배우자 예언
일부 일처 서사	<김회경전>	○	○	○	×
	<백학선전>	○	○	○	×
	<음양옥지환>	○	○	○	○
	<정수정전>	○	○	×	×
	<이대봉전>	○	△	△	△
	<황운전>	△	△	○	△
	<화옥쌍기>	×	△	○	△
	<정비전>	○	△	×	×
	<이봉빈전>	○	×	○	×
	<운향전>	○	×	○	×
일부 다처 서사	<위봉월전>	×	×	×	×
	<김태자전>	○	○	○	×
	<오선기봉>	×	△	○	○
	<장국진전>	○	×	○	○
	<홍연전>	×	×	○	○

<선혼담 서사에 나타난 작품별 출생 서사>³⁰⁾

30) 다음과 같은 경우 △로 표기하였다.

* 출생담 유무 △ 표기 : 남녀가 동일한 태몽으로 설정되나 남녀 중 한쪽만 제시된 경우

* 배우자 예언 △ 표기 :

남녀 부모가 동일한 태몽 사실을 인지하고 혼약한 경우 (<이대봉전>, <황운전>)

성인인 상태에서 배필을 예언 받은 경우 (<화옥쌍기>)

천상계의 관여로 배필에게 인도되었을 경우 (<정비전>)

여성이 천기를 보고 배필을 찾은 경우 (<오선기봉>)

위의 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작품에서 배우자 예언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배우자 예언은 주로 태몽의 형태로 수행되지만 일부 작품에서는 아이의 출생 과정에 천상계가 관여하여 출산을 도우며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김희경전>)하기도 한다. 여성의 태몽이 생략되고 이미 성인 여성으로 등장할 경우는 여성의 꿈을 통해 배우자를 예지(<화옥쌍기>)하기도 하고, 직접적인 예언 없이 동일한 태몽(<황운전>, <이대봉전>)으로 배우자를 짐작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때 일부일처(一夫一妻) 서사는 여성에게, 일부다처(一夫多妻) 서사는 남성에게 주로 배우자 예언이 이루어진다. 여성영웅소설은 여성 서사이지만 선혼담 서사는 혼담이 서사 초반에 관여하면서 배우자인 남성의 일대기(이후 남성 서사로 지칭)도 여성처럼 함께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일처 서사는 남성 서사가 먼저 진행(<김희경전>, <백학선전>, <음양옥지환>, <화옥쌍기>)되기도 하고 여성 서사가 먼저 진행(<정수정전>, <이대봉전>, <황운전>, <정비전>, <이봉빈전>, <운향전>, <위봉월전>)되기도 하지만 그 순서와 관계없이 대부분 여성에게 배우자 예언이 나타난다. 반면 일부다처 서사는 남성 서사가 먼저 제시되며 배우자 예언은 주로 남성(<오선기봉>, <장국진전>, <홍연전>)에게 나타나게 된다.

한편 <이봉빈전>, <운향전>, <위봉월전>은 배우자 예언이 소거되었다. 이런 경우 서사는 다른 방식으로 결연 관계를 형성한다. <이봉빈전>과 <위봉월전>은 부모가 자녀 상대자의 인물됨을 보고 상대자 부모에게 칭찬하며 결연을 맺게 되고 <운향전>은 유리걸식하던 여성을 구출한 남성이 자신의 아들과 여성을 결연시키게 된다. 세 작품 모두 배우자 예언 대신 다른 방식으로 결연 관계를 형성하면서 혼담 서사의 초석을 마련하게 된다.

(2) 혼담 서사의 서막 : 결연

선혼담 서사에서 출생이 혼담의 초석로 작용했다면 결연은 혼담 서사의 서막에 해당한다.

	자유연애 결연	부모에 의한 결연	구출자 자녀와의 결연
일부 일처 서사	<김희경전> 시녀 영춘 주선으로 만남	<이봉빈전> 여성 부친의 지인지감	<음양옥지환> 여성 부친의 지인지감
	<백학선전> 길에서 만남	<위봉월전> 남성 부친의 지인지감	<운향전> 남성 부친의 지인지감
	<정비전> 남성이 여장하여 만남	<정수정전> 여성 부친의 지인지감	
	<화옥쌍기> 기생과 손님으로 만남	<황운전> 남녀 부모의 동몽(同夢)	
		<이대봉전> 남녀 부모의 동몽(同夢)	
일부 다처 서사	<오선기봉> 여성이 남성 유인해 만남	<장국진전> 남성 모친의 지인지감	<김태자전> 여성 부친의 지인지감
	<홍연전> 남성이 월담하여 만남		

<선혼담 서사에 나타난 작품별 결연 서사>

선혼담 서사에서 결연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자유연애에 의한 결연으로 <백학선전>, <김희경전>, <오선기봉>, <홍연전>, <화옥쌍기>, <정비전>이 속한다. 이 경우 남녀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만나게 된다. 주변 인물이 우연히 남성의 인물됨을 보고 여성에게 주선(<김희경전>)하거나 길에서 만나(<백학선전>) 결연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남성이 의도적으로 접근(<정비전>, <홍연전>)하기도 한다. 또한 여성의 특수 신분으로 인해 기생과 손님 관계(<화옥쌍기>)로 만나기도 하며 여성이 천기를 읽고 자신의 짝이 나타났음을 알게 되면서 의도적으로 남성을 유인(<오선기봉>)하여 만나기도 한다. 이처럼 자유연애 결연은 선혼담 서사에서 가장 다양한 방식으로 만남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 부모에 의한 결연으로 <이대봉전>, <황운전>, <이봉빈전>, <장국진전>, <위봉월전>이 해당한다. 대부분 여성 혹은 남성의 부모가 자녀 상대자를 지인지감으로 선택하며 결연(<이봉빈전>, <위봉월전>, <정수정전>, <이대봉전>, <장국진전>)이 이루어지거나 남녀 부모가 동몽(同夢)을 계기로 결연(<황운전>, <이대봉전>)을 맺게 된다.

세 번째, 구출형 조력자에 의한 결연으로 <김태자전>, <음양옥지환>, <운향전>이 해당한다. 이 경우 남성이 유리결식하다 구출되어 구출자의 자녀와 결연(<김태자전>, <음양옥지환>)을 맺거나 여성이 유리결식하다 구출되어 구출자의 자녀와 결연(<운향전>)하는 경우로 나타난다. 전자는 여성의 부모에 의해, 후자는 남성의 부모에 의해 결연이 맺어진다.

선혼담 서사에서 남녀 간의 결연은 대체로 태몽부터 이어진 경우가 많아 남녀의 인연이 운명론적 세계관으로 묶이게 된다.³¹⁾ 설혹 태몽에서 남녀 간의 인연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대부분 여성이나 남성의 부모가 지인지감을 발휘(<이봉빈전>, <위봉월전>, <운향전>)하여 인연을 연결시키고 있다.³²⁾

31) 이 화소는 남녀주인공의 연분 관계가 이미 하늘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것으로 태몽의 형태로 고지된다. 고소설 전반에서 즐겨 취하는 화소이며 특히 남녀주인공의 애정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대외적 활동상이 두드러지는 작품에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김진영/차충환, 「화소와 결구방식을 통해 본 영웅소설의 유형성」, 『어문연구』 2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1, 156쪽.)

32) <운향전>은 남성부친의 태몽을 통해 운향이 유리결식할 것이니 구출해 보호양육하라는 지시를 받게 된다. <이봉빈전>은 여성의 부모가 자녀의 상대자를 직접 보고 선택하며 <위봉월전>은 남성의 부모가 위봉월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매과를 보내 혼사를 성립하게 된다.

(3) 강제적 사회 진출 : 늑혼

영웅소설에서 혼담은 만남과 이별, 재회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태몽을 통해 혼담의 초석을 마련하고 결연을 통해 만남의 과정을 가졌다면 늑혼은 이별 과정에 해당한다. 이때 늑혼이란 한쪽의 혼인 주체가 권력이나 재물 등을 이용하여 상대 혼인 주체에게 혼사를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혼담 서사는 세 가지 사유로 늑혼이 발생하게 된다. 첫 번째, 여성의 부친이 다른 남성의 청혼을 수락하면서 늑혼이 발생(<백학선전>, <오선기봉>)하게 된다. 이는 여성이 부모의 허락 없이 자유연애를 통해 남성과 결연했기 때문에 여성의 부모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다른 남성이 청혼했을 때 이를 수락하게 되고 뒤늦게 여성의 결연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다른 남성의 청혼을 취소하지만 그것이 원인이 되어 늑혼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여성의 특수한 신분(기녀)으로 인해 여성이 다른 남성에게 팔리는 경우(<화옥쌍기>)도 있다. 이 경우 기생 어머니가 여성을 돈많은 부호에게 팔게 되는데 이때 여성이 거부하면서 늑혼이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 여성의 부모가 간신의 청혼을 거절하며 발생하는 경우(<정수정전>, <황운전>, <정비전>, <이대봉전>, <이봉빈전>, <장국진전>)이다.³³⁾ 그 결과 부친의 부재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가문은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며 여성은 납치 및 겁탈 등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³⁴⁾

세 번째, 여성 모친(계모)이 남성을 쫓아내고 딸을 다른 남성과 혼인시키려고 하면서 발생한다. 이 경우 남성이 유리결식하다 구출자에게 구출된 후 그의 자녀와 결연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병사 혹은 유배로 인해 구

33) <위봉월전>은 남성의 형수에 의해 간부모해가 발생하면서 가출하게 되는데 이는 이미 여성이 혼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늑혼을 대신하여 간부모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4) 강화수는 대부분 시련 단락의 원인 제공자가 다시 홀로 된 주인공에게 늑혼의 위협을 가하고 이러한 늑혼 위협은 더 이상 주인공으로 하여금 가정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납북을 개작하고 가출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강화수, 「여성영웅소설의 존재양상과 소설사적 의의」,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4. 73쪽.)

출자가 부재하자 이를 계기로 평소 자녀의 배우자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가족이 남성을 내쫓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친척이나 지인과 딸의 혼사를 추진하며 늑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때 <운향전>은 운향이 유리결식하다 구출자에게 구출되는 서사로 나타나며 이후 구출자의 아들과 결혼이 아닌 혼인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후 구출자가 병사하면서 남성의 서모가 운향을 살해하여 내다 버리며 운향은 부부의 공간에서 추방된다.³⁵⁾

	女부친 他남성 청혼 수락	간신 청혼 女부친 거절	가족이 배우자 쫓아냄
<김태자전>	-	-	여성 모친 남성 내쫓음 여성 자결 시도 후 구출
<백학선전>	혼인 취소로 他남성 앙심 가족 모두 탈출	-	-
<음양옥지환>	-	-	여성 계모 남성 내쫓음 이복동생 정보제공, 탈출
<정수정전>	-	간신 보복 부친 유배 유배지 이동 중 모친 이별	-
<김희경전>	-	-	-
<황운전>	-	간신 보복 부친 유배 유모와 역할 바꾸고 탈출	-
<정비전>	-	간신 보복 女부친 출진 거짓 정보 제공 후 탈출	-

35) 여성이 사회로 진출한 이후 여성에게 늑혼이 다시 발생하기도 한다. 여성이 남장을 하고 유리결식하다 구출되는 과정에서 구출형 조력자의 딸과 늑혼 관계가 발생(<김태자전>, <김희경전>, <정소저전>, <이봉빈전>, <이대봉전>)하는 것이다.

이때 늑혼의 주체는 구출형 조력자인데 주인공 여성을 남성으로 오해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이는 남성영웅소설에서 주로 활용하는 혼인 방식으로, 남성의 영웅성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서사적 흥미성을 유발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여성영웅소설은 남성영웅소설과 달리 혼사담이 매우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지만 이때 발생하는 늑혼은 남성영웅소설과 마찬가지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된다. 특히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혼약은 주인공 여성의 지조를 깨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에피소드로 활용하기 좋다. 따라서 여성영웅소설에서는 이러한 흥미적인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 동성 간의 혼사를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영웅적인 면모를 돋보이게 만드는 동시에 원래 배우자와의 혼약도 지키도록 만든 흥미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이후 구출형 조력자의 딸은 여성의 배우자가 후처나 첩으로 들어게 된다.

<이대봉전>	-	남부친 유배로 女부친 병사 시녀와 역할 바꾸고 탈출	-
<이봉빈전>	-	간신 보복 부친 유배 시녀와 역할 바꾸고 탈출	-
<운향전>	-	-	남성 서모 여성 살해 시도 여성 버려졌다 구출
<화옥쌍기>	기생 어미 富豪에게 팔 여성 자결 시도 후 구출	-	-
<홍연전>	-	-	-
<오선기봉>	부모 강제 진행 상선(商船) 준비 후 탈출	-	-
<장국진전>	-	간신 보복 부친 옥중 병사 유모 고향으로 이동	-
<위봉월전>	-	남성 가족이 간부 모해 자살 기도 후 가출	-

<선혼담에 나타난 작품별 늑혼 서사>

선혼담 서사에서 늑혼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성을 사회로 진출시키기 위해 서이다. 여성은 성별적 제약을 받는 존재로 부모의 공간에서 스스로 이탈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을 사회로 진출시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늑혼인 것이다. 선혼담 서사에서 늑혼 발생시 여성은 정혼자의 존재를 밝히며 거절한다. 그러나 오히려 늑혼 거절에 의한 피해가 가문의 존폐 위기로 확장되어 나타난다. 그 결과 부모가 부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여성은 늑혼 주체로부터 납치, 강간 등의 위협에 처하게 된다.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강제적으로 부모의 공간에서 추방되어 사회로 진출하게 되는 것이며 기존 사회에서 벗어나 남성 사회로 진입하는 계기가 된다.³⁶⁾

36) 이때 <김회경전>과 <홍연전>은 늑혼이 나타나지 않는다. <김회경전>은 간신 모해로 인한 부친의 부재가 먼저 발생하고 이후 결연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홍연전>은 이미 남성과 혼인과 동일한 결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늑혼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홍연전>은 다른

(4) 영웅으로의 성장 : 수학

선혼담 서사에서 여성이 사회로 나오게 된 계기는 늑혼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타의에 의해 부모의 공간에서 벗어난 여성은 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로 유리걸식하기 때문에 다양한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때 여성은 구출자를 만나 보호 양육되며 능력을 계발하며 다시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게 된다. 이 과정이 바로 수학 단계이다. 영웅성은 타고났으나 그 능력을 발현할 수 없는 여성은 수학 과정을 통해 영웅으로서의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므로 수학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단계에 해당한다.

이때 능력을 계발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여성이 독학으로 능력을 계발(<김희경전>, <정수정전>, <이대봉전>, <이봉빈전>, <위봉월전>, <장국진전>, <운향전>, <백학선전>, <정비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승의 지도를 받는 문하생 신분으로 능력을 계발(<음양옥지환>, <황운전>, <김태자전>, <화옥쌍기>)하는 것이다.

다만 잠재된 영웅성을 발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경우(<홍연전>, <오선기봉>)의 여성은 수학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출정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작품에 비해 독특한 설정이 나타난다. 홍연은 도사의 예언에 따르면 십오 세에 죽을 운명이었다. 명을 잇기 위해서는 김정승 딸, 이참관 딸, 박판서 딸과 혼인해야한다고 하자 홍연은 부모의 허락을 받고 서울로 상경하게 된다. 이후 김정승의 딸과 먼저 결연을 하고 김소저의 지략으로 이참관 딸, 박판서 딸과 결연하는 구조이다. 이후 세 명의 여성과 홍연은 한 방에 살며 부부의 관계를 맺게 된다. 여성영웅소설에서 늑혼은 혼인하기 이전에 발생하는 장치므로 이미 혼인상태로 접어든 <홍연전>에서는 늑혼이 발생하지 않는다.

선혼담 서사는 여성이 결연한 상태에서 늑혼이 발생하게 되지만 이미 혼인을 했을 경우는 늑혼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대신 다른 사유를 통해 여성을 사회로 이동시키게 된다. <김희경전>은 우연히 각자의 길을 가던 중 만난 것이기 때문에 결연이 형성된 후 다시 갈 길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별하게 되고 <홍연전>은 남성이 전쟁에 참여하며 잠시 이별하게 된다.

(5) 사회적 지위 획득 : 출정

전쟁은 여성이 성별적 제약을 뛰어넘어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영웅으로서의 능력을 선보이는 장(場)이다. 이때 여성이 전쟁에 참여한 목적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입신양명(<김희경전>, <정수정전>, <이대봉전>, <이봉빈전>, <위봉월전>, <음양옥지환>, <황운전>, <김태자전>, <오선기봉>)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 구출(<화옥쌍기>, <홍연전>, <장국진전>, <운향전>, <백학선전>, <정비전>)이다.

여성의 전쟁 참여 목적이 입신양명일 경우 여성은 대부분 수학 단계를 거쳐 과거 급제 후 정식 관료로 임명된다. 이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원수로 임명되어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위기에 빠진 국가를 구하며 입신양명을 이루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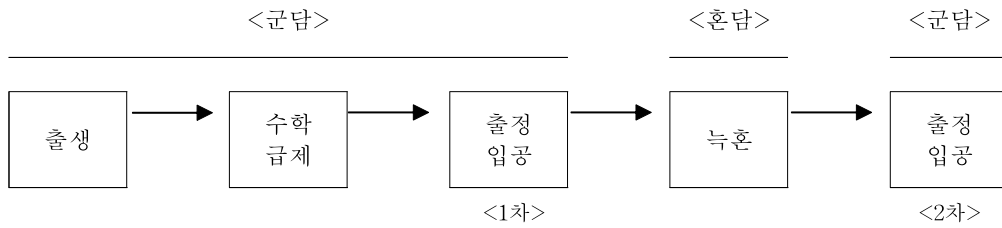
한편 여성의 전쟁 참여 목적이 가족(배우자 혹은 아버지) 구출인 경우 과거 급제 단계는 생략되고 단신으로 전쟁에 출정하게 된다. 이렇게 임명 과정 없이 단신으로 전쟁에 참여했을 경우 여성은 그 업적을 인정받으며 천자로 부터 관직을 하사받거나(<홍연전>, <화옥쌍기>) 그러한 보상 과정 없이 가족 구출이라는 목적만 달성한 채 가정으로 복귀(<오선기봉>, <운향전>, <장국진전>, <정비전>)하게 된다. 이때 <백학선전>은 과거 급제 단계가 생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받은 후 전쟁에 출전하게 되는데 이는 여성이 스스로 유백로의 처(妻)라고 밝히며 천자 앞에서 영웅으로서의 능력을 시험받고 관직을 제수받아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군담 관련 작품	수학	과거 급제	출정		
			방식	위기 대상	목적
<김희경전>	독학	○	임명	국가	입신양명
<정수정전>	독학				
<이대봉전>	독학				
<이봉민전>	독학				
<위봉월전>	독학				
<음양옥지환>	문하생				
<황운전>	문하생				
<김태자전>	문하생				
<오선기봉>	선천	×	단신	천자	
<화옥쌍기>	문하생	×	단신	남성	가족구출
<홍연전>	선천				
<장국진전>	독학				
<운향전>	독학				
<백학선전>	독학				
<정비전>	독학		×	단신	1차 부친/2차 남성

<후군담 서사에 나타난 수학/출정 서사>

2) 후혼담 서사

군담이 먼저 제시되고 이후 혼담이 나타나는 구조를 편의상 ‘후혼담’ 서사라고 한다. 본고가 선정한 20편의 작품 중 <방한림전>, <석태룡전>, <옥주호연>, <홍계월전>, <이형경전> 등 5편이 해당한다.



<후혼담 서사의 서사 진행 방향>

위의 도표에서처럼 후혼담의 경우 순차구조는 ‘군담→혼담→군담’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웅 서사의 초석 : 출생

후혼담 서사는 서사 초반에 군담만 나타나기 때문에 혼담과 관련된 서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태몽도 영웅의 고귀한 혈통만을 증명하게 된다. 이때 후혼담 서사는 여성의 출생담은 대부분 나타나지만 남성의 출생담은 소거되는 현상을 보인다.

출생담 관련 작품	여성	남성
	출생담 유무	출생담 유무
<방한림전>	△	×
<옥주호연>	○	○
<홍계월전>	○	×
<석태룡전>	○	△

<후혼담 서사에 나타난 출생 서사>³⁷⁾

후혼담 서사는 군담이 우선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출생담에서 혼담(배우자 예언)과 관련된 서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태몽은 여성의 전생을 천상계적 이미지로 형상화하면서 영웅의 고귀한 혈통을 증명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여성은 영웅으로서의 영웅성을 획득하게 된다.

후혼담 서사는 여성의 출생담은 대부분 등장하지만 배우자 남성의 출생담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석태룡전>과 <옥주호연>에서 남성의 출생담을 찾아낼 수 있지만 <석태룡전>의 경우 배우자 남성이 아닌 남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배우자 남성의 출생담이 나타난 작품은 <옥주호연>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후혼담 서사는 군담이 서사 초반에 배치되면서 혼담과 관련된 서사가 제거되고 여성 서사에 초점을 맞춰 여성이 영웅으로 활약하는 과정을 그리면서 남성 서사가 대부분 소거되었다.

(2) 영웅으로의 성장 : 수학

후혼담 서사는 군담이 서사 초반에 배치되기 때문에 여성의 능력 계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여성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수학 과정이 나타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한다.

37) 출생담 유무 △ 표기 : 일몽을 얻었다는 표현만 있는 경우 (<방한립전>)
남동생인 경우(<석태룡전>)

<석태룡전>은 남매 설정이기 때문에 남성이 남동생에 해당한다.

<방한립전>은 상대 남성이 등장하지 않으나 동성혼에 해당하기 때문에 혼담은 나타난다.

<이형경전>은 출생담이 나타나지 않는다.

수학 관련 작품	여성 능력	성장 공간	유리결식		스승	과거 급제
			이유	구출자		
<방한림전>	선천	가정	×	×	×	○
<이형경전>						
<홍계월전>	후천	사회	피란	여공	곽도사	○
<석태룡전>			계모의 살해위협	증승상 부인	증승상 부인	×
<옥주호연>			부친의 간섭	남자 세 쌍둥이	진원도사	×

<후훈담 서사에 나타난 작품별 수학 서사>

여성이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 발현이 우선시 된다. 여성이 능력을 선천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경우(<이형경전>, <방한림전>) 여성은 부모의 공간에 머물게 된다. 이 경우 여성은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남성의 삶을 선택하고 이런 선택을 가족들이 묵인함에 따라 여성은 부모의 공간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게 된다.³⁸⁾ 또한 어린 시절부터 여화위남³⁹⁾을 통해 성별을 감춥기 때문에 가족을 제외한 타인은 여성의 성별을 알지 못하게 되면서 남성의 삶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여성은 공간의 이동 없이 부모의 공간에서 성장기를

38) 이유경은 <홍계월전>과 <방한림전>에서 주인공들이 사회의 젠더 규범을 수용하지 않고 스스로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는 여성의 성장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보았다. 홍계월과 방관주는 유년기의 유동적인 젠더 정체성을 통해 선택의 기회와 자율성을 확보하고 성년이 된 후에는 사회화의 과정에서 기존의 젠더 정체성과 갈등하며 자신의 의지와 능력에 맞는 젠더 정체성을 구성해 나간다고 보았다. (이유경,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 형성의 양상과 그 교육적 의미 -<홍계월전>과 <방한림전>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4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0. 50쪽.)

39) 안기수는 여성이 남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한다는 문학적 상상은 현실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여화위남의 사회적 의미는 공적 영역에서의 능력 발현은 곧 남성에 국한되어 있다는 성 역할 분담의 역설적인 확인이라고 하였다. 여성이 여화위남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에 기초를 두고 있는 현실적인 것에 대한 극복이고 현실적인 인식의 변형이라고 보았다. (안기수, 앞의 책. 362쪽.)

이윤경은 남장이 여성영웅의 주체적 영웅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일반 영웅소설의 남주인공이 최초의 고난을 원조자의 도움으로 극복하고 있는데 비해 여성영웅소설의 여주인공들은 남장을 함으로써 최초의 고난을 스스로 극복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윤경, 앞의 논문. 285쪽.)

보내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여성은 이미 선천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수학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과거를 통해 입신양명하게 된다.

반면 능력을 후천적으로 계발해야 할 경우(<홍계월전>, <옥주호연>, <석태룡전>) 부모의 공간은 여성에게 제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여성은 기존 사회(부모의 공간)로부터 분리될 필요가 있다. 후혼담 서사는 여성이 부모의 공간에서 분리되는 이유가 작품마다 다르게 설정된다. 여성이 전란을 피하는 과정에서 분리(<홍계월전>)되기도 하고, 부모의 간섭을 피해 도망하면서 분리(<옥주호연>)되기도 한다. 또한 계모의 살해 위협을 피하는 과정에서 분리(<석태룡전>)되기도 한다.

이처럼 여성이 후천적으로 능력을 계발해야 할 경우 선혼담 서사와 달리, 보다 다양한 사연을 바탕으로 부모의 공간에서 추방되며 기존 사회와 분리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유리걸식을 하며 여성이라는 성별을 감추고 남성의 삶으로 전환된다. 이때 유리걸식은 단순히 조실부모하여 떠도는 단계가 아니라 여성이 자신의 성별을 아는 기존 사회(부모의 공간)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이며 이로 인해 여화위남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의 사회진출을 방해하던 부모의 공간과 여성이라는 성별이, 유리걸식 과정을 전후로 하여 사라지면서 여성은 영웅의 공간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여성은 수학 과정을 통해 능력을 계발하게 되는데 수학 과정은 자력으로 능력을 계발할 수 없는 여성에게 능력 계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영웅성을 완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후 여성은 남성 사회로 진출하며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3) 영웅 서사의 완성 : 1차 출정

군담 서사 중 1차 출정 서사는 영웅 서사의 핵심으로 다른 서사에 비해 상술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여성의 출정 목적은 모두 입신양명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위기 대상도 대부분 국가이다.

군담 관련 작품	수학	과거 급제	출정		
			방식	위기 대상	목적
<방한림전>	독학	○	임명	국가	입신양명
<이형경전>		○	임명		
<홍계월전>	문하생	○	임명	국가	
<석태룡전>		×	단신	천자	
<옥주호연>		×	단신	패권 다툼	

<후혼담 서사에 나타난 작품별 1차 출정 서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후혼담 서사는 여성의 능력에 따라 두 갈래의 서사로 나뉘게 된다. 하나는 공간의 이동 없이 부모의 공간에서 성장하며 과거를 통해 입신양명(<방한림전>, <이형경전>)하는 서사이고 다른 하나는 각기 다른 사유로 부모의 공간에서 추방되어 후천적으로 능력을 계발한 후 단신으로 전쟁에 참여해 입신양명(<홍계월전>, <석태룡전>, <옥주호연>)하는 서사이다.

전자는 여성이 먼저 과거 급제를 통해 입신양명한 후 전쟁에 참여하여 사회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만들게 된다. 반면 후자는 여성이 후천적으로 능력을 계발한 후에야 사회로 재진입하게 되는데 이때 과거 급제를 통해 사회에 진출하거나 단신으로 전쟁에 참여하며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 사회로 진

입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 입신양명을 목적으로 전쟁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같다.

(4) 여성으로의 강제 회귀 : 능혼

군담을 통해 영웅으로서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사회적 인정을 받아 입신양명하던 여성은 돌연 혼담의 개입으로 사회적 권위가 무너지며 성별적 제약을 받게 되면서 사회와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된다.

이때 혼담은 여성에게 능혼으로 작용하여 반드시 성사되며 영웅을 여성으로 강제 회귀시키게 된다.

능혼 과정 관련 작품	영웅 → 여성		능혼		
	여화위남 밝혀지는 계기	사회적 지위	주체	혼사 성립 방법	여성 태도
<방한립전>	죽기 전 자의에 의한 고백	형식적 유지	없음	자의에 의한 동성혼	-
<이형경전>	병으로 인한 어의 진맥	환수	천자	천자의 계략	거부
<홍계월전>	병으로 인한 어의 진맥	형식적 유지		천자와 부친의 권한	거부
<석태룡전>	전쟁 후 자의에 의한 고백	형식적 유지		태자비로 간택	수용
<옥주호연>	여성들의 시를 통해 발각	반납		천자의 계략	거부

<후혼담 서사에 나타난 작품별 능혼 서사>

후혼담 서사에서 혼담 서사는 여화위남이 밝혀지면서부터 시작된다. 이때 여화위남이 밝혀지는 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여성을 부마로 간택하려는 천자의 제안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밝혀지고 다른 하나는

여성이 병에 걸렸을 때 황제가 보낸 어의의 진맥으로 여성임이 드러나게 된다. 이로 인해 여성은 자신의 성별을 천자에게 고하는 상소를 올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지위가 환수(<이형경전>)되거나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홍계월전>, <석태룡전>)된다. 이후 서사는 영웅을 여성으로 회귀시키기 위해 혼사를 감행하게 된다. 남성의 입장에서는 결연이지만 여성의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혼사를 천자가 권력을 이용하여 강압하므로 능혼이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능혼의 주체는 천자가 된다. 천자는 여성이 여화위남임을 고백하는 순간 능혼의 주체가 되어 영웅을 여성으로 회귀시킨 후 부부의 공간으로 편입시키려 한다. 하지만 여성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요구하는 성별적 여성으로 회귀하기를 거부하며 혼사를 거절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배우자 남성 및 가족, 천자 등 주변인들과 갈등을 겪게 된다. 이때 천자는 여성의 의지를 꺾기 위해 계략을 꾸미기도 하고(<이형경전>, <옥주호연>) 천자의 권력으로 혼인을 강요(<홍계월전>, <석태룡전>)하기도 한다. 충이 기본 이념으로 작용하는 영웅소설에서 천자처럼 거부할 수 없는 능혼 주체가 등장하면 여성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혼인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부부의 공간으로 여성이 편입되는 순간 배우자 남성은 여성을 차별적 시선으로 대한다. 후혼담 서사에서 대부분의 배우자 남성은 여성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게 설정되는데 이로 인해 열등감을 갖게 된 남성은 여성이 혼인 제도 안에 편입되는 순간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무시하고 가부장적 체제 속에서 여성 위에 군림하고자 한다. 그러나 여성은 이를 용납하지 못하면서 남녀간의 갈등은 심화되어 나타난다.

(5) 사회적 지위 회복 : 2차 출정

사회적 지위에서 남성보다 우위에 섰던 여성은 부부의 공간으로 강제 편입되면서 갈등을 겪게 된다. 남성은 가부장적 권위로 여성을 억압하고 여성은 그러한 남성에게 반발하며 갈등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급기야 별거(<이형경전>) 단계에 이르기도 한다. 그 무렵 2차 전쟁이 발생하면서 여성은 다시 영웅으로 소환된다.

이렇게 2차 출정이 가능한 것은 확장된 서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확장된 서사는 여성이 가정으로 편입된 이후 이야기를 서술함으로써 여성이 다시 영웅으로서의 지위를 회복(<방한림전>, <석태룡전>, <홍계월전>, <이형경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⁴⁰⁾

확장된 서사는 최소 한 번 이상의 전쟁을 삽입하여 여성이 영웅으로 환원되도록 만들고 다시 한번 영웅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그 결과 여성의 영웅성은 여성으로 회귀하기 전보다 더욱 부각되고 사회와 가정에서 그 능력의 우월성을 인정받게 된다. 그 결과 여성은 천자의 공인을 받아 영웅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며 여성영웅이라는 독보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40) 후한담 서사에서는 <옥주호연>을 제외하고 모두 확장된 서사이 나타난다. <옥주호연>은 비록 군담이 서사 초반 배치되었지만 세쌍둥이 설정이라는 점에서 이미 혼사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녀가 모두 세 쌍둥이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남녀 간의 결연이 형성된 것이다. 여화위담이 밝혀진 순간부터 여성들의 목소리는 사라지는데 이는 다른 작품과 달리 여성이 스스로 사회적 지위를 반납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미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스스로 반납함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 여성으로서의 삶으로 회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이 다시 영웅으로 복귀하는 확장된 서사는 불필요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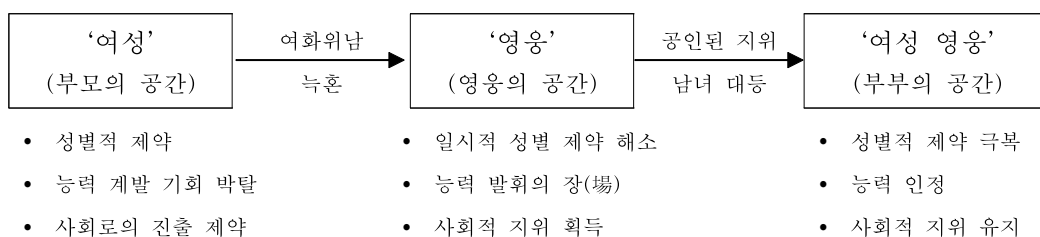
2.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혼담의 특성

혼담은 여성영웅소설이 남성영웅소설과 기초 서사를 달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주요 서사이다. 남성영웅소설이 군담을 기초 서사로 삼아 영웅의 일대기를 서술했다면 여성영웅소설은 혼담을 기초 서사로 삼아 성별적 제약을 받던 여성의 고난 극복에 초점을 맞춰 서술하고 있다.

한편 여성영웅소설은 공간 이동에 따라 서사가 진행되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공간 이동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변화시키며 여성영웅소설의 성격 및 주제 의식을 돋보이게 만든다. 이때 혼담의 위치와 공간이 결합하면서 같은 공간이어도 선혼담 서사와 후혼담 서사가 서로 다른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1) 여성에서 영웅으로 성장

선혼담 서사는 혼담이 먼저 배치되면서 모든 서사가 혼담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서사는 부모의 공간에서 영웅의 공간으로, 다시 부부의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변화하게 된다.



<선혼담 서사 속 공간 이동에 따른 여성의 지위 변화>

(1) 공간에 따른 여성의 지위 변화 : 주체성 확립

첫 번째 공간은 부모의 공간이다. 이 공간은 여성이 태어나면서부터 속한 공간이지만 부모의 세계관에 의해 형성된 공간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통제하에 있게 된다. 특히 영웅소설은 충과 효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여성영웅소설은 이에 더하여 절까지 반영되어 나타나면서 부모의 공간은 더 강한 통제권을 부여받게 된다. 여기에 사회적, 문화적인 관습까지 더해져 여성이라는 성별로는 사회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여성을 최초의 공간 속에 가둬두게 된다. 따라서 여성은 부모의 공간에서 스스로 이탈할 수 없으며 능력 계발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 이때 여성의 지위는 생물학적 여성인 ‘여성’으로 형상화되어 성별적 제약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두 번째 공간은 영웅의 공간이다. 이 공간은 여성이 부모의 공간에서 이동하여 영웅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는 장(場)이다. 여성은 부모의 공간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화위남을 선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일시적으로 성별적 제약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후 여성은 영웅으로의 성장기를 거쳐 영웅적 활약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이때 여성의 지위는 여화위남을 통해 여성이라는 성별을 숨긴 채 사회에 진출한 ‘영웅’으로 형상화되며 사회적 명성을 쌓게 되는 존재로 그려진다.

세 번째 공간은 부부의 공간이다. 여화위남을 통해 영웅의 공간에 들어선 여성은 일시적으로 성별적 제약에서 벗어났지만 전쟁이 끝나면 다양한 경로로 본색이 탄로 나게 된다. 그 결과 여성은 본래의 성별로 돌아가 혼인을 통해 부부의 공간으로 들어서게 된다. 하지만 성별적 제약을 받던 여성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천자의 공인을 얻은 공식적인 영웅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후 복귀하게 된다. 이로써 여성은 성별적 제약에서 완전히 해방되며 여

성이라는 성별로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더불어 부부의 공간이 처음부터 남녀가 평등한 공간으로 형상화되며 남성이 여성에게 여도를 강요하거나 권위적 태도를 보이며 여성과 같등하지 않게 된다. 이때 여성의 지위는 성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여성 영웅’으로 형상화되면서 여화위남이 밝혀지더라도 사회적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며 ‘여성’으로서 사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선혼담 서사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여성의 지위가 변화되어 나타난다. 여성의 첫 번째 지위는 ‘여성’으로 시작된다. 이는 여성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지위로, 성별적 제약을 받게 된다. 따라서 여성이 출생부터 내재하고 있는 영웅성은 계발할 기회도 부여받지 못한 채 여성으로서의 삶만 중요받게 된다. 따라서 여성은 부모의 공간에서 벗어나야만 영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은 부모의 공간을 자의로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게 된다. 하나는 늑혼 등의 사유로 타의에 의한 부모 공간의 소멸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이 여화위남을 통해 자의적으로 자신의 성(性)을 버리는 것이다.

선혼담 서사에서 늑혼은 여성을 사회로 진출시키는 기능으로 작용하므로 혼사는 성사되는 것이 아니라 거절된다. 따라서 이를 위해 늑혼 주체를 간신으로, 늑혼 대상을 충신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야 두 집안이 서로 양립할 수 없어 여성의 집안에서 늑혼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늑혼 주체인 간신은 여성 집안에 보복을 감행하고 이로 인해 여성의 가문은 존폐 위기에 처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가 부재하며 부모의 공간이 사라지게 된다.

늑혼 외에도 여성이 자유연애를 통해 남성과 결연한 사실을 모르는 부모가 늑혼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구출자가 남성을 구출해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려고 했지만 구출자가 부재하게 되면서 모친이 늑혼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

다.

보통 늑혼이 발생하게 되면 여성은 겁탈과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때 여성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위기로부터 간신히 탈출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화위남⁴¹⁾을 통해 ‘여성’이라는 성(性)을 버림으로써 사회 진출의 마지막 제약을 끊어내게 된다.⁴²⁾

이렇게 사회로 진출하게 된 여성은 두 번째 지위를 얻게 된다. 바로 ‘영웅’의 지위이다. ‘영웅’은 영웅의 공간에서 주어지는 지위로, 여성에게 가해졌던 모든 성별적 제약이 일시적으로 해소되면서 여성이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적 명성을 쌓게 된다. 하지만 이 지위는 일시적인 것으로 여화위남이 밝혀지는 순간 ‘영웅’은 다시 ‘여성’으로 회귀된다. 이때 여성의 여화위남은 보통 부마로 간택되거나 병이 들어 진맥을 하는 과정에서 들통나게 된다.

이때 특징적인 서사가 바로 천자의 태도이다. 선혼담 서사 속 천자는 여성이 여화위남을 고백해도 여성을 ‘영웅’에서 ‘여성’으로 회귀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영웅’으로서의 지위를 공인해 줌으로써 여성의 성별적 제약을 극복하게 만든다.

상이 다시 탄 왈 ... 경 등의 일이며 장흥다 경등의 공이여 이는 왕텃소무 | 오
금세에 희한한 일이로다 대덕국가에 용인함은 다만 그 지조를 취홀지라 어이 남
녀를 분변헐리오 경 등은 그 벼술을 스양치 말고 더욱 충성을 다하야 대스 | 잇
거든 남북으로 죠반에 오르고 쇼스는 집에서 처단하라

<화옥쌍기>⁴³⁾

41) 차옥덕, 「‘여도’(女道) 거부를 통한 남성우월주의 극복」, 『한국여성학』 15, 한국여성학회, 1999. 225쪽.

42) 김나영은 여성영웅도 자신이 속해있던 삶의 영역으로부터 이탈되어 나오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능력을 발휘하며 성장한다고 보았다. 남성은 아버지와 결합을 통해, 여성은 아버지로부터 분리를 통해 자신의 존재성을 확립한다고 보았다. (김나영, 앞의 논문, 38쪽)

43) 「화옥쌍기」, 앞의 책. 684쪽.

상이 다시금 장탄 왈 … 짐이 경 등을 어든 후로는 티즈와 연제왕은 비록 두
어달을 못보아도 오히려 그림지 아니호되 오직 경 등은 호로만 못 보면 그리미
무궁호더니 이제 이를 당호니 엇지 감창치 아니호리오 … 디스마는 녀즈이게 불
관호니 인슈을 거두거니와 티학스는 본직인고로 그져 두어 경의 공을 표호느니
일삭의 일츠식 조회를 폐치 말고 짐의 뜻을 저바리지 말나

<김희경전>44)

상이 즉시 비답을 나리샤 … 성인도 권도 잇느니 경의 녀화위남이 무삼허물이
잇스리오 … 맛당히 일품벼살을 봉호야 경의 대공을 위로호리라 호시고 즉시 조
칙을 나리샤 리봉빈으로 금즈광록대부좌승상겸릉도각티학스광평후를 봉호샤 식
읍 삼만호를 주시고 황금 처단을 만히 상스호시니

<이봉빈전>45)

경 등 량인의 표를 보니 이는 천고에 희한한 일이로다 경 등이 사직의 대공이
잇거늘 무슨 청죄함이 잇스며 또 짐의 갑함이 박호거날 엇지 봉작을 사양함이
잇스리오 경 등은 안심 찰직호며 존녕에 대사 | 잇거든 남북으로 조반에 오르고
쇼사 | 어든 부중에서 처결호라

<음양옥지환>46)

<화옥쌍기>에서 천자는 조서를 내려 재주를 취할 뿐 어찌 남녀를 분별하겠
나며 벼슬을 사양치 말고 충성을 다하여 대사가 잇거든 남북으로 조반에 오르
고 소사는 집에서 처단하라고 하며 관직을 더해 주었다. <김희경전>은 천자
가 태사마는 여자에게 불관하니 인수를 거두나 태학사는 본직이므로 그져 두
어 경의 공을 표한다고 하며 일삭에 한 차례씩 조회를 나오도록 지시하고 있
으며 <이봉빈전>은 천자가 여성을 금자광록대부 좌승상 겸 용두각 태학사 광

44) 「김희경전」, 앞의 책. 283쪽.

45) 「이봉빈전」, 앞의 책. 42~43쪽.

46) 「음양옥지환」, 앞의 책. 657~658쪽.

평후에 봉하고 식읍 삼만호, 황금 채단을 상사하였다. <음양옥지환>에서도 천자가 존당에 대사가 있거든 남북으로 조반에 오르고 소사가 얻은 부중에서 서결하라고 지시하는 등 선혼담 서사에서는 여성의 여화위남이 밝혀지더라도 그 사회적 지위를 환수당하지 않는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여성이 천자로부터 ‘여성’이라는 성별로 ‘영웅’의 지위를 공인받았다는 것이다. 충이 강조되는 영웅소설에서 천자가 여성을 ‘영웅’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 지위는 결코 무시될 수 없다. 이로 인해 여성은 ‘영웅’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고 더불어 ‘여성’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여성은 부부의 공간으로 이동해도 ‘여성’의 지위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영웅’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그 결과 부부의 공간은 성별적 제약이 없는 공간으로 그려지게 되며 남성과의 관계가 대등하게 형성된다. 따라서 남성은 여성에게 여도를 강요하거나 남성적 권위를 내세워 여성을 압박하지 않게 되면서 남녀 간의 갈등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처럼 여성은 부모의 공간, 영웅의 공간, 부부의 공간을 이동하며 ‘여성’, ‘영웅’, ‘여성 영웅’이라는 지위를 차례로 획득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 계약적 대상이었던 여성에서 벗어나 한 인간으로서 주체성을 확립하게 되는 것이다.⁴⁷⁾

47) 민찬은 여성영웅소설이 영웅소설의 구조를 갖추면서도 남녀이합이 작품의 구조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영웅소설과 남녀이합 소설의 양면성을 확보했다고 하였다. 이때 양면성이란 영웅소설이면서 주인공을 여성으로 설정하여 여성의 활약을 증가시킨 것이라고 하였다. ‘여성’과 ‘영웅’의 어울리지 않는 두 어휘의 복합어인 ‘여성영웅’은 여성영웅소설이 지니고 있는 양면성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은 여성으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영웅소설의 주인공에서 벗어나고 영웅으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남녀이합형 소설의 주인공에서 벗어난다고 하였다. 두 가지 속성의 교묘한 집합은 여화위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 (민찬, 앞의 논문, 91~92쪽.) 이때 본고는 여성에서 영웅으로, 다시 여성 영웅으로 가는 과정 자체가 여성이 지위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여성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2) 이상적인 삶에 대한 회구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성영웅소설은 혼담을 활용하여 영웅 서사 전반을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혼담을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남는다. 당시 혼인 제도는 여성에게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성은 혼인을 통해 부부의 공간으로 들어서는 순간 행동반경이 규문 안으로 제한되며 친정과의 소통도 단절된 채 시댁 중심의 삶으로 재구축된다. 이러한 삶은 여성의 삶을 시댁의 울타리 안에서만 의미를 갖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여성은 수세적인 위치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며 시집살이 중심의 규범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⁴⁸⁾ 따라서 여성은 주체성을 잃고 사회가 요구하는 수동적인 여성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혼인 제도를 여성영웅소설이 차용하고 있으며 선혼담 서사에서는 작품 초반부터 전면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선혼담 서사는 작품 초반부터 혼담을 개입하여 전체 서사를 결연담으로 묶어둔다. 이는 표면적으로 선혼담 서사가 남녀의 결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간을 따라가다 보면 여성의 지위 변화가 목적임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공간에서 여성은 성별적 여성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여성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거나 혼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러한 성별적 제약은 운명론적 세계관을 통해 독자에게 보여주게 된다. 태몽부터 천상계가 관여하여 여성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는 선택권이 없는 여성의 삶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서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이 늑혼 등의 사유로 부모의 공간에서 벗어나는 순간 여성은 성별적 제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때 여성은 여화위남을

48) 이연순, 「조선 여성의 유교적 여성상 내면화 연구-여훈서(女訓書)와 규방가사(閨房歌詞)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8, 한국여성연구소, 2008. 5쪽.

통해 남성 사회에 진입하게 되며 여성은 본인의 능력을 거리낌 없이 발휘하게 된다. 여성의 영웅성 발현은 지위로 이어져 사회적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게 된다. 이는 성별적 제약 대상이었던 여성도 그 능력을 계발하면 뛰어난 인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후 여성은 여화위남이 밝혀지면서 다시 성별적 여성으로 복귀할 위험 상황에 노출된다. 하지만 그 순간 남성 사회에서 최고 권력자인 천자의 공인을 얻어냄으로써 여성이면서도 영웅인 여성 영웅이 탄생하게 된다. 이때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유지되거나 더 높아지게 되며 부부의 공간까지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부부의 공간에서 남성은 가부장적인 권한을 강요하지 않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게 된다. 즉, 여성의 입장에서는 부부의 공간이 성별적 제약이 사라진 영역이 된 셈이다.

이는 당대 여성들이 소망하던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여성은 가정 내 남성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삼강 윤리 이념에 따라 가정 내에서 남성은 여성에게 신체적 억압과 통제를 가할 수 있었다. 반면 여성은 남성에게 폭력을 가할 수도 없었고 가해지는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없었다. 만약 처가 남편을 떠나 도망한다면 장 100대의 처벌을 받고 남편은 처를 가매(嫁賣)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받았다.⁴⁹⁾ 이러한 법적 장치는 여성을 수동적으로 만들었고 여성이 이혼이나 가정을 떠나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 또한 국가는 법률과 재판을 통해 가문의 구성원들이 여성에 대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활동 공간을 열어 주었다. 결국 남성은 삼강

49) <대명률>에서는 처가 남편을 구타한 행위에 대해서는 장 100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남편이 구타로 인해 어떠한 상처를 입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구타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반적인 구타율(毆打律)에서 다른 사람을 골절하게 만든 것과 같은 정도의 처벌을 가하였다. 거기다 만약 구타의 결과로 남편이 독병(篤病)에 이르면 처를 교형에 처하고 남편이 죽었으면 참형에 처하고 고의로 살해하였으면 능지처사에 처하였다. 하지만 남편이 처를 구타한 경우에는 절상(折傷)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논하지 않았고 절상 이상에 이르렀어도 일반적인 관계의 사람을 구타한 죄에서 2급을 감하였다. 또한 처가 죽음에 이르렀을 경우에 만 남편을 교형에 처하였다. (백옥경, 「여성과 법, 제도 : 조선시대의 여성폭력과 법 -경상도 지역의 <검안(檢案)>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102~103쪽.)

의 윤리에 의거하여 가정 내 여성의 삶 전체를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다.⁵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선혼담 서사는 현실을 살아가는 여성에게 상상의 권력을 부여해 준 셈이다. 선혼담 서사는 분명 여성에게 불리한 혼담을 작품 초반부터 배치하고 있지만 혼인이라는 사회 제도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담을 역이용하고 있다. 즉 혼담을 전면에 배치하여 여성을 운명론적 세계관으로 묶어 두고 부모의 공간에서 성별적 제약을 받게 만들어 여성을 제약한 후 혼담(늑혼)을 통해 오히려 사회로 진출시켜 잠재된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후 능력을 계발한 여성이 영웅의 공간으로 들어서는 순간 남성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남성 사회의 인재로 인정받게 만든다. 하지만 이는 불완전한 지위에 해당하며 언젠든 본색이 드러날 경우 회수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서사는 일부러 여화위남을 들키게 만들고 이를 계기로 남성 세계 최고 권력자인 천자의 공인을 얻어내 성별적 제약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게 만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성에게 가장 불리한 사회 제도인 혼인을 통해 부부의 공간으로 진입시키는데 이때 부부의 공간을 성별적 제약이 없는 성역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여성이 혼인 후에도 주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든다. 이는 선혼담 서사가 오히려 혼인 제도를 역이용하여 여성의 제약을 풀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정 밖의 대표 권력자인 천자와 가정 내의 대표 권력자인 남성으로부터 여성의 능력을 공인하도록 만들어 완벽한 여성영웅으로 거듭난 것이다.

물론 여성영웅소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선에서 보면 선혼담 서사에서 여성 영웅이 최종적으로 부부의 공간에 편입된 것이 가정에 매몰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때 부부의 공간은 여성의 성별적 제약이 사라진 성역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속에서 여성은 제약의 대상이 되거나 차별의

50) 백옥경, 위의 논문. 102~10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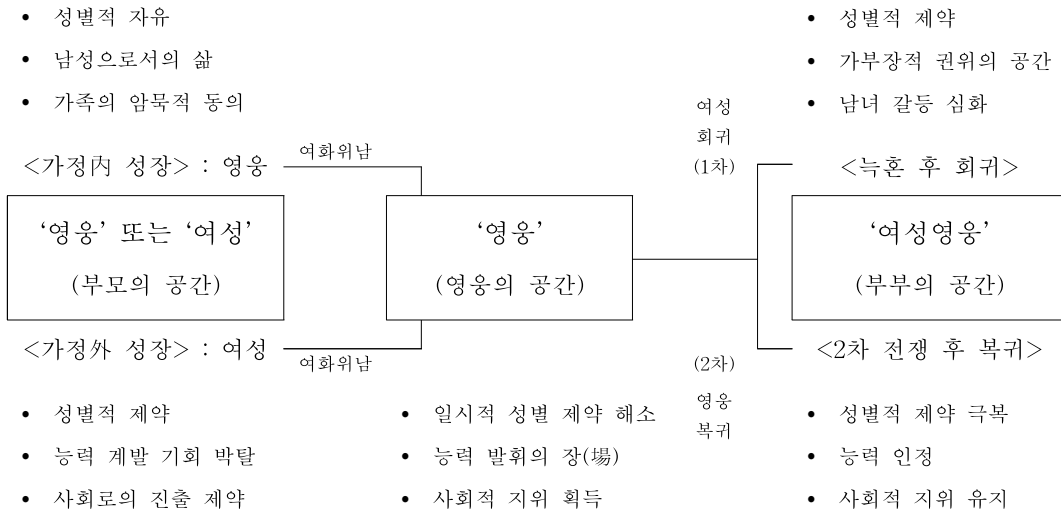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받는, 사회적 지위가 공인된 영웅으로 자리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 영웅이 부부의 공간에 들어선 것을 여성영웅소설의 한계점⁵¹⁾으로 보기보다는 여성 영웅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공인받고 남녀 평등한 공간에 안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성 영웅 서사를 읽은 당대 여성 독자들은 분명 자신의 삶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상상의 권력을 간접 체험하게 되고 이를 자신의 삶 속에 투영하여 성별적 제약에서 벗어나기를 회구했을 것이다. 즉, 선혼담 서사는 당대 여성들이 바랐던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반영하여 형성된 여성 서사였을 것이다.

2) 영웅에서 여성으로 회귀

후혼담 서사도 공간의 이동에 따라 여성의 지위가 변화된다. 이때 여성의 첫 번째 지위는 ‘여성’이거나 ‘영웅’으로 시작된다. 이는 여성의 능력과 관계된 것으로 여성이 자력으로 능력을 발현할 경우는 ‘영웅’으로, 타인에 의계발될 경우는 ‘여성’으로 시작하게 된다.

51) 안기수는 애정성취를 문제삼는 영웅소설에서는 서사구조의 전편에 걸쳐 애정성취에 따른 욕망의 축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양산백전>, <백학선전>, <쌍주기연>, <우주호연>을 들고 있다. 이 소설에서는 남녀이합에 따른 남녀 주인공의 자유로운 결연을 문제삼고 있으며 이를 조선조의 사회 제도적 차원에서 허용되지 않는 횡포를 비판하고 그들의 지향가치를 성취해 나간다는 의식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또한 자매혼, 늑혼, 부모혼 등의 당시대의 부당한 혼습 양상을 보여주면서 결국 남녀의 결연은 자유로운 자매혼에 의해 성취되어야 하는 것이 이상적인 욕망임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안기수, 앞의 책. 39~41쪽.)



<후혼담 서사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

(1) 공간에 따른 여성의 지위 변화 : 주체성 파괴

후혼담 서사는 여성의 능력에 따라 두 방향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여성이 내재된 영웅성을 자력으로 발현할 수 있을 경우(<이형경전>, <방한림전>) 여성은 가정 내에 머물며 성장기를 보내게 된다. 반면 여성이 내재된 영웅성을 자력으로 발현하지 못해 후천적으로 계발해야 할 경우(<옥주호연>, <석태룡전>, <홍계월전>) 여성은 부모의 공간에서 이동해야만 능력 계발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따라서 후혼담 서사는 여성의 능력에 따라 서사가 두 방향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부모의 공간이다. 여성의 능력에 따라 부모의 공간은 다른 의미

를 내포하게 된다. 먼저 여성이 자력으로 영웅성을 발현할 경우 조실부모 후 여성이 명실상부한 집안의 가장으로 자리하면서 여성은 ‘여성’의 삶을 버리고 남성의 삶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가족의 묵인하에 가능했으며 여화위남을 통해 타인이 여성의 성별을 남성으로 착각하게 만들며 성별적 제약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여성은 자연스럽게 공간 이동 없이 성별을 전환하고 부모의 공간에 자신의 가치관을 덧입혀 영웅의 공간으로 변화시킴에 따라 ‘영웅’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반면 여성이 후천적으로 영웅성을 계발해야 할 경우 부모의 공간에서 여성의 지위는 ‘여성’이 된다. 여성은 제약의 대상으로 인지되어 능력 계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므로 부모의 공간에서 벗어나 이동해야만 영웅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영웅의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여성은 ‘영웅’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후혼담 서사는 대체로 두 가지 방식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된다. 먼저 자력으로 영웅성을 발현한 경우 부모의 공간에서 성장기를 보내며 과거를 통해 입신양명(<방한립전>, <이형경전>)하게 된다.

반면 후천적으로 영웅성을 계발한 여성은 유리걸식을 통해 고난을 겪으며 구출자에게 구출되고 이후 수학 과정을 거쳐 영웅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후 여성은 과거를 통해 입신양명(<홍계월전>)하거나 단신으로 전쟁에 참여(<옥주호연>, <석태룡전>)하여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세 번째, 부부의 공간이다. 후혼담 서사는 군담을 먼저 배치하여 여성이 성별적 제약에서 벗어나 능력을 발휘하며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서사는 여성이 ‘영웅’으로서 정점에 올랐을 때 돌연 혼담을 배치함으로써 ‘영웅’을 ‘여성’으로 강제 회귀시킨다. 그 결과 여성의 주체성은 파괴되고 여도를 강요받으며 주변인은 물론 배우자 남성과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된다.⁵²⁾

이때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혼담 서사는 여성의 여화위남이 밝혀지더라도 그 공을 인정하여 천자가 여성의 지위를 공인해 준다. 이로 인해 여성은 성별적 여성으로 회귀하더라도 제약에서 벗어나 사회 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후혼담 서사는 이와는 반대 결과를 보인다. <홍계월전>과 <석태룡전>은 여성의 지위가 형식적으로 유지될 뿐 혼인 이후에는 사회 활동이 중단되고 <이형경전>은 그 지위를 환수하였으며 <옥주호연>은 여성 스스로 지위를 반납하게 된다. 이로써 후혼담 서사 속 여성은 ‘영웅’의 지위를 빼앗기고 ‘여성’으로서의 삶을 강요받게 된다.

하지만 서사는 확장된 서사를 통해 2차 전쟁을 배치하고 그 결과 ‘여성’이 다시 ‘영웅’으로 복귀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여성은 천자의 공인을 통해 ‘여성영웅’의 지위를 획득하며 성별적 제약에서 벗어난 상태로 부부의 공간에 재진입하게 된다. 이때 부부의 공간은 2차 전쟁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된다. 전자는 남성의 권위가 우선시 되는 공간으로 여성의 가치관과 상충하는 공간이었다면 후자는 남녀가 대등한 공간으로 여성의 가치관과 부합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따라서 가치관이 상충하며 발생했던 모든 갈등이 2차 전쟁 이후 종식된다. 이때 전자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여성’이었다면 후자에서는 ‘여성영웅’으로 그 지위가 변화하게 된다.

52) 장시광은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나는 여주인공의 내면 갈등은 남자로 태어나지 못하고 여자로 태어난 데 대한 통한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았다. 타자인 여성은 남성 중심으로 움직이는 세계와 남성의 지배를 받는 자신들의 현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고 하였다. 게다가 여주인공은 남성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어서 그러한 불만은 더욱 크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갈등이 배태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역설적으로 여주인공이 지닌 유교적 이데올로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주인공들이 여화위남을 하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자아실현을 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을 모방해 남성으로서의 자아실현을 하려는데 있다고 본 것이다. 여성 거부와 남성 선망의 모습을 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장치가 여화위남이라고 하였다. (장시광,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여화위남(女化爲男)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328~329쪽.)

그러나 당대 여성들이 사회진출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이 능력이 있다고 해도 사회로 진출할 방법이 없다면 결국 그 능력을 보일 기회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사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이 사회로 진출하는 방법, 그것이 여화위남이었고 이는 여성 거부로 모두 표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후혼담 서사에서 여성은 부모의 공간, 영웅의 공간, 부부의 공간을 이동하며 ‘여성’ 혹은 ‘영웅’으로 시작하였다가 ‘영웅’이 되고, 다시 ‘여성’으로 회귀하는 과정을 겪은 후 ‘여성 영웅’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성별적 제약을 부부의 공간에서 겪으면서 인간으로서 확립했던 주체성이 파괴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주변인들과 극심한 갈등도 겪게 된다. 하지만 확장된 서사를 통해 결국 ‘여성영웅’의 지위를 회복함으로써 통제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 주체성을 회복하게 된다.

(2) 억압적 삶에 대한 저항

후혼담 서사는 선혼담 서사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서사를 진행하게 된다. 선혼담 서사가 여성에게 성별적 제약이 없는 성역을 그려줬다면 후혼담 서사는 오히려 현실의 폭력성에 반기를 드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대 여성은 가정 내에서 남성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는 여성 영웅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후혼담 서사는 혼담을 서사 중반에 배치하여 여성 영웅에게 큰 타격을 입힌다.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다지며 자신만의 삶의 철학을 실천하던 여성 영웅이 한순간에 ‘여성’으로 회귀하게 되면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티휘 삼인다려 왈 경의 부되 멀니 잇고 혼스를 쥬히리 업스니 군신은 부즈 일체라 경은 몬져 녀복을 기착흐라 하시니 습인이 숙스흔디 궁네 밧서 옥함에 치복을 가져와 입기를 지축흐거늘 습취 마지못흐야 녀복을 기착흐고 ... 상이 임의 레부로 혼구를 준비흐신지라 채완 등을 명흐스 왈 경 등이 류가 습녀로 동문슈학흐다 하니 녀형에 타문에 가지 못흐리니 더욱 괴이흐 바논

경 등 룩인이 동년동월동일동시싱이라 하니 이는 텃정일시 분명하고 경의 부
되 멀니 잇스니 짐이 주훈호리니 경 등은 짐의를 저바리지 말나

<옥주호연>⁵³⁾

<옥주호연> 속 천자는 계략을 통해 여성들이 스스로 본색을 드러내도록 만든다. 그리고 천자는 여성들에게 즉시 여복으로 개착할 것을 명하고 미리 준비해둔 옷을 내밀며 재촉하자 여성들은 마지못해 여복으로 갈아입게 된다. 그 사이 천자는 이미 혼례 준비를 마치고 남성들에게 여성들과의 혼인을 명령하게 된다. 이때 천자가 제시한 혼사의 근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여 다른 가문에 시집가지 못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남성과 여성의 태어난 시각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천자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인식이고 후자는 운명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인식이다. 이러한 천자의 태도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선으로 가득하다. 여성들의 정체를 눈치채고 여성들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함으로써 수치심을 주었고, 강제로 여성들에게 여복으로 개착할 것을 강요하였다. 또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했기 때문에 다른 가문으로 시집가지 못한다고 단정하고, 여성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남성들에게만 혼인 의사를 묻고 있다. 이때 천자는 여성과 남성 쌍둥이 육인의 도움을 받아 그 지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성별이 밝혀지는 순간 여성의 공은 사라지고 성별로서의 여성만 남게 되었다.

이처럼 후혼담 서사는 여성의 본색이 밝혀지는 순간 여성의 인권은 무시된 채 오로지 혼사라는 사회적 관습만 적용하며 여성을 부부의 공간으로 강제 편입시킨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주변인들은 모두 방해자로 전락하고 남성 사회 최고 권력자인 천자까지 나서 영웅을 ‘여성’으로 강제 회귀시켜 혼인이라는 사회 제도 속에 편입시키려 한다. 이러한 천자의 태도는 선혼담 서사와는 상반적이다. 선혼담 서사에서 천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공인

53) 「옥주호연」, 앞의 책. 579쪽.

해 주었지만 후혼담 서사에서는 오히려 방해자가 되어 여성에게 혼사를 강압하는 주체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배우자 남성의 태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형경전>과 <홍계월전>은 혼인 직후 배우자의 애첩과 갈등을 겪게 된다.

금덩을 타고 응위호야 중문에 나올시 눈을 들어 영춘각을 바라보니 익첩 영춘이 난간에 거러 안жат거늘 계월이 디로호야 덩을 머무르고 무사를 호령호야 영춘을 잡아 느려 덩 압히 쏘니고 호령 왈 네 중군에 세로 교만방자호야 니형차를 보고 감히 란간에 놓히 거러 안즈 요동치 아니호니 네가 중군에 힘만 밋고 이 갖치 교만호니 너갓흔 요망흔 녀을 엇지 살녀 두리오 당당이 군법을 세우라 호고 무사를 호령호야 문밖게 니여 버히라 호니 무시령을 듯고 달녀들어 령춘을 잡아 나려 버히치니 군졸과 시비 등이 황겁호야 바로 보지 못호더라

<홍계월전>⁵⁴⁾

<홍계월전>에서 홍계월은 보국의 애첩 영춘이 자신의 행차를 높은 난간에 걸터 앉아 지켜보는 모습에 대로하여 영춘을 죽이게 된다. 이때 보국은 ‘계월이 전일은 디원수 되야 소즈를 중군으로 부리미 장막지간이라 능멸이 여기지 못호려니와 지금은 소즈의 니실시오미 소즈의 스랑호는 영춘을 무단이 죽여 심스를 불평케 호오릿가’라며 부친에게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 혼인 전에는 보국이 사회적인 지위가 홍계월보다 낮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아내이기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다.

이러한 총첩 사건은 남녀 갈등의 도화선으로 작용하여 배우자 남성은 여성에 대한 열등감이, 여성은 가부장제에 대한 반감이 폭발하게 된다. 급기야 여성이 부부의 공간에서 이탈하는 사태(<이형경전>)까지 발생하게 된다.⁵⁵⁾

54) 「홍계월전」, 앞의 책. 514쪽.

55) 최지너는 여성과 남성이 첩을 두고 벌어지는 갈등을 힘겨루기로 보고 아내인 여성 영웅이

학식 미우의 노식이 가득하야 연을 가라쳐 즐 왈 네 날을 의심하야 눈쳐
 히 녀닐진디 당당이 도라가려이와 평일의 네 괴로라 하던 말니 붓그림지 아
 니라 불과 위영이 녀씨 부인 총을 미더 날을 모함하니 장연이 혼 필뷔 고지
 드르니 고니치 아니한지라 니 비록 용열하나 존전의셔 위영이 녀부인 총을
 미더 날을 모함하니 장연 너 혼 필뷔 흘져쥬 스희고져하되 스희이 다 나의
 구츠흐를 우을지라 청이 불청하야 도라가노라

<이형경전>56)

일반적으로 당대 여성에게 간부 모해는 가장 치명적인 모해에 해당하지만 <이형경전> 속 이형경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시댁 식구들이 간부 모해의 진상을 의논하는 자리에 이형경이 등장한다. 그리고 장연에게 이미 의심해 결단하기 난처해 보이니 자신이 본집으로 돌아가겠다며 지기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질책한다. 또한 위영과 더불어 화락하라며 비웃는다. 이러한 이형경의 태도는 여타 고전소설에서 볼 수 없는 당당함이다.

반면 장연(배우자 남성)의 태도는 이형경과 사뭇 대조를 이룬다. 장연은 총첩 위영이 이형경을 모해할 때 묵묵무답으로 일관한다. 이때 장연이 침묵하는 것은 가부장제가 지닌 폭력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집안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능력과 의사를 보이지 않는 장연은 가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가부장제 사회가 은폐해 왔던 남성의

가장 남성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을 택해 남편을 제압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부녀의 행실을 기대하고 요구하지만 여성영웅은 여전히 남성으로서 활약하던 시절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전쟁에 다시 출전하여 전쟁에서 활약하는 것 또한 여성이 규중 삶으로 완전히 복귀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결국 여성영웅이 부도(婦道)에 충실하겠다고 마음을 돌린 뒤에야 화해와 동침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때 여성 영웅은 첩을 죽여버릴 만큼 과격하고 대담한 성격의 인물로 그려져 있지만 동시에 애정에 대한 갈구도 강하게 보인다고 하였다. 그래서 남성의 사과에 금방 마음이 풀리고 감동해 순순한 태도를 취하며 이후 남편과 원만한 관계로 지내며 여성으로서의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혼인 거부에서 예견되었던 결혼 생활의 갈등은 시댁 식구들의 인간적인 화해와 애정을 통해 극복된다고 보았다. 이에 혼인을 거부하는 유형의 여성영웅은 혼인과 가부장제의 회유와 타협이라는 두 가지 기제에 의해 가부장제 하의 여성의 삶으로 포섭됨을 알 수 있다고 보았다. (최지너, 앞의 논문. 54~55쪽.)

56) 「이형경전」 하권, 앞의 책. 37-1쪽.

허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⁵⁷⁾ 이로 인해 이형경은 가장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본가로 돌아가 버린다. 그러나 장연은 시랑(시아버지)이 이형경을 데려오라고 시킬 때까지 이형경을 찾지 않는 등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다.

이때 주목할 만한 대화가 있다. 아버지의 명을 받아 이형경을 찾아간 장연은 노복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하자 화가 나 칼을 뽑은 채 내실로 들어가 거문고를 타고있는 형경을 꾸짖게 된다. 이때 장연이 자신은 청주후의 부가인데 어찌 무례하게 구냐며 화를 낸다. 이에 한 사람이 상공이 비록 청주후의 가부시나 우리 이후는 대원수시요, 상공은 부원수시니 직품을 이룰진대 누가 더하겠냐고 비웃게 된다. 이 대화는 장연이 이형경보다 사회적 직책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서 이형경보다 우위에 서고 싶은 장연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으며 더불어 남성의 부당함을 비판하는 여성의 심리가 대변되어 나타난 것이다.

<홍계월전>의 남성은 장연보다 더한 가부장적 태도를 보인다. <홍계월전>에서 보국(배우자 남성)의 사회적 지위는 원수인 홍계월보다 훨씬 낮은 중군장이다. 이로 인해 보국은 홍계월에 대한 열등감이 심하게 나타난다. 혼인 전 홍계월이 일부러 군례를 차리는 과정에서도 사회적 직책이 낮은 보국은 열등감에 분노하며 거만하게 굴다 홍계월이 군법대로 처리하려 하자 신병을 핑계삼으며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보국은 이후 홍계월에 대한 열등감이 더욱 폭발하고 애첩 영춘을 죽인 일로 인해 그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보국은 사회적 지위나 능력으로 홍계월을 상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로 부모에게 고자질을 하거나 홍계월을 찾아가지 않는 방법 등으로 복수하게 된다.

이처럼 후혼담 서사는 혼인 이후 애첩과의 갈등이 도화선이 되어 남녀 간

57) 관현희,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남성인물 형상과 의미-〈이현경전〉의 남성인물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51,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2. 142쪽.

의 갈등이 시작된다. 이때 여성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은 남성의 열등감과 사회적 지위는 높으나 성별적으로 제약을 받는 여성의 반발감이 서로 충돌하며 가정 내 불화를 형성하게 된다. 남성은 자신의 열등감을 가부장적 지위로 표출시키고 여성은 사회적 지위로 이에 반발하면서 심할 경우 여성이 부부의 공간을 이탈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충돌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성이라고 볼 수 있다.⁵⁸⁾

그렇다면 왜 후혼담 서사는 여성보다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남성을 배우자로 설정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사회적 지위는 물론 능력면에서, 인성면에서, 자질면에서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여성 영웅의 배필감으로 적절치 않아 보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혼담 서사는 부족한 배필을 여성 영웅의 짝으로 배치시킨다.

선혼담 서사는 남성의 능력이 여성보다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대로 그 능력을 발휘하며 여성과 동지적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여성에게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이 존경의 대상이 되어 남성이 여성을 보필하게 되며 이러한 관계는 부부의 공간까지 이어지게 된다.

반면에 후혼담 서사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자질이 상극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남녀 차이를 표면적으로 해석하자면 여성의 영웅성을 배가시켜주기 위해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능력이 부족한 남성과 뛰어난 자질의 여성을 비교함으로써 여성을 더 우위에 둘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⁵⁹⁾ 그러나

58) 조선 시대의 여성 교육에 대한 기본관점은 내치론(內治論)이었다. 이는 가정과 국가의 흥망은 여성의 행실 혹은 선악에 달렸다는 것으로 여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을 모두 보여준다. 긍정적인 인식으로 보자면 여성이 국가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인식으로 보자면 결국 폐망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시키는 논리인 것이다. 겉으로 봤을 때는 여성이 국가의 주된 구성원처럼 말하고 있으나 사실 여성의 행동을 제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국 여성 억압의 논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언순, 앞의 논문. 8~9쪽.)

59) 박양리는 <이현경전>을 통해 남성의 열등한 모습에 대조되는 여성의 우월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하였고 (박양리, 「초기 여성영웅소설로 본 <이현경전>의 성격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54, 한국문학회, 2010. 97쪽.) 정준식은 <이현경전>을 통해 초기 여성영웅소설이 보여주는 우월한 여성 대 열등한 남성의 구도가 처음 모색된 작품이라고 하였다. (정준식,

이러한 남녀 간의 차이는 단순하지 않다.

우선 <이형경전>과 <홍계월전> 모두 총첩과의 갈등이 도화선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해 보자. 선혼담 서사는 일부다처 서사가 많이 나타나지만 처첩 간의 갈등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후혼담 서사는 처첩 간의 갈등이 혼인 이후 바로 발생하게 된다. 이는 후혼담 서사가 여성의 여성성을 강조하기 위한 서사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여성영웅소설에서의 처첩 관계는 서사 유형과 관계없이 여성영웅소설의 본질이 아니다. 선혼담 서사는 공간 이동에 따른 여성의 지위 변화에 초점을 두고 혼담을 활용한 것이기에 혼담과 관련된 서사들로 처첩 관계가 활용된 것이다. 한편 후혼담 서사는 여성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서는 성별적 제약을 받는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 처첩 간의 갈등이 활용된 것이다. 이는 후혼담 서사에서 애첩 개인의 서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처첩 간의 갈등이 강하게 부각되는 가정소설이나 가문소설에서는 처첩 간의 서사가 상당 부분 할애된다. 첩이 흥계를 꾸미는 장면은 물론 처첩이 갈등하는 과정이 단선적이지 않고 중층적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후혼담 서사는 애첩의 오만한 태도에 분노한 여성이 이들을 죽이거나 꾸짖는 장면으로 나타난다. 만약 처첩 간의 갈등을 목적으로 했다면 애첩과의 갈등 서사가 좀 더 자세히 드러나야만 했다. 그러나 후혼담 서사는 단지 여성을 보고 예를 취하지 않았다는 명목하에 첩을 죽이는 서사로 마무리된다. 이로 인해 갈등하는 대상은 애첩이 아닌 남성이다.

<이형경전>은 이러한 갈등 서사가 조금 더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하지만 <이형경전> 또한 애첩이 시어머니를 자극하는 내용만 추가되어 나타나며 그 결과 고부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⁶⁰⁾ 일반적으로 처첩 간의

앞의 논문, 42쪽.)

60) 장시광은 <이학사전>이 고부 간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 있는 작품이라고 하였다.

갈등은 남편의 관심이나 집안의 재산, 혹은 자신의 아들을 가장으로 만들기 위해 발생하게 되는데 후혼담 서사는 이러한 이유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여성은 이미 남편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며 집안 재산도 관심이 없을 뿐더러 애첩에게 자식이 없기 때문에 처첩 간의 갈등이 서사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두 작품에 나타난 처첩 간의 갈등은 가부장제에 대한 여성의 반감을 보여주는 서사로 작용하는 것이지 처첩 간의 갈등이 본질적인 서사는 아닌 것이다.

이러한 갈등 과정에서 남성은 여성의 지지자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남성이 자신의 애첩을 죽인 여성에게 복수하는 장면은 가정 내 남성의 폭력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처가 첩을 죽이는 것이 용납되지 못하지만 여성영웅소설에서는 이를 용납한다. 그리고 그 용납 속에 남성의 보복도 허락한다. 여성은 여성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서 ‘여성’이라는 약자가 되어 고립되고 남성은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남성이라는 강자가 되어 여성의 가정 내 교류를 차단시켜 여성에게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남성의 복수는 가정 밖으로 이동할 수 없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폭력으로, 당대 여성들의 가정 내 지위를 짐작하게 만드는 장면이다.

그러나 여성 영웅은 이러한 폭력성에 노출되었을 때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기를 든다. 자신을 고립시키는 부부의 공간을 이탈(<이형경전>)하여 다시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회귀해 버리는 것이다.

물론 당대 여성들은 현실적으로 여성 영웅과 같은 선택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여성의 가출, 이혼은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았고 오직 남성에게만 주

현경이 남편과 화해하고 시가에 돌아왔을 때 여부인(시모)은 부끄러운 빛을 띄고 있는데 이에 현경이 관대하게 대해 화해를 모색하는 모습에서 장씨 집안에서 일어난 갈등은 근본적으로 여부인과 현경의 갈등이라고 보았다. 또한 <정수정전>, <홍계월전>, <이학사전>에서도 시집에서의 갈등이 등장하는데 이때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에 대해 선천적 능력에 대한 열등감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남주인공들은 자신들의 선천적 능력에 대한 열등감을 사회적으로 보장된 남성의 권위를 통해 되찾으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부갈등이 생겨난다고 보았다. 이때 부부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첩에 있다고 하였다. (장시광, 앞의 논문. 2001. 316, 319쪽.)

어진 권력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상의 공간에서 이러한 남성의 부당한 권력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이 바로 여성 영웅이다. 여성 영웅은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부부의 공간에서 과감하게 이탈을 선언하고 자신의 철학으로 형성된 공간으로 회귀함으로써 영웅으로서의 삶을 도모하게 된다.

하지만 당대 사회적 관습이 독신 여성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부부의 공간으로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여성은 이미 2차 전쟁으로 인해 영웅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했으며 복귀하기 전 반드시 남성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게 만든다. 그 결과 2차 전쟁 후에 복귀한 부부의 공간은 ‘여성 영웅’이라는 신분을 유지한 채 이루어지며 남성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성별적 제약에서도 자유로운 성지가 된다.

이러한 서사는 당대 여성들의 삶을 대변하는 것으로 여성 영웅조차 여성이라는 성별적 제약에 묶여 남성의 폭력성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영웅소설은 당대 여성들에게 여성 영웅이 좌절하지 않고 억압적 제도에 반기를 들어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성들 또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 영웅 서사는 당대 여성들에게 이상적인 삶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 여성들의 삶을 과장되게 묘사함으로써 삶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내고 주체성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때 활용된 혼담도 여성영웅소설의 개성 강한 서사를 형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Ⅲ. 여성영웅소설의 서사 유형에 따른 조력의 특성

영웅소설에서 주인공이 진정한 영웅으로 성장하기까지 초월계는 물론 현실계의 존재가 영웅의 일생에 관여하며 주인공과 공감, 협력, 연대 관계를 형성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조력이라고 한다. 또한 조력은 주인공이 영웅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주인공이 영웅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위기를 암시, 구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주인공과 연대하며 서사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영웅소설에서 주인공이 위업을 달성하고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조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만약 영웅소설에 조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영웅은 영웅으로서의 타고난 운명을 현실화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조력은 영웅과 분리될 수 없는 운명공동체를 형성하며 서사의 방향을 이끈다. 여성영웅소설에서는 조력과 혼담이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더욱 다양한 형상화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제의식 구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1. 여성영웅소설의 조력 형상화 방식

여성영웅소설은 서사 유형에 따라 조력 관계가 다르게 나타난다. 선혼담 서사는 여성과 조력 관계가 밀착되어 초월계와 현실계에서 다양한 조력을 지원받게 된다. 반면 후혼담 서사는 여성과 조력 관계가 약화되며 오히려 반(反)조력이 형성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처럼 여성영웅소설은 서사 유형에 따라 조력 관계가 다르게 형성되어 서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조력 형상에 대해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여성영웅소설의 조력 형상화 방식을 초월계와 현실계의 조력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 서사 유형에 따른 조력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초월계의 조력

초월계는 주로 영웅성 및 배우자 암시, 위기 구출 및 기회 제공, 정신적 안정감 형성, 역량 개발 지원 등의 역할 등의 조력을 수행하게 된다.

(1) 영웅성 및 배우자 암시

영웅소설은 주인공의 출생과정에 태몽을 개입시켜 주인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한다. 특히 태몽을 통해 주인공이 천상계와 관련된 인물임을 고지하며 주인공이 천상계적 이미지를 획득하는데 도움을 준다.⁶¹⁾ 이때 태몽에서 주로 등장하는 유형이 천신이다. 천신은 옥황상제, 세존, 선녀 등의 이미지로 나타나게 된다. 이때 옥황상제나 세존은 직접 태몽에 관여하기도 하지만 선녀나 선관 등의 대리자를 보내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61) 임치균은 태몽이란 영웅소설의 출생과정에 있어 가장 핵심 요소로 태몽에서 천상적 이미지가 주인공에게 부여되고 이러한 이미지가 주인공을 영웅으로 만드는데 영웅에게 필수적인 고귀한 혈통은 태몽에서 주인공이 상제에 득죄하여 내침을 당했다는 언급을 통해 확보한다고 보았다. (임치균, 「영웅소설 연구-출생과 투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85. 36, 51쪽.)

하로는 한선녀가 손에 옥함을 밧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배기머리에 니르러 부
 인다려 갈오디 첩은 옥황상제의 시녀이옵거니와 이 옥함 중에 장치흔 것은 곳 티
 음성정이온디 전싱에 부인으로 더부러 인연이 잇삽는고로 상데피셔 특히 명흐샤
 귀덕에 점지케 흐실뿐이라 타일에 복록이 무량흐고 또흔 큰 스업을 일우어 공이
 우주에 썰치고 일흠이 죽빅에 드리울지니 이것은 세간 심상흔 녀즈의 비홀바
 안이오

<김태자전>⁶²⁾

<김태자전>은 옥황상제의 시녀가 옥황상제의 대리자로 나타나 상제께서 특
 별히 명하시어 귀택에 점지케 하셨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시녀는 ‘타일에 복
 록이 무량흐고 또흔 큰 스업을 일우어 공이 우주에 썰치고 일흠이 죽빅에 드
 리울’ 것이라며 여성의 영웅성을 직접적으로 예언하고 있다.

전년 서천 영주사 세존께서 옥황에게 말하기를 “당나라 조주에서 살던 권씨
 가 자식이 없어서 불쌍합니다. 바라건데 살피셔서 후손이 끊기지 않도록 해주십
 시오.”라고 고하자 옥황이 노하여 말하였다. “권씨는 오십 년 동안 죄를 겪어야
 한다. 그 전에 교령할 수 없다.” 세존이 또 고하였다. “권씨는 스스로 지은 죄는
 피할 수 없지만 그의 처 류씨는 덕행이 있는 사람입니다. 권씨의 화가 류씨에게
 까지 미치면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폐하게 고한 것입니다.” 옥황이 말하
 였다. “그러면 후손이 없으면 안되겠구나. 그러면 그에게 딸 한 명을 주고 외손으
 로 성을 잇도록 하라.”

<운향전>⁶³⁾

62) 「김태자전」, 앞의 책. 13~14쪽.

63) 年前西天灵住寺世尊先于玉皇曰大唐潮州權某之無子是焉哀矜伏願占定後孫不至絕嗣如此云云則
 上帝怒曰權某有五十年罪名其前不可爲教世尊又告曰權某自作之罪雖不可活也以其妻柳氏之德連
 及池魚之殃豈非可憐乎以此緣由茲敢仰達上帝曰此則不可無後使得一女以外孫傳姓可也 (「운향
 전」, 앞의 책. 242쪽.)

<운향전>은 선관이 대리자로 등장하여 세존과 옥황상제가 나누는 대화를 전달하고 있다. 선관은 운향의 부친 권처사에게 권처사의 전생, 자식이 없었던 이유, 자식을 접지하게 된 과정을 상세히 전달하고 있다.

비몽사몽간에 턴문이 열니며 혼 선녀 나라와 지비호고 왈 소녀는 상대 시녀옵
더니 상대게 득죄호고 인간에 니치시미 갈바를 모로더니 세존이 부인덕으로 지시
호옵기로 왓느이다 호고 품속으로 들거늘 놀나 씨다르니 평성디몽이라.

<홍계월전>⁶⁴⁾

<홍계월전>은 홍계월 본인이 대리자로 등장하고 있다. 홍계월은 전생 신분으로 등장하여 자신이 상제의 시녀였으나 득죄하여 인간에 내쳐졌는데 이때 세존이 지시하여 부인덕으로 왔으며 자신의 내력을 언급하게 된다. 이처럼 여성이 전생의 모습으로 나타나 스스로 천상계 이미지를 구축함과 동시에 천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리자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천신은 여성을 천상계적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여성이 천상계와 관련된 인물임을 고지하고 동시에 여성의 영웅성을 암시하게 된다. 영웅성 암시란 영웅으로서의 능력은 내재해 있으나 스스로 발현할 능력은 지니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그 능력을 후천적으로 계발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여성이 천상계적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영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면서 여성의 영웅성은 무한대의 가능성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이후 여성이 신과 같은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더라도 독자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장치로 작용하게 된다.⁶⁵⁾ 이러한 영웅성 암시는 대부분의 여성영웅소설에서 나타나게 된다.⁶⁶⁾

64) 「홍계월전」, 앞의 책. 481쪽.

65) 광동엽, 「고소설 주인공들의 태몽 연구:영웅소설, 심청전, 춘향전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논문집』 15, 국어국문학회, 1992, 106쪽.

한편 여성영웅소설은 혼담이 기초 서사로 작용하면서 배우자와의 결연과정이 작품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⁶⁷⁾ 이에 따라 배우자 예언이 새롭게 나타나게 되었다. 배우자 예언은 주로 태몽이나 꿈을 매개⁶⁸⁾로 하여 친신이 수행하게 된다.

부인이 곤혹여 침석에 의지하였더니 구름 속으로서 한 선녀 내려와 절하고 가로디 첩은 월궁선녀옵더니 황아의 명을 바다 아기 탄심함을 보려왔습느니 ... 아기를 셋겨 누이고 부인께 흐직 왈 텃상 문창성이 방낭을 썬라 푸른 복성화가 금석 사이에 썬러젧스오니 천명을 어기지 마르소서.

<김희경전>⁶⁹⁾

66) 여성의 출생담이 생략되었을 경우 이 과정이 생략(<화옥쌍기>, <홍연전>, <오선기봉>, <장국진전>, <위봉월전>, <방한립전>, <이형경전>)되기도 한다. 여성영웅소설에서 출생담이 생략되는 이유는 여성이 성인으로 처음 서사에 등장했거나 아기인 상태로 서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홍연전>, <화옥쌍기>, <오선기봉>에서는 다른 여성영웅소설과는 다른 색다른 서사가 삽입되어 나타났다. <홍연전>에서는 ‘생명 연장’ 서사가 삽입되어 나타난다. 한 노승이 홍연은 십오 세에 죽을 운명이니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김정승 딸, 이참관 딸, 박판서 딸과 혼인해야한다고 하였다. 이에 홍연이 서울로 올라가 세 명의 여성과 결연하는 서사가 삽입되어 있다. <화옥쌍기>에서는 ‘구약 여정’ 서사가 삽입되어 있다. 전쟁이 진행되던 중 배우자 남성과 군졸들이 독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들을 구하기 위한 구약 여정이 시작된다. 이때 꿈속에서 제갈 선생이 나타나 여성에게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초를 알려주면서 배우자 남성은 물론 군졸들을 살릴 수 있게 된다. <오선기봉>에서는 ‘청혼하기’ 서사가 삽입되어 있다. 태몽은 이미 네 명의 여성과 가연을 맺게 될 것임이 태몽에서부터 예언된다. 이때 독특한 점은 가연을 맺는 여성들이 남성에게 직접 청혼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세 작품은 비록 여성의 탄생담이 생략되었지만 작품마다 독특한 설정이 포함되어 있어 다른 여성영웅소설들과 대별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67) 안기수는 남녀결연의 모티프는 이야기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모티프로 한국 서사문학 속에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고 하였다. 영웅소설에서도 주인공의 일생 과정에서 어김없이 결연 부분이 형상화되며 남녀주인공의 결연과정에 꿈을 통한 애정 성취를 합리화해 주고 있다고 하였다. (안기수, 앞의 책. 198쪽.)

68) 서대석은 군담소설에서 주인공이 결혼하는 과정은 중요한 서사적 요소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았다. 신부의 부친이 신랑감을 발탁하는 경우 신랑감이 비범한 인물이라는 몽중 암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주인공 자신이 신부에게 구혼할 경우도 배우자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확신은 도사가 지시하거나 초월적 존재가 꿈을 통해 지시해 줌으로써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서대석, 앞의 논문. 33쪽.)

69) 「김희경전」, 앞의 책. 190쪽.

<김희경전>은 선녀가 아이의 출생에 관여하여 천상 문창성이 방낭을 따라 푸른 복숭아가 금석 사이에 떨어졌으니 천명을 어기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⁷⁰⁾ 이 경우 천신이 직접 출생에 관여하며 여성의 배우자를 지목하게 된다.

일위선녀 | 오운거를 타고 공중으로 내려와 첩다려 왈 나는 너의 전생 모친이
어니와 너의 인간에 백년가우를 다리고 왔스니 너는 부디 내말을 훌훌히 듯지
말지어다 흐시며 뒤에 섰는 한 선관을 도라보며 왈 이는 너의 텅덩가인이니 서로
불지어다 흐기로 첩이 슈삽함을 이기지 못흐나 심중에 이상히 녀여 잠간 것
눈으로 그 선관을 보니 그 선관이 불의에 다라드러 첩의 허리를 안기로 놀라 씨
믹 그 몽스 | 심상치 아니키로 ... 리인거각을 샅히옴다가 공즈를 마조침이 잇습
고 ... 공즈는 곳 몽중에 보던 그 선관이오니...

<화옥쌍기>⁷¹⁾

위 서사는 기생인 척경화가 몽린(배우자 남성)을 손님으로 만나 전날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척경화의 꿈에 척경화의 모친이 선녀로 나타나 한 선관을 백년가우로 소개하며 서로 보도록 권한다. 이에 척경화는 이상히 여겨 잠간 곁눈으로 보는데 갑자기 선관이 달려들어 허리를 안자 놀라 잠에서 깬다. 척경화는 하루 종일 인연을 만날 기대감에 손님을 살피다가 마침내 몽린을 만난 것인데 그가 바로 꿈에서 본 선관이였다. 이에 척경화는 인연임을 알고 몽린과 함께 할 뜻을 밝히게 되는 것이다. 이때 천신은 선녀이자 현생 모친으로, 여성에게 배우자를 직접 소개하며 배우자를 암시

70) 그 밖에도 <김태자전>은 선녀가 관여하여 주명왕의 태자 왕자진과 더불어 선가의 오랜 인연이니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고 <음양옥지환>은 선녀가 관여하여 지환은 한 쌍으로 별양(陽)자를 쓴 것은 문창성이 가지고 적강했으니 이 지환으로 천연을 찾아 정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정수정전>은 월궁항아가 출생에 관여하여 여아의 이름을 수정으로 지어주고 배필은 황성에 있으니 때를 잃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데 선녀가 여아의 이름까지 정해줬다는 점에서 다른 소설과 차이를 보인다.

71) 「화옥쌍기」, 앞의 책. 528쪽.

하고 있다.

이처럼 배우자 암시는 여성영웅소설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서사로, 대부분 선혼담 서사에서 나타난다. 선혼담 서사는 혼담이 먼저 제시됨으로써 기초 서사가 형성되는데 이때 배우자 예언은 혼담을 시작하는 초석으로 작용하게 된다.

반면 후혼담 서사에서는 혼담 서사가 작품 초반에 관여하지 않으면서 혼담과 관련된 서사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출생에 배우자 암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영웅성 암시		배우자 암시	
		유무	조력 형상	유무	조력 형상
선혼담 서사	<김태자전>	○	옥황상제	○	선녀
	<백학선전>	○	옥황상제	○	상제 시녀
	<음양옥지환>	○	옥황상제	○	선녀
	<정수정전>	○	옥황상제	○	월궁항아 시녀
	<김희경전>	○	월궁선녀	○	월궁선녀
	<황운전>	○	백발노인	△	동몽(同夢)
	<정비전>	○	친상옥녀	△	홍운, 부처
	<이대봉전>	○	쌍학	△	동몽(同夢)
	<이봉빈전>	○	옥황상제	×	-
	<운향전>	○	옥황상제/세존	×	-
	<화옥쌍기>	×	-	○	선녀
	<홍연전>	×	-	△	노승
	<오선기봉>	×	-	△	남극노인성
<장국진전>	×	-	△	광한전 시녀	
후혼담 서사	<홍계월전>	○	세존	×	-
	<옥주호연>	○	부처	×	-
	<석태룡전>	○	태극	×	-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조력 유형>72)

(2) 위기 구출 및 기회 제공

여성영웅소설에서 군담은 혼담과 더불어 주요 서사축으로 작용한다. 특히 군담은 영웅의 활약상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서사이다.⁷³⁾ 따라서 여성 영웅은 군담에서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여 영웅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속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하기도 한다. 이때 영웅은 때때로 조력자와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하기도 하고 영웅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도 한다.

필십여합에 이르러 승부가 엇더니 호츨이 가만이 육정육갑과 오방신장을 부르며 칼을 드러 공중에 더지고 진언을 외오니 홀연 광풍이 더작흐며 운무자욱흐거늘 소져 더경흐여 급히 말머리를 도오혀 닳고자 흐나 지척을 불변흐미 갈곳을 몰나 운무 중에서 능히 버셔나지 못흐였고 심명이 위티흔지라 ... 칼을 드러 즈문코져 흐더니 문득 닳던 말리 소리를 크게 지르며 몸을 날이여 진중에 횡횡하니 용츨에 두귀 사이로 홀연 괴이흔 바람이 이러나 운무와 오방신장을 절노 흐히지닌지라 호츨이 더경실식흐여 으모리 흘 줄 모르는 츠에 용츨이 적장에 말을

72) △ 표기 : 배우자 암시가 여성이 아닌 배우자 남성에게만 나타나거나 동몽(同夢)인 경우 동몽의 경우 직접적으로 배우자를 암시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배우자를 지목하는 셈이 된다. <황운전>과 <이대봉전>은 동일한 태몽을 꾸는 설정이다. <황운전>에서 양부인은 한 노인이 황의동자를 주는 꿈을, 조부인은 백발노인이 계화를 주는 꿈을 꾸고 꾸게 된다. 이후 각각 잉태하여 남아(황운)와 여아(설월층대)를 낳게 되면서 천정연분으로 생각하여 부모끼리 자녀의 혼약을 맺게 된다. <이대봉전>은 이상서의 부인 양씨가 먼저 잉태 후 태몽에서 봉황(鳳凰)이 내려와 주봉(雛鳳)은 장한림 덕으로, 웅봉(雄鳳)은 양씨 품으로 안기는 꿈을 꾸고 후 아들 이대봉을 낳게 된다. 한편 장한림의 부인 소씨도 동일한 태몽을 꾸고 후 딸 설월층대를 낳게 된다. 이후 두 집안은 같은 태몽임을 확인하고 혼약을 하게 된다.

이때 <위봉월전>, <방한림전>, <이형경전>에서는 영웅성 암시와 배우자 암시가 나타나지 않는다.

73) 김도환은 영웅소설의 군담은 서사의 핵심에 위치하고 갈등의 국면 역시 심각하다고 하였다. 급박한 군담의 전개와 치열한 대결구도는 영웅소설 군담의 서사적 동력으로 작용했으며 영웅소설의 군담은 이러한 서사적 동력을 바탕으로 그 분량을 확대했다고 하였다. 특히 영웅소설에서 급박한 군담의 전개는 주로 황제구출 화소를 통해 구현되고 치열한 대결구도는 서사 전체의 적대자와 군담의 적대자가 일치되는 경우 보다 강화된다고 하였다. (김도환, 「고전소설 군담의 확장방식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0. 146쪽.)

무리 업지르미 호충이 싸에 썩러지미 소저 칼을 드러 호충에 머리를 버혀 들고
좌우로 충돌흐니 가는 허리는 춘풍에 세류갓고 고히 티도는 추파에 부용 갖더라
<정비전>⁷⁴⁾

<정비전>에서 용충은 정성모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성모와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위기를 극복하도록 돕는다. 정성모는 서호충과 싸우던 중 서호충이 술법을 부려 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빠져나가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자결하려고 하였다. 이때 용충이 큰 소리를 지르며 서호충의 술법을 무너뜨리고 적장의 말을 물어 엮어뜨리면서 정성모가 반격할 기회를 제공한다.

영웅소설은 동물이 조력하는 경우가 없으며 신물이 별도 서사를 갖는 경우도 드물다. 특히 용충은 영웅의 영웅성을 보여주는 상징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빠른 이동 수단을 제외하고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정비전>에서는 용충이 정성모를 위기로부터 구출하며 여성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상당히 상술되어 있어 주목할 만하다.

오날은 승부를 결단호리라 호고 창을 두루며 쓰흠을 도두거늘 원수 분로호야
칼을 두루며 마져 쓰와 ... 오달리 거죽 피호야 창을 쏘고 다라나거늘 원수 | 급
히 싸로며 ... 원수의 말이 굴함에 빠지니 ... 칼을 썩여 즈문코져 호더니 문득
싸히 우는 소리 나며 ... 리원수는 죽지 말고 이곳으로 내려오라 ... 정의동즈 |
표연히 원수 앞헤 이르러 절호야 ... 정의를 싸라 혼곳에 이르니 ... 엄숙한 괴상
이 왕자의 거쳐갓더라 ... 옥경에 도회호더니 ... 대명국 디원수 리봉빈이 운남
장수 오달의 계교에 속아 굴람에 빠질 것이니 구호라 호시기로 ... 원컨디 존호
를 들어지이다 ... 나는 동희룡왕이어니와 ... 동즈를 명호야 일필 룡충을 잇그
러 오니 ... 용왕이 왈 이 말이 일일에 능히 천리를 가느니 운남 파호기를 엿지
근심호리오 ... 룡왕을 하직호고 동즈를 싸라 쥬문 받게 나오니 ... 오달이 원수
를 굴함에 빠치고 명진을 식살호더니 뜻밖게 원수 살아움을 보고 대경호야 급히

74) 「정비전」, 앞의 책. 540~541쪽.

정을 울너 군스를 거두고 본진에 돌아와

<이봉빈전>⁷⁵⁾

<이봉빈전>에서 용왕은 이봉빈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나 구출하게 된다. 이봉빈은 전쟁 중 오달이 파놓은 함정에 걸리면서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때 이봉빈은 땅이 울리는 소리를 듣게 되고 이 소리를 따라 이동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 또한 이봉빈을 기다리던 청의동자를 따라가 용왕을 만나면서 용충까지 얻게 된다. 이처럼 용충과 용왕은 여성이 위기에 빠졌을 때 연대 관계를 형성하며 여성을 조력하게 된다. 이때 용왕은 천계의 명을 받아 여성을 보호하게 된다.

한편 노인은 영웅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주로 천자의 위기를 고지하여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적군을 섬멸할 수 있는 시기를 고지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윽고 삼경이 지나미 즈연 몸이 곤하여 잠간 조으더니 홀연 비몽스몽 간에 부친이 고향 와 안즈며 기리 혼숨 지으며 원슈의 손을 잡고 머리을 어로 만지며 기연이 탄식 왈 지금 국세 시급호야 스직은 커니와 턴위 위급호시니 너는 밧비 계명산으로 갈지어다 호거늘 원슈 일희일비 혼중 더경호여 연고을 못고져 호다가 놀나 씨니 남가일몽이라

<김희경전>⁷⁶⁾

<김희경전>은 죽은 부친이 꿈을 매개로 하여 천자의 위기를 고지하고 있다. 설빙은 전쟁에 참여하여 적진을 공격하던 중 적왕인 남경왕이 없는 것을 보고 필시 간계가 있을 것으로 짐작하나 그 뜻을 알지 못해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설빙의 꿈에 부친의 혼령이 나타나 천자가 위급함을 알려주

75) 「이봉빈전」, 앞의 책. 28~30쪽.

76) 「김희경전」, 앞의 책. 268쪽.

며 바빠 계명산으로 가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날 밤에 원수 병서를 털람하다가 몸이 곤되호야 잠간 조으더니 일몽을 어드니 한로인이 룡환장을 잡고 공중에서 날오디 랑즈의 정렬이 기특흠이 하날이 감동호시니 빗비 횡군호야 도적의 요희쳐를 어드면 가히 도적을 파호리니 씨를 일치 말나 호고 문득 간디 업거늘 놀나 씨니 남가일몽이라

<백학선전>⁷⁷⁾

<백학선전>은 노인이 나타나 적군을 섬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조은하는 남편인 유백로가 전쟁에 출전하여 위기에 처하자 남편을 구하기 위해 천자에게 표를 지어 올려 자신이 유백로의 처임을 밝히고 자원 출전하게 된다. 그러던 중 위수 물가에 진을 치고 상표의 회답을 기다리다 몸이 피곤하여 잠시 조는데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도적의 요새지를 점령하되 때를 잃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꿈에서 깬 조원수는 때를 맞춰 적진을 공격할 수 있었고 마침내 가달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때 노翁은 조은하가 가달을 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조력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은 여성에게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이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한편 여성영웅소설에서 군담 서사는 여성과의 조력 관계를 밀착시키지 않는다. 군담에서 조력 관계가 밀착될 경우 여성의 영웅성이 반감되는 반사효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력 관계가 밀착된다는 것은 여성이 위기에 자주 빠진다는 것이고 이는 여성의 능력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여성의 능력이 부족하여 조력을 받게 되는 서사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영웅소설은 군담 서사에서 온전히 여성 영웅의 능력만으

77) 「백학선전」, 앞의 책. 222쪽.

로 위기를 극복하는 서사가 다수 나타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이 나타났다면 그 조력은 그 작품만의 변별적 서사로 작용하게 된다. <정비전>은 용충이 등장하여 여성을 위기에서 구하는 서사로 형상화하여 동물 조력이라는 변별적 서사를 형성하였다. <이봉빈전>은 용왕이 등장하여 구출함은 물론 용충까지 더불어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능력을 배가시키는 서사로 나타나 변별성을 확보하며 개성 강한 서사로 그려내고 있다.

이처럼 여성영웅소설 속 군담 서사는 여성과 조력 관계가 밀착되어 나타나지는 않지만 조력이 형성될 경우 개성 강한 서사로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3) 정신적 안정감 형성

늑혼으로 인해 부모의 공간에서 추방된 여성은 양육자를 만나기 전까지 대부분 유리결식하게 된다. 이때 여성은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며 자살하려는 경우가 발생⁷⁸⁾하는데 이때 나타나는 조력자가 아황·여영, 용왕이다.

78) 주재우는 <유충렬전>과 <이대봉전>을 통해 영웅소설에서 주인공이 자살하려다가 철회하는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면서 자살 철회는 남성에게는 가문을 잇는 일과 조상 향화하는 일의 중요성을 통해, 여성은 제사를 지내는 일과 원수를 갚는 일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때 당대 여성들에게도 자손을 낳아 가문을 이어가는 것과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일은 조선 사회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었으며 이를 책임감으로 일깨움으로써 한 개인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게 해 주는 이야기 내용이 이 시대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하였다. (주재우, 「한국 고전 소설에 나타난 삶의 의미 탐구」, 『우리말글』 80, 우리말글학회, 2019. 225~227쪽.)

최기숙은 외형적으로 ‘자살’은 주체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죽음의 형태’로 간주되지만, 자살하는 주체들은 원하는 삶의 내용을 허용받지 못하는 극한 상황에서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자기 삶이 훼손당하는 사태에 저항하려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는 행위자가 사회와의 타협 불가능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의 반사회성을 노출시키는 듯하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에 대한 제도와 이데올로기의 폭력적 행사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에서의 자살은 행위자의 동기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매개되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나 정서적 성향에 기인한 절망이나 고독, 신경쇠약의 자살과는 구분된다고 보았다. (최기숙, 「불멸의 존재

운영은 산과 물길을 따라가며 옷은 가시나무에 찢어지고 발은 험한 길에 짓물러졌다. 운영은 풀숲을 헤치며 걷고 한테서 자면서 동정의 남쪽, 적벽 아래에 도착한 후 남명에서 자살하려 하였다. … 용왕이 물었다. “남자의 나이가 십오 세도 안 되는데 무슨 원한이 있어 자살하려 하십니까?” … “남자에게 남자의 전생과 미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옥경 직녀 선관의 시비인 운향이었습니다. 청련 거사가 강연할 때 남자도 거사의 직위에 있었는데 옥잔으로 술을 받아먹는 죄를 지어서 한나라 사신 장건이 은하에 들어와 지적서를 얻고 떠날 때 남자 또한 목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속세로 적강하여 옥십 년의 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빈궁하나 나중에 반드시 큰 복을 받을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 남자는 하간에 이승상 집으로 들어갈 겁니다. 수많은 성씨 중에 이씨 집안에 들어가는 것은 전에 남자가 술을 받아먹는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 하늘이 정한 운수에 따르면 남자에게 아들 둘이 있을 것입니다. 장자 이름은 옥석으로 옥잔의 뜻이요. 둘째 이름은 금석으로 지적서의 뜻입니다. 제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두십시오.”

<운향전>79)

<운향전>에서 용왕은 운향이 부모와 이별한 후 홀로 유리걸식하다 생을 비관하여 자살을 결심했을 때 등장한다. 용왕은 운향에게 전생과 미래의 일, 즉 운향의 전생 신분과 앞으로 겪게 될 고난과 이승상과의 인연 등을 언급하며 운향이 살아가야 할 이유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처럼 용왕은 운향이 살아갈 동력을 잃었을 때 등장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줌으로써 정신적 안정감을 형성시켜 준다. 그리하여 운향이 영웅으로서의 삶을 향해 다시

론, '한'의 생명력과 '귀신'의 음성학 -18·19세기 야담집 소재 '귀신'과 '자살' 일화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16, 열상고전연구회, 2002. 316~317쪽.)

79) 依山依水以行裳盡裂於荊棘足已蔽於崎嶇單行露宿難并到洞庭之南赤壁之下於南溟中慾以自盡 … 龍王問曰娘子年未及笄有何怨恨意欲自盡耶 … 吾爲娘子陳先天後天之事矣娘子本以玉京織女仙官侍婢雲香青蓮居士入講時君亦以任職於居士有玉盃受酌之罪漢使張騫上於銀河於支機石時君亦在番所有目送之罪以此謫降人間六十年之苦矣今雖有窮困後必有吉補勿爲悲 … 且娘子於歸河間李相家而萬姓之中特歸於李斯昔日君有受酌之緣兮 … 娘子天定數有二子長子名玉石托玉盃之意也次子名錦石托支機石之故也銘記此言不忘可也 (「운향전」, 앞의 책. 249~250쪽.)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게 된다.

혈혈일신이 수년을 옥중에서 곤호야 형용이 척골호얏스니 살기를 그 필치 못할지라 내 불행이 죽을지라도 부채를 관속에 너어 부모곶혜 무더쥬고 ... 실성통곡호다가 인호야 괴절호니 ... 선녀를 짜라 혼곳에 이르니 ... 랑랑이 무려 같오디 조낭자야 우리를 아라볼손나 ... 우리는 과연 요의 쏘이오 순의 처이니 스기에 일은 바 아황 여영이오 상군 부인니라 호거늘 ... 그디는 고향을 한치 말고 일년만 기다리면 자연 랑군을 츠즈 만느리라 ... 만일 금년에 이르러 룡히 서로 만느지 못하면 장차 님술 츠 칠월 십오일 야에 반다시 서로 맛눌거시니 그디도 그디로 기다리라 이제 너 그디의게 용력을 주나니 후일에 필경 쓸곳이 잇스리라 호고 말슴을 맞치미 옥호에 혼 잔 술을 쥬며 마시라 호거늘 쇼제 밧아 마시미 정신이 상쾌호야 빅병이 물너가고 힘이 룡히 구정을 들고 놀니미 복희를 썰듯 호더라 ... 놀나 씨다르니 남가일몽이라

<백학선전>⁸⁰⁾

<백학선전>에서 조은하는 백로가 결연 증표로 준 백학선 때문에 자사에게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자사는 조은하가 보물에 욕심을 내 훔친 것으로 생각하고 칼을 씌워 감옥에 가둬둔 것이다. 이때 꿈을 통해 아황과 여영이 등장하여 조은하의 전생과 일 년만 기다리면 낭군을 만난다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또한 금년에 만나지 못하면 임술년 가을 칠월 십이일 밤에 만날 것이라며 가서 기다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술을 한 잔 주며 용력을 전수하여 조소저가 몸의 기운을 되찾도록 만들어 준다. <백학선전>은 <운향전>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졌을 때 등장하여 여성의 미래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여성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독려하게 된다.

이처럼 아황·여영, 용왕은 여성이 늑혼 등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사회에

80) 「백학선전」, 앞의 책. 201~204쪽.

진출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위기에 노출되었을 때 등장하는 조력자 중 하나이다. 다만 다른 조력자와의 차이는 여성이 자신의 삶을 비판하여 자살하려 하거나 좌절했을 때 등장하여 여성을 독려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성에게 앞으로의 미래를 직접적으로 제시해 주고 이를 통해 여성이 정신적인 안정감을 되찾아 살아갈 희망을 주게 된다.

비록 실질적으로 양육하거나 지속적인 보호를 하지는 않지만 여성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함으로써 여성의 정신력을 강화시켜 앞으로 발생하는 고난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신적 조력자라고 볼 수 있다.

(4) 역량 계발 지원

여성영웅소설에서 여성은 영웅성을 타고 났지만 그 능력을 자력으로 발현할 수 없을 때 반드시 후천적 역량 계발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은 도사를 만나기 전까지 부모의 공간에서 성별적 제약을 받는 존재로서 능력 계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성이 늑혼 등의 사유로 강제적으로 부모의 공간을 벗어나는 순간 도사를 만나 능력 계발이 가능해진다. 이때 도사는 영웅성을 계발할 정도로 세상 지식에 통달한 인물이며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설정⁸¹⁾되어 있으며 주인공의 행위와 결단까지 통제할 만큼 영향력이 큰 조력자라고 볼 수 있다.⁸²⁾

81) 조재현은 영웅의 스승은 주인공에게 잠재된 초월적 능력을 이끌어줄 수 있을 만큼 세상의 지식에 통달한 인물이어야 하며 현실계에 존재하지 않는 힘을 지닌 신물에 대해 알려주거나 직접 내려줄 수 있을 만큼 실질적인 힘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전정을 제시할 수 있는 까닭은 주인공의 전생과 현재, 미래를 통틀어 조망할 수 있기 때문이며 영웅소설에서 나타나는 스승은 현실계 뿐 아니라 선계와 천상계, 수궁계와 지하계에 이르기까지 환상계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인물이라고 보았다. (조재현, 「조선 후기 영웅소설에 나타나는 남성 노인의 형상과 역할」, 『돈암어문학』 36, 돈암어문학회, 2019. 49쪽.)

82) 서대석은 대부분의 군담소설의 주인공은 도승에게 신비한 도술과 무예를 배운다고 하였다.

너관을 짜라 드러가 계하에 니르러 눈을 들어 당상을 솟혀 보니 일위 녀즈 |
 머리에 팔괘관을 쓰고 몸에 즈하의를 입고 손에 벽옥여의를 쥐고 보탑 상에 안
 져스니 두렷흔 용광과 요조흔 티도 | 서왕모 | 요지에 느림이 아니면 마고션녀
 | 텃티에 오름이라 ... 명호야 오르라 호거날 즉시 당상에 올라 다시 지비호고
 ... 내 군으로 더부러 수년 연분이 잇스니 군은 이곳에 머므러 학업을 힘쓸지어
 다 양인이 지비 수명호니라 츠후로브터 션즈 | 쇼저와 춘미를 낮이면 신기흔 병
 셔와 절등흔 무예를 7르치니

<음양옥지환>83)

<음양옥지환>에서 벽하선자는 수영이 늑혼을 피해 시녀 춘매와 탈출한 후 유리걸식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며 수영을 보호함은 물론 능력까지 계발해 줌으로써 수영이 영웅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

양인이 슈혜를 버셔 강변에 늦코 라상의 끈을 혼디 띠이고 손을 서로 붓들어
 강심을 향호야 썩여들고자 호더니 ... 일위도스 | 갈건야복에 슈미호빅호고 손에
 청려장을 잡고 낭연히 우어 왈 비경션자와 쌍성션아야 무슌일로 진세부귀를 마
 다호고 무단히 창파에 몸을 더지고져 호느나 ... 명수의 당함이니 낭 등은 나를
 초차 산중에 드러가 도흔 때를 기다림이 엇지 아릅답지 아니호리오 ... 순식 간
 에 혼 곳에 니르러 ... 이 산 일흠은 남악형산이오 이곳은 연하동턴이오 나는 자
 양진인이라 ... 힘써 공부호야 때를 기다리라 호고 이에 일권 칙즈를 너여 주며
 왈 이는 션턴비결이니 풍운변화지묘와 향룡복호지법이며 팔문둔갑지술이 모다
 이에 잇느니라.

<화옥쌍기>84)

도승의 존재가 있고 없는 것은 전쟁의 성격이나 주인공의 활약상과 함수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도사나 도승이 군담소설의 배경 사상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하였다. 도사는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최고의 인격자이며 지식인으로 형상화되어 있고 주인공에게 술법과 무예를 전하여 줄 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행위와 결단까지 통제한다고 하였다. (서대석, 앞의 논문, 68, 179쪽.)

83) 「음양옥지환」, 앞의 책. 488~493쪽.

84) 「화옥쌍기」, 앞의 책. 543~544쪽.

<화옥쌍기>에서 자양진인은 경화와 시녀가 자살하려고 할 때 등장하여 이들을 구출하게 된다. 이후 자양진인은 이들을 남악형산으로 데려가 보호 양육하며 영웅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조력하게 된다.⁸⁵⁾

이처럼 도사는 여성의 잠재된 역량이나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전환시켜 주는 변신의 주체가 된다.⁸⁶⁾ 이들은 여성의 성별에 구애받지 않으며 여성의 재능만을 높이 사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게 된다. 여성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역량 계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획득하여 수동적인 여성에서 주체적인 영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 이처럼 도사는 생래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여성을 조력하여 후천적으로 역량을 계발해 주는 동시에 영웅소설이라는 장르를 완성시켜 주는 주요 조력자에 해당한다.

한편 여성의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해 신물⁸⁷⁾이 제공되기도 한다. 신물은 여성의 능력을 배가시켜 영웅으로서의 능력 완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제공받는 신물은 대체로 보검과 갑주, 용마인데 이는 주인공이 전쟁에서 영웅적 활약을 하는데 필수적인 기물에 해당하며 모두 신이한 유래가 있는 주보이다.⁸⁸⁾ 이러한 신물을 제공받는 경로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역량

85) <김태자전>에서는 도서 세 권을 주며 익히라고 하자 반년 만에 신기묘결을 무불능통하게 되고, <백학선전>은 약을 주며 병법과 검술을 익히도록 하며, <화옥쌍기>는 일권 책자를 주고 공부하도록 하고, <황운전>에서는 신기한 묘술과 천문지리, 육도삼약, 손오병서를 주야로 잠심하여 재주를 배승하도록 하고 있다.

86) 안기수는 구원자의 등장은 주인공의 잠재된 능력이나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전환해 주는 변신의 주체이며 신화와는 달리 생래적 능력을 상실한 주인공의 후천적 능력의 배양을 위한 수동적인 주체로서 작품 내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해 준다고 하였다. 즉 주인공의 사상과 행동의 양식까지 변신시켜 버리는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천상의 질서를 지상에 실현시켜 주는 천의에 인물상이라고 하였다. (안기수, 앞의 책. 332쪽.)

87) 신물 후견은 <동명왕신화>에서 고각이 변한 형태로 추정된다. 주몽이 고각을 확보함으로써 왕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은 존재임을 확인시킴과 동시에 잠재된 능력을 발현, 확장시키는 장치였기 때문이다. 남성영웅소설에서는 신물 후견이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에 의해 전달된다. 초월적 후견형 조력자의 역할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인공의 영웅성을 완비하도록 도와주어 주로 주인공의 잠재된 능력을 표출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물을 전달함으로써 주인공의 영웅성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이다. 그런데 세속적 후견형 조력자의 경우 이 두 가지 기능 중에서 첫번째 역할만 수행하게 된다. 간혹 신물이 개입된다 해도 신이한 능력은 배제된 채 영웅의 존재성만 드러낼 뿐이다. (박은미, 「영웅소설에 나타난 조력자의 유형과 역할 - <홍길동전>, <유충렬전>, <용문전>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2013. 26~32쪽.)

을 계발해준 도사에게 신물까지 제공받는 경우이다.

또 동즈를 명호야 도건도의를 가져오라 호야 경낭 등을 주어 각각 님게 호고 일흠을 줌서 경낭으로 방화 |라 호고 옥련으로 성량이라 부르고 날마다 비결을 7르치며 또 쌍검과 쌍창을 너여 논호와 주며 왈 이 칼 일흠은 쌍봉검이오 이 창 일흠은 리화창이니 다 선가의 지극한 보비라 호고 인호야 그 쓰는 법을 가리치니 ... 또 동즈를 명호야 후원 가 량필마를 쏘어 오라 호야 니르니 호는 추풍도화마 |요 호는 류전자연마 |니 다 능히 일헝천리호는 룡총이러라.

<화옥쌍기>⁸⁹⁾

<화옥쌍기>에서 도사는 앞서 여성의 역량을 계발시킨 다음 이어 쌍봉검과 이화창을 각각 여성들(경화, 시녀 옥련)에게 제공하며 사용법을 숙지시킨다. 이후 도사가 천기를 살피 자미원의 대성이 광채가 희미하고 남방에 큰 별이 살기 등등한 것을 보고 여성들이 세상에 나갈 때가 되었음을 알게 된다. 이후 도사는 용총인 추풍도화마와 유전자연마 등 신물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게 된다.⁹⁰⁾

두 번째, 여성이 수학 과정 없이 신물만 제공받는 경우이다. 이 경우 신물을 제공하는 조력자는 도사에 국한되지 않으며 받는 시기 또한 수학 과정에 국한되지 않는다.

문득 한 유성이 맞그로서 드리와 바로 중헌에 올라 레호고 안즈며 왈 서로 보완지 하마 이십년이라 이제 고성을 지니고 복록을 밧도다 호거놀 눈을 드리 그

88) 서대석은 군담 소설의 주인공은 도사에게 병법과 도술을 배우고 전쟁으로 나갈 때 흔히 명마와 갑주 및 보검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이것들은 모두 전쟁을 하는 데 필요한 기계라고 보아 병기라고 통칭한다면 병기 습득 과정이 대체로 유형화되며 여러 작품에 공존한다고 하였다. 보검과 갑주 및 용마는 군담소설의 주인공이 전쟁에 임하여 영웅적 활약을 하는데 필수적인 기물이고 모두 신이한 유래가 있는 주보라고 하였다. (서대석, 앞의 책. 268~269쪽.)

89) 「화옥쌍기」, 앞의 책. 541~545, 579쪽.

90) <음양옥지환>에서는 벽하선자가 먼저 공부에 힘쓰도록 한 후 이제 입신양명하라며 수영에게 자전검과 옥여의를 제공한다.

거동을 보니 갈건표의로 얼굴이 비상하고 동지 괴이하여 도곰도 진퇴업거늘 ... 호련 스티로 보검과 서책을 니여 주며 ... 이 두 가지을 힘써 하면 미구의 님군의 은혜를 갚고 조선의 즐거움을 끼쳐 충효쌍전하리니 숨가 누설치 말나 말을 맞초며 섬돌에 느려 문득 간디 업거늘 학스 그계야 텃신의 도섭인줄 알고 신괴이녀겨 그 칼과 칩을 보니 칼은 장이 습척이요 빗치 황홀하여 일월 정기와 두우성의 광치 쏘이며 그 속에 은은이 티항천의 검이라 삭엿스니 범인의 슈중지물이 아니오 신선의 묘화로다 하고 또 칩을 보니 선비의 학업이 아니라 의스 웅장하고 뜻이 광활하여 텃디 묘화가 무궁하니

<김희경전>91)

<김희경전>은 유생이 신물을 제공하고 있다. 설빙은 이미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가 있었는데 하루는 한 유생이 집으로 들어와 보검과 서책을 건네주었다. 유생은 자신이 누군지는 천기가 지극히 비밀스러운 고로 말하지 못한다며 두 가지를 힘써 하면 미구에 임금의 은혜를 갚고 조선에 즐거움을 끼쳐 충효가 쌍전할 것이라고 말한 후 사라진다. 이후 설빙은 전쟁이 곧 시작될 것임을 직감하게 된다.

일일은 초운이 나아간 후 홀연 향기 초옥을 두루며 오식 괴운이 쏘이는 곳에 일위 선녀 하강하여 쇼저의 엽혜 안지며 왈 나는 서왕모의 시녀러니 왕모의 측지를 밧자와 쇼저의게 전하러 왔나이다 하고 일기 보검과 병셔를 주며 왈 이 칼 일흠은 팔광검이니 선간에 제일 가는 보비라 일후 혹 쓰실 날이 잇실거시오니 만스 보중호소서 하고 일어 지비하고 섬에 너리더니 간 곳을 아지 못홀너라

<장국진전>92)

<장국진전>은 서왕모의 시녀가 여성이 늑혼으로 사회에 진출한 직후 신물

91) 「김희경전」, 앞의 책. 256쪽.

92) 「장국진전」, 앞의 책. 397~398쪽.

을 제공하게 된다. 하루는 유모 초운이 자리를 비운 사이 선녀가 하강하여 계향에게 자신을 서왕모의 시녀로 소개하며 보검과 병서를 주며 일 후 쓸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며 잘 보관하라고 당부한 후 사라지게 된다.⁹³⁾

한 노인이 산상으로 내려와 가로디 원슈가 김소제 아니잇가 디왈 그러하여이다 그 노인이 왈 금강산 천축사 선관이 그디의거 이거설 전하라 하기로 왓노라 하고 즉시 황금갑주와 용인보신갑과 북두칠성검을 들고 주워 가로디 방금 천자의 위티흐미 니일 오시여 호타하의 잇씨니 바빠가옵쇼서 하고 간 디 업거날...한 노인이 산 뒤으로서 말을 타고 급피 내려와 가로디 이 안이 구원 장원슈 아니잇가 우리 사부게옵서 그디을 위하여 이 말을 보닌난이다 호고 말을 주고 간디 업거날

<홍연전>⁹⁴⁾

<홍연전>은 여러 노인들이 김소저가 출정하는 길에 나타나 신물을 제공하게 된다. 김소저는 홍연이 위태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천자에게 상소를 올려 자신이 여자임을 밝히며 출전 의지를 전하게 된다. 이에 상이 허락하자 급히 길을 떠나는데 압록강을 건너 한 고을에 이르렀을 때 한 노인이 나타나 금강산 천축사 선관이 보냈다며 황금갑주와 용인보신갑, 북두칠성검을 전달해 주었다. 또한 천자의 위태함과 위치까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이후 다시 한 노인을 만나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사부가 보냈다며 비룡마를 주게 된다. 이로써 김소저는 세 가지 신물을 얻고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이처럼 수학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물만 제공받을 때는 제공하는 자와 제공받는 시기가 수학 단계에 국한되지 않고 작품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나타난다.

93) 그밖에도 <정비전>에서는 신물인 말과 갑옷, 보검이 정소저 앞에 스스로 나타나는 방식으로 그렸고 <홍연전>에서는 김소저가 전쟁에 출전한 남편이 위기에 처하자 남편을 구하기 위해 집을 떠나는 과정에서 노인들이 등장하여 갑옷과 보검, 말을 내어주고 사라지는 방식으로 그리고 있다.

94) 「홍연전」, 앞의 책. 72~75쪽.

이렇게 다양한 시점과 방식으로 신물을 전달하는 서사는 여성영웅소설을 영웅 서사로 묶으면서 동시에 일률적으로 도식화하지 않고 개성 강한 서사로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즉 영웅소설에서 영웅성을 배가시키는 신물을 제공함으로써 영웅 서사를 형성하는 한편 작품마다 다양한 시점에 신물을 제공함으로써 서사의 다양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조력이라고 볼 수 있다.

		역량 강화			
		능력 계발		신물 제공	
		유무	조력 형상	유무	조력 형상
선혼담 서사	<황운전>	○	대명산 노인	○	대명산 노인
	<백학선전>	○	노인	○	노인
	<운향전>	×	-	○	용왕
	<김희경전>	×	-	○	유생
	<정비전>	×	-	○	노승
	<이봉빈전>	×	-	○	용왕
	<홍연전>	×	-	○	금강산 천축사 선관
	<장국진전>	×	-	○	선녀
	<음양옥지환>	○	벽하선자	○	벽하선자
	<화옥쌍기>	○	자양 진인 도사	○	자양 진인 도사
	<위봉월전>	○	청화도사	×	-
	<김태자전>	○	보타산 도인	×	-
후혼담 서사	<홍계월전>	○	곽도사	×	-
	<옥주호연>	○	진원도사	×	-
	<석태룡전>	×	-	○	증승상 부인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조력 유형>95)

95) <정수정전>, <이대봉전>, <오선기봉>, <방한림전>, <이형경전>에서는 수학과정이 생략

2) 현실계의 조력

현실계는 주로 여성의 위기 감지, 보호와 양육 지원, 정서적 연대, 동지적 연대 형성 등의 조력에 관여하고 있다.

(1) 위기 감지

여성은 선천적으로 영웅성을 발현할 수 없을 경우 여러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여성이 부모의 공간에 머물 경우 늑혼이 발생하며 납치, 겁탈의 위기에 놓이기도 하고 계모의 학대가 발생하며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또한 여성이 부모의 공간을 벗어났다고 해도 연고가 없는 곳에서 유리결석하며 또 다른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이럴 때 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혈연 조력자이다.

비몽간의 모치니 완연니 것티 안즈며 일흠을 불너 왈 너의는 나을 그리위 엇지 스는야 흐며 눈물 흘니며 일으되 니일은 티룽 성일리라 여씨가 주는 음식을 일절 먹지 말고 유모 주는 음식만 먹으라 만일 여씨 주는 음식을 먹으면 너의 존명을 보전치 못홀거신니 니말을 명심하라 흐고 문득 간더업거늘

<석태룡전>⁹⁶⁾

<석태룡전>에서 모친은 계모가 태룡 생일에 여룡 남매를 독살할 계획임을 감지하고 여룡의 꿈에 나타나 위기를 고지해 준다. 이때 모친은 계모인 여씨가 주는 음식은 먹지 말고 유모가 주는 음식만 먹으라고 하는 등 구체

되면서 능력 계발과 신물 제공이 나타나지 않는다.

96) 「석태룡전」, 앞의 책. 488쪽.

적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이후로부터 국량을 박대 터심하니 으즈 슈악의 나히 팔세라 그 모친을 붓
들고 간 왈 리량은 우리 집의 빅년 손이 될 것이오 가스에 간검하기를 지성
으로 함압거늘 터티는 어이 천디하샤 부친 유교를 생각지 아니시느릿고 류씨
더로 왈 리가 축싱은 본디 빌어 먹는 아히여날 너의 부친이 망녕도히 다려다
가 집에 두었스니 그 무엇에 쓰리오 너는 그놈과 동교심하야 어미를 그르다
하니 엇지 인즈의 도리리오 하고 무슈히 짜리니 슈악이 감히 다시 말을 지구
치 못하고 물너나가니라 ... 나의 종질이 잇스니 인물이 비범하고 지조 | 과
인하야 린리 향당이 추앙치 아니 리 업고 일작이 상처하고 지취치 못하얏스
니 내 널로 하여곰 성친고져 호노니 ... 소녀를 위하심이오나 올치 아니신 말
습을 엇지 봉승하리잇고 ... 금야에 겁척홀 도리 잇스리니 네 그를 장찰 엇지
홀소냐 ... 이윽고 슈악이 드러와 가만히 말하여 왈 금야에 류턱이 여츠여츠하
리니 소져는 빗비 피신흔 방략을 헿호소서

<음양옥지환>97)

<음양옥지환>에서 수악은 수영의 이복동생이다. 수악은 모친이 수영의 약
혼자인 국량을 박대하자 이에 대해 모친에게 항의를 하게 된다. 그러나 모친
은 그런 수악을 오히려 꾸중하며 때리게 된다. 이후 계모는 자신의 종질과 수
영을 혼인시키기 위해 겁탈 계획을 짜게 되고 위기를 감지한 수악은 수영을
찾아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영이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혈연 조력자는 부모의 공간에서 벗어나 유리결식하던 여성이 갈 곳을
몰라 헤맬 때도 나타나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해 준다.

비몽간에 모친니 와 이로디 여룡아 너는 터룡을 생각지 말고 슈리를 가면 즈
연 구혈 스롭니 잇슬 거신니 우지 말고 가라 십년 후면 터룡과 너의 부친을 만

97) 「음양옥지환」, 앞의 책. 615~621쪽.

느리라 하고 문득 간디 읊거늘 놀느 씨달은니 남가일몽니라

<석태룡전>98)

<석태룡전>에서 모친은 여룡이 계모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동생 태룡과 도망치다 이별한 후 해매 때 등장한다. 모친은 여룡의 꿈에 나타나 10년 후면 태룡과 부친을 만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킨 후 얼마 정도 길을 가면 자연 구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해 주고 있다.

한편 혈연 조력자는 전쟁에서 천자의 위기를 감지하고 이를 여성에게 알려 주기도 한다.

이윽고 삼경이 지나미 즈연 몸이 곤혹여 잠간 조으더니 홀연 비몽스몽 간에 부친이 곁히 와 안즈며 기리 혼숨 지으며 원슈의 손을 잡고 머리을 어로 만지며 기연이 탄식 왈 지금 국세 시급호야 스직은 커니와 텃위 위급호시니 너는 밧비 계명산으로 갈지어다 호거늘 원슈 일희일비 혼중 더경호여 연고을 못고져 호다가 놀나 씨니 남가일몽이라

<김희경전>99)

<김희경전>에서 부친은 이미 죽은 이후이나 혼령 상태로 설빙의 꿈에 나타나 천자의 위기를 고지하게 된다. 설빙은 전쟁에 참여하여 적진을 공격하던 중 적왕인 남경왕이 없는 것을 보고 필시 간계가 있을 것으로 짐작하나 그 뜻을 알지 못해 의혹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설빙의 꿈에 죽은 부친의 혼령이 나타나 천자가 위급하심을 알려주면서 바빠 계명산으로 가라고 지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회 제공의 조력은 천상계 이미지의 선관이나 노인, 도사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 작품은 죽은 부친이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혈연 조력자는 주로 여성의 위기를 감지하여 그 위기를 극복할 수

98) 「석태룡전」, 앞의 책. 500쪽.

99) 「김희경전」, 앞의 책. 268쪽.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이때 혈연 조력자는 이복동생으로 등장하기도 하지만 주로 죽은 부모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너의눈나을 그리워 엇지 스는야 흐며 눈물 흘’리거나(<석태룡전>) ‘흔숨 지으며 원슈의 손을 잡고 머리을 어로 만지’(<김희경전>)는 장면이 연출된다. 일찍 자식을 떠나야 했던 부모가 자식의 위기를 감지하고 죽은 혼령으로라도 지켜주고 싶었던 애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보호와 양육 지원

부모의 공간에서 강제로 사회에 진출한 여성은 처음 사회로 진출했을 때는 자기 보호 능력이 없다. 따라서 여성은 유리결식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여러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때 등장하여 여성을 보호 양육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지인이다.

잇씨 쇼주쌍의 스는 증승상니라 흐는 지상니 잇스되 승승은 일즉 기세흐시고
부인 뉴씨 남녀 간 즈식니 읍셔 다만 비복 등을 거날녀 세월 보너던니 ... 비몽
간의 시비를 다리고 더원 폭포의 나아간니 비각문 압폐 청룡니 잇거늘 즈셔니
본니 용의 양미간의 디스마 더장군 여룡니라 두렷시 썬거늘 ... 교즈를 타고 더
원 폭포의 나아가 본니 과연 비각문압폐 한 녀아 누어거늘

<석태룡전>100)

<석태룡전>에서 증승상 부인은 어느 날 꿈에서 대원 폭포 문 앞에 있는 청룡을 목격하게 된다. 이를 이상히 여긴 증승상 부인은 그곳을 방문하게 되고 문 앞에 쓰러져 있는 여룡을 발견하게 된다. 여룡과의 대화에서 증승

100) 「석태룡전」, 앞의 책. 501~502쪽.

상 부인은 남편이 생전에 여러 번 얘기했던 석승상의 딸임을 알게 되면서 여생을 보호 양육하게 된다.

여러 도적이 장차 쇼저 량인을 결박하고 횡리를 탈취코져 하다가 멀리본즉 귀간이 표양하며 인마가 몰녀 오는 가운데 일위 관원이 엄연이 수레 우에 안저 산간 대로로 쫓츠 나오거늘 여러 도적이 황망하야 다 헤여져 도망흐는지라 ... 그 관원이 수레를 멈추고 물어 갈아대 산이 유백하고 길이 험조흔중 또 도적이 만커 날 수지는 하방 사름이완대 이에 잇서 곤경을 단흐는다 ... 쇼즈의 성명은 빅운경이온디 집은 강쥬로소이다 그 관원이 또 물어 갈으디 슈지가 임의 강쥬 스릅이라 하니 또한 빅쇼부를 아는다 ... 이에 눈물을 흘니며 디답하야 굴아대 쇼부는 곳 쇼즈의 엄친이로소이드 ... 로부는 곳 병부상셔 설현이노라 일즉 존대인으로 더부러 죽마고우가 되야 한원에 출입흐더니 ... 더부러 서로 작별흔지 임의 십수년이라 ... 로부를 짜라 갖히 향쥬 관부로 가서 아직 두류하다가 사름을 강쥬로 보니 여씨 존부인이 안부를 탐문흐고 격환이 침식되기를 기다려 다시 괴정흐기를 도모함이 무방하다 흐노라

<김태자전>101)

<김태자전>에서 관원인 설현은 운영 부친의 죽마고우이다. 우연히 산에서 도적을 만나 곤경에 처한 운영을 구출하게 되고 대화 끝에 운영이 자신의 죽마고우 딸임을 알고 보호 양육하게 된다.

한 노인이 청여장을 입고 갈건도복으로 풍경을 구경하거늘 ... 경성 니부상셔 장주영이라 하는 지상이 거년춘에 이곳에 격거하신다 하오미 ... 종적을 알길이 업스오니 ... 그 노인이 오리 생각하다가 ... 시너를 건너 동편으로 슈리를 드러가면 ... 즈연 알거시니 ... 스투하고 길을 츠즈 가나 노인에 슣허하물 아지 못홀너라 ... 상셰 기세하신줄 알고 방성통곡하며 썩에 업디여 괴절하

101) 「김태자전」, 앞의 책, 64~66쪽.

니 ... 그 노인이 소저를 가르쳐 보려고 생각하디 ... 상서이 필적을 보면 반다시 평안치 못하리니 니 친히 가 그 소년을 위로하리라 ... 삼인이서 손을 잡고 짜에 업드러졌거늘 갓가이 노아가 살펴보니 호흡이 임의 끈쳐졌는지르 노인이 더경하여 망망이 여염에 내려가 약슈를 구하여 그 소년을 먹이고 또 이인을 먹인 후에 그 소년의 손을 주무르니 이윽하여 혼 스람이 언저 인스를 츠려 ...

<김희경전>102)

<김희경전>에서 노인은 설빙 부친의 죽마고우로 부친의 유배지를 찾아온 설빙에게 우연히 길을 안내해주게 된다. 이후 걱정된 노인은 설빙을 따라가게 되고 부친 죽음에 충격을 받고 쓰러진 설빙을 구출하게 된다. 이후 자신이 운영 부친의 죽마고우임을 밝히고 운영 부친의 시신을 운구하도록 돕게 된다.

이후 등장하는 이영찬도 설빙 부친의 죽마고우이다. 설빙은 노인과 헤어진 후 부친의 죽음을 슬퍼하다 심적으로 불안정해지며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한다. 이때 물에 떠내려오는 설빙 일행을 발견하고 구출한 자가 바로 이영찬이다. 이영찬은 숨이 끊어진 설빙 일행을 천계의 도움을 받아 구출한 후 자신이 설빙 부친의 죽마고우임을 밝히고 기거할 곳 없는 설빙을 구출하여 보호 양육하게 된다.¹⁰³⁾

이처럼 지인은 주로 보호 및 양육을 담당하게 된다. 이들은 보통 꿈을 통해 위기에 처한 여성을 찾게 되거나 우연히 길을 가다 마주치는 방식을 통해 만나게 된다. 지인은 주로 부모와의 인연이 있는 사람들로, 부모와의 깊

102) 「김희경전」, 앞의 책. 205~208쪽.

103) 참정이 취흥을 인호야 선창을 두다리며 어부스일곡으로 시일을 보너더니 호련 슈상에 푸른거시 찌오며 슈운이 스면에 돌너쨌늘 ... 사람의 시신이라 참정이 더경호야 종즈를 급히 불너 건지라 호야 ... 손목 밧인 거시 잇고 향너 즈옥흔지라 고히 여겨 살펴보니 푸른깃 ㄹ 혼거스로 병목을 밧고 불근글즈로써스되 환흔쥬라 호엿거늘 급히 글너 봉흔거슬 열고 약슈를 입에 흘너 너흔후 슈죽을 쥬모르더니 이윽고 숨을 너여 수이며 몸을 뒤쳐눕거늘 ... 참정이 더경왈 년죽 승상익주후 장원의 직손인가 호니 소제 놀는 왈 과연 그로쇼이다 더인이 엿지 아르시느잇가 참정이 츠탄 왈 가쨌다 니 장후로 더부러 죽마지정이 차별호더니 (「김희경전」, 앞의 책. 214~216쪽.)

은 인연을 통해 여성의 처지에 공감하며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여성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에 정성을 들이며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하게 된다.

한편 여성은 부모의 공간을 벗어나 사회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특히 갑작스러운 부모의 부재는 여성에게 정신적 충격을 안기게 되고 이로 인해 여성은 자살을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때 주변인들이 여성을 구출하고 위로하게 되는데 지인의 역할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지인은 여성이 심적으로 불안정할 때 등장하여 여성의 처지에 공감하고 위로해 줌으로써 여성의 심리적 안정감 형성에 도움을 준다. 특히 지인은 여성 부모의 지인이라는 점 때문에 여성과의 거리감이 좁혀지며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이러한 조력은 초월계에서도 나타난다. 여성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을 때 등장하는데 이때 초월계는 여성의 미래를 고지하여 살아갈 희망을 제시했다면 현실계는 여성과 함께하며 부모를 대신하여 여성을 양육함으로써 여성이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역할이다.

(3) 정서적 연대 형성

여성영웅소설에서 여성이 부모의 공간에서 벗어나 사회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는 다양하다. 선혼담 서사는 늑혼이 주된 이유로 작용하게 되고 후혼담 서사는 다양한 사유로 나타나게 된다. 이때 여성은 영웅으로 성장하기 전이므로 여러 위기 상황에 노출된다. 따라서 주변과의 연대 관계가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과 정서적 연대 관계를 형성하는 조력자가 바로 유모이다.

문득 먼리 바라보니 무슈흔 스름이 숨어 혹 안지며 혹 서서 분묘를 바라보니
 거동이 심이 슈상호거늘 심중에 씨닷고 산호로 내려와 비복 등을 불너 왈 너의
 나를 위호야 스디라도 스양치 아니홀 지 잇느냐 시비 모다 일제히 응성호고 나서
 며 죽기를 즈원호거날 쇼계 청춘을 잔잉히 너겨 유네 미결호는 차의 유모 계섬이
 고 왈 첩이 천한 나히 칠십에 지는 죽을 날이 불원호오니 원컨디 쇼저를 위호야
 혼 번 죽어 전일 이홀흔 덕을 갑고즈 호느이다 ... 슈십명 장정을 거나리고 니다
 라 교즈를 아스 급급히 모라 가거늘 ... 교즈를 여니 빅발 로피 김슈건으로 목을
 띠고 안젧는지라

<황운전>104)

<황운전>의 유모는 월층대가 늑혼으로 인해 납치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
 에서 구출하게 된다. 월층대는 자신이 위기에 처했음을 알고 시녀들에게 자신
 을 대신해 사지에 갈 사람이 있는지 묻자 모든 시녀가 자원하게 된다. 이에
 월층대는 시녀들이 청춘임을 불쌍히 여겨 결정을 망설이자 유모가 자원하여
 나선 것이다. 이때 유모의 나이 칠십의 고령으로 ‘칠십에 지는 죽을 날이 불원
 호’다며 나선 것이었다. 이후 유모는 교자 안에서 자결하며 옥을 당하지 않게
 된다.

상세 쇼인의 참쇼를 만나 옥중에서 즐호니 부인 엄씨 망극함을 이기지 못호야
 시비 초운을 불너 계향 쇼저를 부탁호며 왈 리씨의 혈육이 쇼저 혼 몸 썸이니 너
 는 모로미 진심호야 보호호며 리씨 후사를 잇고 상셔의 원슈를 갑게 호라 호고
 인호야 즈문 이스호니 쇼저와 초운이 텃디를 부르지져 통곡호기를 마지 아니 호
 다가 운이 쇼저를 위로호고 부인의 시체를 거두어 상셔와 혼 가지로 안장호고 쇼
 저를 일습남복을 입혀 다리고 당주 고향에 내려와 묘하에 초옥을 짓고 쇼저를 보
 호호야 세월을 보니더니

<장국진전>105)

104) 「황운전」, 앞의 책, 536~537쪽.

<장국진전>에서 유모 초운은 이상서가 소인의 참소를 당해 옥중에서 죽고 부인이 딸을 부탁한 후 자결하자 유모는 계향을 위로하고 부인의 장례를 주관하게 된다. 이후 초운은 계향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데려가 보호 양육하게 된다.

이처럼 여성영웅소설에서 유모는 여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아 희생하기도 하고 부모를 대신하여 여성의 양부모가 되어주는 등 정서적으로 여성과 연대감을 형성하며 여성을 조력하게 된다.¹⁰⁶⁾

(4) 동지적 연대 형성

여성영웅소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조력 유형이 바로 시녀이다. 시녀는 여성과 동고동락하며 가장 많은 감정을 교류하는 대상으로 여성과 연대감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어 여성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여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망설임 없이 자신을 희생하거나 여성과 함께 영웅적 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문득 외당에서 인마 소리 들니거늘 소저 대경호야 시녀 란향으로 보고 오라호니 란향이 즉시 나아가 보고 급히 드러와 고 왈 왕승상의 로복들이 교즈를 가지고 외당에서 두류호더이다 ... 나를 겁탈코자함이니 이를 장춘 엇지호리요 ... 소

105) 「장국진전」, 앞의 책. 397쪽.

106) 한편 구출형 조력자의 도움 없이 여성 스스로 기지를 발휘하여 늑혼을 극복하기도 한다. <오선기봉>의 현천홍은 황태홀과 약혼했지만 이별 후 소식이 묘연하자 현상서가 다른 곳에 취처를 정하고 늑혼을 강요하게 된다. 이때 현천홍은 스스로 남북 개착 후 시비 운선을 불러 상선(商船)을 준비시킨 후 탈출하게 된다. <정비전>의 정성모는 어머니가 죽자 스스로 남북 개착하고 집안의 대소사를 챙긴다. 이후 양귀비의 남동생 양경이 청혼하자 아버지 정유가 분노하여 거절하는데 이로 인해 아버지는 전쟁에 출전하게 되고 정성모 홀로 남게 된다. 이때 양경이 다시 늑혼을 강요하자 정성모는 스스로 독질을 얻어 기세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집안에 숨어 양경을 속이는 형태로 위기에서 벗어난다. 이처럼 여성이 지혜를 발휘하여 구출형 조력자의 도움없이 스스로 위기로부터 탈출하기도 한다.

저 들른체 아니호고 목을 밋여 즈결코즈 흐거늘 난향이 엇즈오디 소제썤옴셔 일
 신을 즈결호시면 구툰에 도라가신 부모님과 리시랑 벳 원슈를 뉘라셔 갑호리잇가
 원컨대 소비가 소저의 의복을 박구어 입고 소저 침방에 드러가셔 칙을 대호야 안
 젓쓰면 뉘라셔 시비 난향인줄 안니요 소저찌옴셔는 급히 녀복을 벗고 남복을 기
 착호고 장원을 넘어가 귀체를 보존호옵소서

<이대봉전>107)

<이대봉전>의 시녀 난향은 늑흔 거절 후 왕희가 장소저를 겁탈하러 한밤중
 에 노복들을 보내자 역할 바꾸기를 통해 장소저를 보호하고자 한다. 이때 장
 소저는 난향이 말하는 것도 듣지 않고 무턱대고 자결하러 하는데 이때 난향은
 차분하게 장소저를 설득한다. 그리고 장소저가 탈출하기를 망설이자 채삼 강
 권하며 남복 후 탈출시킨다. 난향은 이에 끝나지 않고 왕부로 끌려가 왕희를
 사람들 앞에서 질책하게 된다.

소비는 장미동장 한림택 소비어니와 승상전의 할 말씀이 잇스오니 들어보옵소
 셔 오날날 소비 몸이 외람이 소저의 일흠을 두고 승상택에 왓스오니 죄사무석이
 오나 승상의 일흠이 텃하 분간호시는 디군에서 만인지상이요 일인지하에 일품 승
 상 별술이며 명망이 죠정에 데일이요 부귀영화는 텃하의 웃듬이온디 즈식의 혼스
 를 덩홀진덴 밋과를 보니 여륙례를 흥하는 것이 슝의 흥실이어늘 무도한 흥실
 노씨 모야삼경에 로복을 보니여 스부가니정을 춤돌호고 규중 처즈를 겁탈코즈호
 니 광디한 텃디 간에 엇지 일시를 용납호며 너갓흔 흥약한 인물을 승상 지위에
 두고 만쵸 빅관이 다 휘하에 출입호니 국운이 엇지 한심치 아니호리요

<이대봉전>108)

난향은 왕희에게 납치되어 끌려간 후 자신의 신분을 먼저 밝힌 다음 좌중에

107) 「이대봉전」, 앞의 책. 406쪽.

108) 「이대봉전」, 위의 책. 408~409쪽.

모인 사람들 앞에서 왕희의 죄목을 날날이 고발한다. 높은 관직의 대신이 자식의 혼사를 정함에 있어 매과를 통하지 않고 한밤중에 노복을 보내 규중 처자를 겁탈하고자 한 죄를 물으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는 것이다. 이후 난향은 왕희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장소저의 집으로 돌아가 장소저를 기다린다. 이후 장소저가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옛집을 찾으며 두 사람은 재회하게 되고 난향은 장소저와 함께하며 동지적 연대감을 이어가게 된다.

한편 시녀가 여성 못지않은 영웅성을 보이며 전쟁에 참여하여 여성을 보조하는 경우도 있다.

일일은 벽화선존 | 쇼저와 미수방을 불너 왈 이제 낭 등의 익회 진하고 길운이 도라오니 밧비 인간에 나가 립신양명호야 부귀영화를 누리고 각기 텃텃 가연을 미지라 하고 이에 창검을 내여 노호며 왈 이 칼 일홈은 즈전검이니 간장 막아 의류 | 니 화낭이 가지고 이창은 설화창이니 미낭이 간슈호야 변덩에 대공을 일우지 금복경에서 설과 취스호니 낭등은 몬져 경스에 나아가 파갑을 취호라

<음양옥지환>109)

<음양옥지환>에서 시녀 춘매는 화수영이 늑혼을 피해 탈출할 때 함께 동행하게 된다. 이후 수영과 함께 벽화선자의 밑에서 수련하게 되는데 이때 벽화선자가 춘매의 이름을 매수방으로 바꿔주고 함께 가르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영웅인 화수영과 함께 신물도 부여받으며 보조 인물을 넘어서 주인공 못지않은 영웅으로 활약하게 된다. 이후 전란이 발생하자 천자는 원수로, 화수영은 부원수로, 매수방(시녀 춘매)은 총병 지휘관으로 임명되어 전쟁에서 함께 활약하게 된다.

이처럼 시녀는 여성의 분신처럼 여성과 항상 함께하는 존재이다. 때로는 자신을 희생하여 여성을 보호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여성을 보좌하며 영웅성을

109) 「음양옥지환」, 앞의 책. 628쪽.

발휘하기도 한다.

따라서 시녀는 그 어떤 다른 유형의 조력자보다도 여성과의 연대감이 강력하게 형성되면서 조력자의 개념을 넘어 동반자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2. 여성영웅소설의 서사 유형에 따른 조력의 특성

선혼담 서사에서는 조력 관계가 영웅의 성장기에 집중되어 나타나면서 여성에 대한 지원이 물심양면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후혼담 서사는 조력 관계가 매우 약화되어 나타나다가 혼담이 개입되는 순간 여성의 연대 관계는 무너지고 반조력 관계가 형성되며 여성을 압박하게 된다. 이처럼 조력은 혼담의 위치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조력이 진행되면서 여성영웅소설의 서사 방향까지 결정짓는 방향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 선혼담 서사 속 조력의 특성

선혼담 서사는 조력 관계가 영웅의 성장기에 집중되어 나타나게 된다. 출생부터 초월계가 관여하는 것을 물론 늑혼과 수학 과정, 출정 과정에서도 초월계와 현실계가 관여하며 촘촘한 조력 관계망을 형성하게 된다.

작품명	능력 관계	탄생		늑혼	수합		출정	
		영웅성 암시	배우자 암시		능력 계발	신물 제공	위기 구출	기회 제공
<황운전>	여성 우위	○	○	○	○	○	×	○
<백학선전>		○	○	○	○	○	×	○
<운향전>		○	×	×	○	○	×	○
<김희정전>		○	○	×	×	○	×	○
<정비전>		○	△	×	×	○	○	×
<이봉빈전>		○	×	○	×	○	○	×
<홍연전>		×	△	×	×	○	×	×
<장국진전>		○	△	○	×	○	×	×
<정수정전>		○	○	×	×	×	×	×
<위봉월전>		×	×	×	○	×	×	×
<김태자전>	남녀 동격	○	○	○	○	○	×	×
<음양옥지환>		○	○	○	○	○	×	×
<화옥쌍기>		×	○	○	○	○	○	×
<이대봉전>		○	○	○	×	×	×	×
<오선기봉>		×	△	△	×	×	×	×

<선혼담 서사에 나타난 작품별 조력 양상>110)

선혼담 서사는 서사 진행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여성이 부모의 가정에서 늑혼 등의 사유로 이동하며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혼인한 상태에서 남편의 위기 등을 이유로 사회에 진출하는

110) △로 표기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탄생 : 생애 설계에서 배우자 암시가 여성이 아닌 배우자 남성에게만 나타난 경우
늑혼 : 주변인에 의한 구출이 아닌 여성이 탈출을 주도하며 시녀와 연대한 경우

것이다. 이러한 서사 진행 방식에 따라 선혼담 서사는 여성의 출생부터 영웅으로 성장하기까지, 그리고 전쟁에서 영웅성을 발휘할 때까지 일정한 조력 서사를 형성하게 된다.

먼저 전자의 경우 조력은 여성의 출생에 관여하여 배우자 암시와 여성의 영웅성 암시를 통해 혼담 서사와 영웅 서사의 서막을 열게 된다. 이후 늑혼이 발생하며 조력자는 여성을 위기로부터 탈출시키게 되고 유리결식하던 여성이 여러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조력자가 등장하여 여성을 구출하게 된다. 이때 조력자는 자신을 희생하여 여성을 구출하기도 하고 동반자로서 여성과 함께하며 탈출을 도모하기도 한다. 이후 조력자는 여성의 능력을 계발하여 여성이 영웅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조력자는 여성의 출생에 관여하여 전자와 마찬가지로 조력을 수행하게 된다. 이후 여성은 혼인을 먼저 진행하게 되고 이후 남성이 전쟁에 나가 위기에 처하면 여성에게 남성의 위기 상황을 고지하여 여성이 사회로 진출하도록 돕는다. 또한 조력자는 여성이 전쟁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신물을 제공하여 여성의 능력을 배가시켜주기도 하며 여성이 전쟁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제공하기도 한다.

한편 여성은 부모의 공간에서 성별적 제약을 받는 존재이다. 따라서 여성은 그 공간에서 외부 활동을 하거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 대신 여성은 여범을 배우고 예기에 따라 행동하며 외부와의 소통을 대부분 차단당한 채 생활하게 된다. 이처럼 통제받으며 수동적으로 살던 여성이 늑혼 등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부모의 부재가 발생하며 가문의 존폐 위기를 당하면 대부분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져 자살을 시도하게 된다. 이때 여성을 구출하는 존재가 바로 유모와 시녀이다. 이들은 여성을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구출하는 것은 물론 여성이 위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돕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의 희생이 뒤따르기도 한다. 유모와 시녀

는 비록 여성과 신분 차이가 있지만 이미 여성과 준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위기는 곧 자신들의 위기로 인식되므로 여성을 보호하는데 적극성을 띠게 된다.

특히 시녀는 여성과 연대 관계를 넘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유모가 가정 내에서 여성을 보호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시녀는 여성의 대외적 활동에 손발이 되어 준다. 때로는 여성과 동일한 영웅성을 보이며 여성과 함께 전장을 누비기도 하고 여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함께 그 위기에 기꺼이 뛰어들기도 한다. 이처럼 시녀는 여성과 상하관계를 넘어선 동반자적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준가족 관계자와 사회에 입성한 여성은 여전히 대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 계발이 시급하다. 이때 여성은 자기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킨다. 부모의 공간에서 세뇌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때문에 발생한 현상인 것이다. 그동안 여성은 자신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하며 살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주어진 자유와 기회 제공 앞에서 혼란에 빠지게 된다.

츄후로브터 선즈 | 쇼저와 춤미를 낮이면 신기한 병서와 절등한 무예를 그르치니 쇼저 | 선즈씩 고 왈 데즈 등이 임의 너즈의 몸이 되온바 명도 | 기구호오니 종신토록 슬하에 피셔 선술을 비화 진간 만스를 닛고져 호오며 더고나 병법과 무예는 남즈의 홀바이오니 바라건디 선싱은 숲히쇼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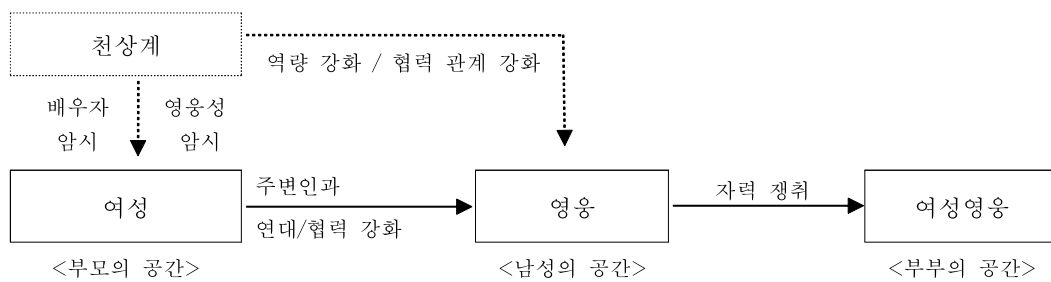
<음양옥지환>¹¹¹⁾

화수영은 벽하선자에게 수학하며 여러 병서와 무예를 배우지만 여전히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된다. 본인은 기구한 팔자로 인간 만사를 잇고 지내고 싶은데 왜 남자가 할 일인 병법과 무예를 배워야 하는지 의문을 품은 것이다. 여성은 여전히 자신의 삶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의로 능

111) 「음양옥지환」, 앞의 책. 623쪽.

력이 계발되면서 이러한 혼란 과정을 겪게 된다. 하지만 여성의 혼란은 조력자를 통해 극복된다. 여성의 옆에는 항상 시녀가 동반자적 관계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고 능력 계발 조력자는 정신적 스승으로 자리하며 여성의 가치관이 올바르게 자리잡도록 도와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흔들릴 때에는 초월계(아황·여영/용왕 등)가 관여하여 여성을 다독여준다. 이러한 조력자의 모습은 여성이 영웅으로 성장하기까지 타자와의 연대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그 관계는 공감과 연대, 협력에 방점이 찍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력자와의 연대 관계는 출정에서도 이어진다. 여성이 위기에 처할 때 등장하여 여성을 조력하거나 여성이 영웅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끊임없는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이 성장하여 활약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이러한 조력 형태는 사회 공동체적 관계망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한 것처럼 성별적 제약을 받던 여성이 강제로 사회에 끌려나왔을 때 사회는 관계망을 형성하여 여성을 지탱해 준다. 이때 사회 공동체적 관계망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일방적인 지시 관계가 아니다. 여성과 소통하고 연대 관계를 형성하며 공감해 주는 무조건적인 지지 협력체인 것이다.



<선혼담 서사에 나타난 조력 관계도>

2) 후혼담 서사 속 조력의 특성

후혼담 서사는 여성이 잠재력을 자력으로 발현하는가, 후천적으로 발현하는가에 따라 다른 조력망이 형성된다. 먼저 여성이 잠재력을 자력으로 발현할 경우 여성은 구출 과정과 수학 과정을 필요치 않게 되면서 이에 따른 조력도 소거된다. 또한 잠재력을 자력으로 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 또한 뛰어나 출정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력을 요구하지 않게 되면서 대부분의 조력이 소거되는 현상을 보인다.

반면 여성이 잠재력을 후천적으로 계발해야 할 경우 구출 과정, 수학 과정이 모두 나타나면서 이와 관련된 조력 관계가 형성된다. 또한 출정 과정에서도 기회 제공과 관련된 조력이 나타나며 여성을 돕게 된다.

작품명	여성 능력	출생	수학		출정		늑혼 방해자
		영웅성 암시	능력 계발	신물 제공	위기 구출	기회 제공	
<방한림전>	선천적 능력 발현	×	×	×	×	×	△
<이형경전>		×	×	×	×	×	○
<홍계월전>	후천적 능력 계발	○	○	×	○	○	○
<옥주호연>		○	○	×	×	○	○
<석대룡전>		○	○	○	×	○	×

<후혼담 서사에 나타난 작품별 조력 양상>112)

112) <방한림전>은 방한림이 관직에 진출한 후 지속적인 혼사 요구를 받게 된다. 이에 방한림은 더이상 거절했을 시 자신의 정체가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동성혼을 취하게 되므로 <방한림전> 또한 늑혼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배우자와의 갈등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로 표기하였다.

하지만 두 서사 모두 군담이 우선적으로 나타나면서 서사 초반에는 혼담과 관련된 조력이 모두 소거되지만 작품 중반부터 혼담이 개입되면서 조력 관계가 형성된다. 그런데 이때 형성되는 조력 대상은 여성이 아니다. 즉, 혼담부터 조력 대상이 남성으로 역전되면서 그동안 여성과 군담에서 조력 관계를 형성했던 주변인들이 여성에게는 방해자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때 주목할 점은 혼담 개입으로 인한 여성의 지위 변화이다. 후혼담 서사는 먼저 군담을 배치하여 여성을 영웅으로 만들어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게 만들고 여성이 최고의 위치에 오르는 순간 혼담을 개입시켜 ‘영웅’을 다시 ‘여성’으로 회귀시켜 버린다. 그 과정에서 늑혼이 발생하는데 그동안 여성과 연대 관계를 형성했던 주변인들이 모두 남성을 조력하는 관계로 역전되면서 여성과의 연대는 파괴되고 여성과는 반(反)조력 관계가 형성된다. 이때 여성과 반조력 관계가 형성되는 주변인은 주로 천자, 유모, 가족이다.

일일은 텃지 위국공을 넘시호라 호스 곶으스디 ... 평국이 규중에 홀노 늑으면
홍무에 혼빅이 의지홀 곳이 업슬거시니 엇지 슬푸지 으니 호리오 또한 보국의 혼
인은 짐이 중미 되고즈 호니 엇더이노 ... 평국의 비필은 뒤와 정하시려 하나니가
텃지 곶으스디 평국과 동학하던 보국과 정혼코즈 하느니 ... 계월을 불너 안치고
텃지 하교하시던 말숨을 낫낫 전하니 계월이 엇즈오디 소녀의 마음은 평성을 홀
노 늑어 부모 슬하에 잇삼다가 부모 만세 후에 죽어 다시 남자되야 공명의 형실
을 비오고자 하얏삼더니 근본이 탄로하야 텃즈 하교 여차하옵시니 부모 슬하에
다른 즈식이 업서 비회를 품고 선영 봉사를 전홀 곳이 업스오니 자식이 되야 부
모 령을 엇지 거역하오며 텃자의 하교를 엇지 거역하오리잇가

<홍계월전>113)

<홍계월전>에서는 천자가 여성과 반조력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천자는

113) 「홍계월전」, 앞의 책. 510쪽.

홍계월의 증대를 서며 보국과의 혼례를 결정하게 된다. 위의 지문을 보면 마치 천자가 홍계월의 부친과 의논하는 듯 보이나 이는 천자의 일방적인 결정을 부친에게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이때 혼사 당사자인 홍계월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으며 홍계월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영웅소설에서 천자의 결정은 곧 하늘의 뜻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홍계월이 외동이라 혼인을 하지 않으면 부모의 혼백이 의지할 데 없다는 말을 통해 효까지 강압 당하게 된다. 이처럼 충과 효를 강압 당한 홍계월은 선택권이 없게 된다.

상이 니전에 드러가 샤틀후를 뵈옵고 즈쥬 등 삼 인의 일을 주달하시니 티휘 디경 칭찬 왈 세상에 엇지 이런 일이 잇스리오 하시고 ... (중략) ... 상이 주 왈 삼주와 동문 슈학하던 치완 등 삼형제가 삼주의 성년월일시가 조금도 틀니지 아니하고 그 삼쥬도 또한 동티라 호오니 호날이 유의호심인가 호느이다 겸호와 디공이 잇스오니 신이 중미 되어 인륜을 정호야 쥬려 호느이다 ... (중략) ... 상이 제신을 거느려 티익지에 련화를 구화 호실시 군신이 하례호기를 맞치미 치완 등 삼인과 류즈쥬 등 습 인을 명호야 왈 짐이 전일 점담택에서 련경 만발한 썩에 소년 호희들이 물에 드러가 허염질 치고 희롱호는 양을 보앗더니 지금 경 등 록 인이 절강 사람이라 강슈에 익어 허염질을 잘호리니 경 등은 스양치 말고 이 못에 드러가 고기도 잡고 서로 희롱호야 짐의 마음을 즐겁게 호라.

<옥주호연>114)

<옥주호연> 역시 천자가 여성과 반조력 관계를 형성한다. 이때 천자는 <홍계월전>보다 더욱 강압적인 태도를 취한다. 천자는 자주 세 자매가 여성임을 알고 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도록 계략을 짠다. 천자는 연회를 배설하여 육 인을 초대한 후 육 인이 절강 사람이라 수영을 잘할 것이니 연못에서 수영을 하라는 명령한다. 이에 여성들은 망연해 땅에 엎드리자 천자는

114) 「옥주호연」, 앞의 책. 575~576쪽.

거짓으로 노한 척하며 결국 여성들이 자백하도록 만든다. 이후 천자는 여성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남성 세 쌍둥이와 여성 세 쌍둥이의 혼사를 주관하여 혼례를 치르게 만든다. 이때부터 여성들은 더 이상 주체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자신들의 관직을 자진 반납하게 된다. <옥주호연>의 천자는 매우 강압적인 방법으로 여성들의 본색을 드러내게 만들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혼인을 강제로 강행하게 된다. 이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억압적 태도를 그대로 재현해 낸 것이다.

한편 <이형경전>은 이형경과 장연을 혼인시키기 위해 다양한 주변인이 관여하게 된다. 이는 이형경이 혼례를 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먼저 이형경의 부친이다. 부친 이형도는 어린 이형경이 남성의 삶을 살고자 선택했을 때부터 그 활달함을 경계하며 지속적으로 이형경에게 여도를 주지시킨다. 하지만 이형경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자 잠시 그 뜻대로 내버려 둔다. 하지만 부친이 일찍 기세하면서 이후 이형경의 뜻을 꺾을 사람이 없게 되자 혼령의 형태로 장연의 꿈에 먼저 나타나 이형경이 여성임을 암시하고 이어 이형경의 꿈에도 나타나 울면서 이형경을 개유하게 된다.

호로는 썩를 어드니 부피 이라러 울며 기유왈 네 녀즈의 몸으로서 이러흔 일을
흐니 너 지하의 잇스나 눈을 감지 못호노라 쌀이 전일을 자취호고 여도를 흥호면
우리게 더욱 호도의 즈식이 되리로다

<이형경전>115)

하지만 이형경은 동요하지 않고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 이에 두 번째 주변인으로 유모가 나선다. 유모는 지속적으로 이형경에게 여성으로서의 삶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는 인물이다.

115) 「이형경전」 하권, 앞의 책. 27-1~2쪽.

일일은 형경이 모든 봉우로 더부러 외당의셔 시을 창화한다ᄃ 국국 훗터진 후
안의 드려오니 유피 오살 벗기고 일오디 쥬인이 기세호시고 을노 소공자를 잇고
소제 또한 혼취에 일이 밧부거날 규중의 좃치로 의법흔 남즈되야 조금도 녀도를
아니시고 혐의로오플 심각지 아니시니 진실노 첩의 근심이라 이리호고 어이호라
호시나니잇가

<이형경전>116)

유모는 이형경이 남성 벗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을 보고 여도를 행하지 않음
을 걱정하며 이형경에게 충고한다. 그러나 이형경이 말을 듣지 않자 장언을
찾아가 이형경이 여성임을 밝히며 둘 사이를 이어주고자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유모의 역할은 <방한림전>에서도 엿볼 수 있다.

유모 고왈 이제 소저의 방년니 구세라 규리의 녀즈 십세의 불출문외라 호은니
원컨디 공즈난 도라 심각호시고 우은 고조를 그만 곳치스 나중을 어즈랍게 말으
스 선노야 부인 영혼을 평안이 호쇼셔

<방한림전>117)

<방한림전>에서 유모는 어린 방한림이 남성의 삶을 선택했을 때 이를 지적
하며 ‘규리의 녀즈 십세의 불출문외’라는 말을 한다. 이는 ‘여자가 열 살이 되
면 규문 밖에 나가지 아니하며 여자 스승이 유순한 말씨와 태도와 어른의 말
을 잘 듣고 이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예기의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¹¹⁸⁾
유모의 말을 통해 당대 여성들의 삶이 가정 내로 그 활동 범위가 제한되고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후혼담 서사에 등장하는 유모는 선혼담 서사의 유모와 그 역할이 다

116) 「이형경전」 상권, 앞의 책. 4-1쪽.

117) 「방한림전」, 앞의 책. 5쪽.

118) 이상옥 역주, 『예기(중(中))』, 명문당, 2003, 803쪽.

르다. 선혼담 서사 속 유모는 여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내어놓기도 하고 여성이 조실부모했을 때 부모를 대신하여 양육하기도 하는 등 의지의 대상이자 정서적 교감 대상이 된다. 반면 후혼담 서사 속 유모는 여성 규범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역할로써 여성이 규범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끊임없이 각인시키는 역할로 작용한다.¹¹⁹⁾

이처럼 죽은 부친과 유모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형경을 본래의 성별로 돌리고자 노력하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당대 사회 규범을 근거로 여성을 성별적 제약의 대상으로 인식한 후 여성에게 끊임없이 여도를 주지시키며 경계하게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이형경이 생각을 바꾸지 않자 이형경의 남동생인 이영경이 나서게 된다.

형이 비록 천기를 두루혀는 슈단이 계사나 근본은 감초지 못홀지라 국가로 일너도 상여와 삼디적 여후 무측천이 다 일흠이 유전호되 녀티를 벗지 못호여시니 호말며 여염 조고만 녀지 고집호야 즐겨 사람을 섬기지 아일진디 쳐즈로 늣글지 언정 진실노 직열노 중신탄 못호리니 니 난쳐호미 네 가지라 ... 형이 아녀즈이 몸으로써 이렷툷 영귀호야 임의 남즈의 스업이 지낫거날 또 무어살 부족호야 명철보신지칙을 심각지 아니사니

<이형경전>¹²⁰⁾

이영경은 부친이나 유모보다 남성 중심 시각에서 이형경에게 충고하게 된다. 이영경은 이형경에게 아무리 천기를 다루는 슈단이 있더라도 근본은 감출 수 없다고 하면서 상여와 여후 무측천도 이름이 유전하지만 여태를 벗지 못했는데 하물며 여염의 조그만 여자가 고집하여 사람을 섬기지 않고 속절없이 규중에서 늣을 것이냐며 경고한다. 또한 이미 영귀함이 남자를 넘어섰는데 무엇

119) 조현우,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위반·불합·균열의 문제」, 『한국고전연구』 30,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216~217쪽.

120) 「이형경전」 하권, 앞의 책. 5-2, 6-1~2쪽.

이 더 부족해서 남자의 행실로 지내냐고 이형경을 설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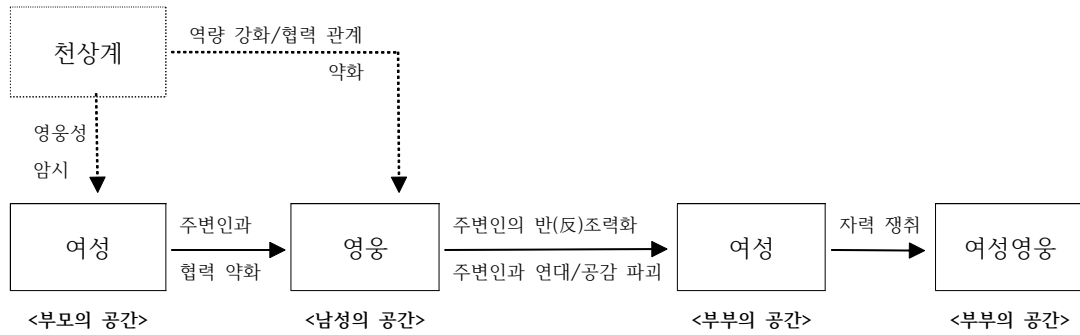
한편 이형경이 여성임을 알게 된 장연은 태자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그러자 태자는 황제를 찾아가 그 사실을 고하면서 태자와 천자까지 혼사에 관여하게 된다. 일차적으로 천자는 이형경에게 장연과의 혼사를 권했지만 이형경은 완강하게 거부한다. 이에 천자는 계책을 낸다. 황제는 이형경에게 글체를 낼 것이니 만약 이형경이 먼저 제출하면 이형경의 뜻대로 하고 장연이 먼저 내면 혼인을 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한다. 이에 이형경은 평소 장연의 글쓰기가 자신에게 미치지 못함을 알고 허락한다. 하지만 천자는 장연에게 글체를 미리 알려주었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장연이 승리하게 된다. 이형경은 속은 것을 알았지만 이미 약속한 터라 어쩔 수 없이 혼인을 허락하게 된다.

이처럼 후혼담 서사는 여성이 혼담을 거부하면 주변인들이 배우자 남성의 조력자가 되어 여성의 의지를 꺾고자 한다. 이로 인해 여성은 그동안 연대 관계를 형성했던 주변인들과 대립하게 되고 갈등을 겪게 되며 연대 관계가 파괴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때 천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웅소설은 충을 기초로 성립한 장르이기 때문에 천자의 개입은 여성 영웅에게 거부할 수 없는 권한으로 작용하여 압박을 가하게 된다. 후혼담 서사 속 천자는 여화위남이 밝혀지는 순간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환수하거나 형식적인 지위로만 유지시킨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혼사를 주관하면서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천자의 태도는 여성에게 혼란을 야기하여 여성이 주체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갈등을 일으키게 만든다.

이처럼 후혼담 서사는 여화위남이 밝혀지는 순간부터 여성과 연대 관계를 형성했던 부친, 유모, 천자 등의 주변인들이 여성에게는 방해자로 역전되고 남성에게는 조력자로 작용함으로써 영웅 서사를 여성 억압 서사로 전환시킨다. 특히 군담을 통해 여성의 영웅성을 최고조로 이끌어 낸 다음 혼담을 개입시켜

여성을 ‘영웅’에서 ‘여성’으로 회귀시키는 과정은 여성의 현실적 억압을 극렬하게 담아내며 강한 인상을 남기는데, 반조력자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게 된다.



<후혼담 서사에 나타난 조력 관계도>

IV.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혼담과 조력 서사의 유기적 의미

조력은 주인공을 영웅으로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며 더 나아가 영웅과 협력, 연대 관계를 형성하며 주인공이 영웅으로 활약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해 주게 된다. 따라서 영웅소설에서 조력 서사는 영웅 서사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런데 여성영웅소설은 이러한 조력 서사와 영웅 서사에 혼담 서사까지 결합하여 나타났다. 이때 혼담은 결코 여성에게 유리한 사회적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즉 여성영웅소설을 영웅 서사가 아니라 결연 서사로 해석하며 여성영웅소설의 한계로 지목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혼인을 하지 않고는 여성 혼자 살아갈 수 없었다. 성종실록에 의하면 혼인은 생민(生民)의 시작이며 만복(萬福)의 근원이므로 혼인할 때를 잃으면 인도(人道)가 퇴폐해진다¹²¹⁾고 할 만큼 혼인을 중시 여겼다. 특히 노처녀, 노총각을 인간의 도리를 행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 사회적 불구로 규정지며 사회문제로 인식했던 것이다.¹²²⁾

따라서 혼인은 인도로 규정되어 당대 여성들이 피해 갈 수 없는 사회 제도였고 이는 여성 영웅도 피해 갈 수 없는 사회적 규약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여성영웅소설에서 혼담 서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성영웅소설에서 이러한 혼담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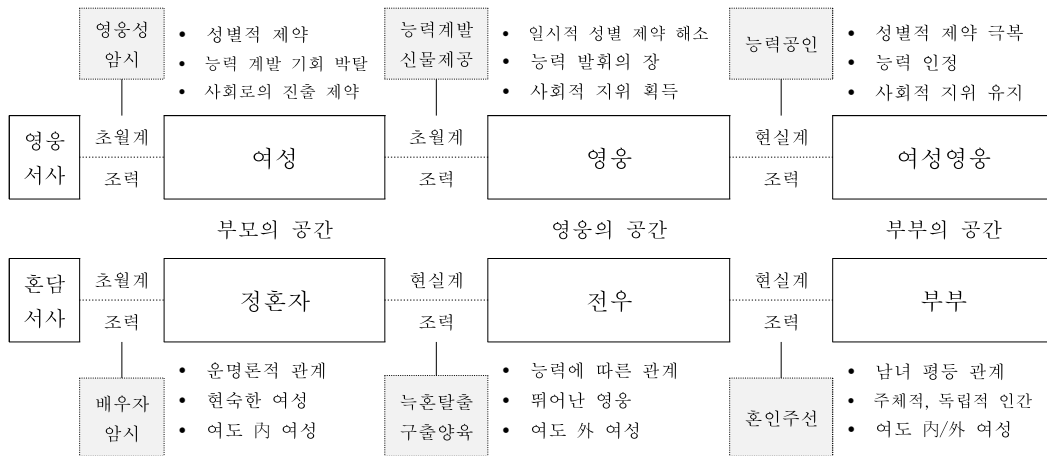
먼저 선혼담 서사에서는 혼담이 여성 성장 서사와 결부되어 진행되고 있다. 선혼담 서사는 혼담이 먼저 제시되면서 모든 서사가 혼담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초월계가 출생에 관여하여 혼담과 관련한 여성의 생애를 미리 설

121) 고전번역원DB,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4일 계해

122) 장정수, 「규방가사에 나타난 '혼인문제'와 여성의 인식」, 『어문논집』 80, 민족어문학회, 2017. 8쪽.

계하고, 늑혼으로 인해 여성이 부모의 공간에서 추방된다. 가정에서 추방된다는 것은 사회적 공간으로 확장됨을 의미한다. 이후 여성은 군담에서 배우자와 재회하며 함께 활약하거나 남성보다 우월한 영웅성을 과시하며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여성의 여화위남이 밝혀지며 혼담이 완성되고 서사는 완결된다.

이렇게 혼담 서사를 따라가다 보면 영웅 서사가 마치 결연 서사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관점을 여성과 연결된 조력망으로 전환해 보면 오히려 선혼담 서사 속 혼담은 여성의 성장 서사로 이해될 수 있다.



<선혼담 서사 속 영웅 서사/혼담 서사/조력 서사 관계망>

위의 도표에서처럼 선혼담 서사는 매우 정교한 짜임새를 갖추고 있다. 즉 영웅 서사와 혼담 서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조력 서사가 연결되어 있다. 이때 여성영웅소설을 해석하는 관점을 혼담 서사나 영웅 서사 어느 한 곳에 편중되기 보다는 두 서사와 조력 서사를 추가하여 그 관계망 속에서 바라본다면 여성영웅소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먼저 초

월계의 조력망과 현실계의 조력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초월계의 조력망이다. 선혼담 서사에서 초월계 조력망은 주로 영웅 서사와 관련되어 형성된다. 선혼담 서사는 여성이 출생하기 전부터 초월계가 태몽에 관여하여 여성의 고귀한 혈통과 영웅으로서의 영웅성을 증명해 준다. 또한 초월계는 운명론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여성의 배우자를 암시하는 등 출생부터 여성의 삶에 관여하고 있다.

이때 출생 전부터 여성의 배우자가 결정되었다는 것은 이미 여성에 대한 제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출생 전부터 이미 여성의 운명을 결정하고 이를 부모에게 고지함으로써 여성의 선택권 자체를 박탈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여성은 필연적으로 운명 속 남성과 결연을 맺게 된다. 그런데 여성을 운명의 굴레로 묶어두고 성별적 제약을 받도록 만들었던 초월계가 여성이 늑혼으로 부모의 공간에서 추방되어 사회로 진출했을 때는 태도가 돌변하게 된다. 오히려 초월계는 여성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처음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천상계의 이중적인 태도는 서사에서 매우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한다. 즉 천상계가 출생에서 여성의 배우자를 암시한 것은 표면적으로 여성을 제약하는 장치로 나타나지만 그 이면에는 오히려 여성을 사회로 진출시키기 위한 전략이 마련되어 있다. 여성은 출생 전부터 정해진 운명에 따라 결연을 맺게 되고 사회 관습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절개가 형성된다. 따라서 늑혼이 발생했을 때 여성은 이를 거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상대 가문과 충돌을 야기하며 위기에 빠지게 된다. 그 결과 여성은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타의로 사회로 진출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여성은 생래적으로 확보한 영웅성을 계발하며 영웅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서사 전개로 볼 때 초월계의 진짜 목적은 여성을 구속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을 사회로 진출시켜 영웅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열어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이후 군담에서 초월계의 역할을 통해 또 한번 증명된다. 초월계는 여성이 출정하기 전 여성에게 신물을 제공하여 그 능력을 확장시키고 영웅으로 성장한 여성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초월계는 여성을 완벽한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물심양면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초월계는 주로 영웅 서사에 관여하여 여성을 영웅으로 변신시키는데 일조하는 것이다.

다음은 현실계의 조력망이다. 현실계의 조력은 주로 혼담 서사와 관련되어 형성된다. 현실계 조력은 특히 여성과 밀접 관계에 있는 주변인들, 즉 부모를 대신하는 유모, 여성의 분신이자 동반자인 시녀, 부모의 지기인 지인 등이 여성의 처지에 공감하고 연대 관계를 형성하며 조력망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여성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자신을 희생하여 여성을 구출(유모, 시녀)하기도 하고 여성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시녀)하기도 하며 아직 보호가 필요할 때 나타나 구출 후 양육(지인)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력망은 사회 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

선혼담 서사 속 여성은 영웅으로 성장하기까지 무수한 고난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성은 이때마다 혼자가 아니었다. 여성 주변에는 항상 여성과 함께하는 조력자가 있었고 이들과 연대관계를 성립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현실계의 조력망은 여성이 사회에 적응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이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독립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현실계의 조력망은 여성이 사회로 나와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주체적 인간으로 성장할 때까지 여성 성장을 돕는 사회 공동체적 관계망인 셈이다.

이때 혼담 서사는 이러한 현실계 조력망에 밀착되어 나타난다. 여성은 출생 전부터 천상계가 관여함에 따라 남성과 운명론적 관계에 얽매이게 된다. 이로 인해 여성은 부모의 공간에서 성별적 제약을 받는 ‘여성’으로 여도 내에 속한 현숙한 여성상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늑혼을 피해 부모의 공간에서 영웅의 공간으로 이동한 여성은 이와는 반대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남성과의 관계가 운명론적 관계가 아닌 능력에 따른 관계로 변이되며 여성의 지위는 남성보다 우위를 선점하거나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 결과 남성과의 관계가 정혼 관계에서 전우 관계로 전환되고, 남녀 구분이 아닌 계급 구분으로 이동한다. 이로써 여성은 여도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능력만으로 평가받게 된다. 그 결과 여화위남이 밝혀지며 부부의 공간으로 들어가더라도 여성은 차별적 제약의 대상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평등한 수평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이미 배우자 남성은 전장에서 여성의 영웅성을 목도하게 되고 이에 대한 경외심을 내재한 상태에서 여성과 동지적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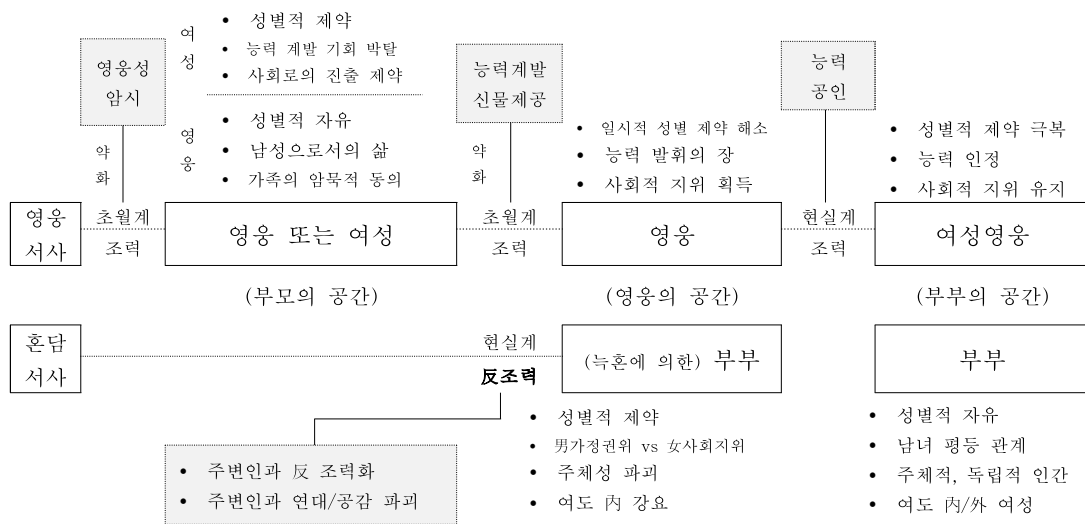
따라서 남성은 여성의 성별을 문제 삼지 않고 동지 혹은 대등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며 부부 관계로 전환되어도 대등한 관계를 지속하게 된다. 즉, 남성은 부부의 공간에서 여성을 주체적이며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면서 여성은 성별적 제약에서 벗어나 인간 자체의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여성은 여도 내에 있으면서 동시에 여도 밖에 존재하게 된다.

이처럼 선혼담 서사는 여성이 인간으로 독립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성장 서사이다. 영웅 서사에서는 천상계의 조력을 통해 영웅으로의 성장담을 그려내고 혼담 서사에서는 현실계의 조력을 통해 인간으로의 성장담을 그려내고 있다. 이때 남성 사회의 대표인 천자와 배우자 남성이 여성의 영웅성을 목도하게 만듦으로써 여성을 성별이 아닌 능력으로 인정하게 만들어 여성이 성별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한편 군담 서사는 여성이 조력자와 연대, 협력 관계를 형성할수록 오히려 영웅으로서의 능력이 빛을 발하는 반사효과로 작용하게 된다. 성별적 제약을 받던 여성이 영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 후 그 여성이 영웅성을 드러내며 마침내 여성영웅이 되는 과정에서 조력자와의 협력과 연대는 오히려 영웅으로서의 기량을 돋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선혼담 서사에서 조력 서사는 영웅 서사와 혼담 서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력 관계망으로 연결되어 때로는 앞에서 끌어주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며, 때로는 옆에서 함께하며 여성이 자립할 때까지 정신적, 육체적 안전망이 되어주고 있다.

후혼담 서사는 선혼담 서사와는 다른 조력망이 형성된다. 선혼담 서사가 조력 서사를 통해 여성을 성장시키는 자립 서사였다면 후혼담 서사는 오히려 여성을 방해하는 억압 서사로 작용하게 된다.



<후혼담 서사 속 영웅 서사/혼담 서사/조력 서사 관계망>

위의 도표에서처럼 후혼담 서사 역시 매우 정교한 짜임새를 갖추고 있다. 먼저 후혼담 서사 속 영웅 서사에 나타난 조력망이다. 후혼담 서사는 혼담이 작품 중반에 배치되면서 서사 초반에는 혼담과 관련된 조력이 모두 소거되고 군담에서도 조력이 약화되거나 소거되는 경향을 보인다. 후혼담 서사는 서사 초반부터 여성의 영웅성을 부각시키는 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혼담 서사와 달리 군담에서 조력자와의 협력 관계가 약화되어 나타난다.

조력의 행위는 양면성을 갖게 된다. 조력을 통해 영웅성을 부각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조력 때문에 영웅성이 반감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능력 완성도와 관련된다. 만약 여성의 능력이 완성형이라면 조력 관계를 형성할수록 오히려 그 능력을 반감시키게 되므로 약화되어 나타난다. <이형경전>, <방한림전>처럼 처음부터 영웅으로 완성되어 있는 경우 조력자가 등장하면 오히려 여성의 능력이 반감되는 효과로 작용하게 되므로 조력자가 대부분 소거되는 것이다.

반대로 여성의 능력이 성장형이라면 조력 관계를 형성할수록 오히려 그 능력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홍계월전>, <옥주호연>, <석태룡전>은 성장형 영웅이기 때문에 군담에서도 조력 관계가 형성되며 여성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후 군담에서 영웅으로 성장한 여성의 활약을 부각시키기 위해 오히려 조력 관계를 형성하여 그 능력을 돋보이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때 형성되는 조력 관계는 선혼담 서사와 차이를 보인다. 즉, 후혼담 서사는 영웅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매우 빠르게 전개되면서 출정 서사가 작품 초반에 나타난다. 따라서 영웅으로 활약하는 과정이 성장 서사보다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지만 군담에서 조력자의 역할이 선혼담 서사보다는 약화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결국 후혼담 서사는 군담에서 조력 약화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여성의 영웅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후혼담 서사 속 혼담 서사에 나타난 조력 서사이다. 후혼담 서사는 군담에서 여성의 활약상이 절정에 달했을 때 혼담을 개입하여 영웅을 여성으로 회귀시켜 버린다. 이로 인해 여성은 자신의 삶에 회의감을 느끼고 가치관의 혼란이 야기되며 남성과의 갈등까지 연쇄적으로 나타난다.

이때 여성에게 형성된 反조력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군담에서 여성과 연대 관계를 형성했던 주변인들, 즉 여성이 남성적 삶을 선택했을 때 이를 묵인했던 가족, 여성의 옆에서 항상 부모처럼 보살피주는 유모, 여성의 영웅성을 공인했던 천자 등 주변인들이 태세를 전환하여 여성에게는 방해자¹²³⁾로, 남성에게는 조력자로 역전되며 여성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하여 영웅을 여성으로 회귀시킨다. 이로 인해 여성은 자신을 둘러싼 사회관계망이 파괴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그동안 쌓아온 공로가 사라지고 오직 성별적 특성만 강요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천자의 태도를 통해 증명된다. 여화위남이 밝혀지기 전 천자는 여성을 만고의 충신으로 추켜세우지만 여성의 성별이 드러나는 순간 천자는 여성을 성별적 ‘여성’으로만 대하게 된다. 남성 사회 최고 지위인 천자의 태도 변화는 배우자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배우자 남성 또한 여성을 사회 계급이 아닌 가장으로서의 권위로 대하면서 여성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가치관의 혼란과 주체성이 파괴되는 경험을 하게 되며 여도 내에 수용되기를 강요받게 된다.

이처럼 후혼담 서사는 혼담 서사에서 여성의 사회관계망을 파괴하고 반조력망을 펼침으로써 여성에게 가해지는 현실적 억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여성에게 사회관계망은 곧 주체적, 독립적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안전망에 해당한다. 하지만 후혼담 서사는 이러한 안전망을 파괴하

123) 이때 방해자란 여성이 영웅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고자 혼사를 거절할 때 이를 방해하며 여성을 성별적 여성의 삶으로 회귀시키려는 사람을 의미한다. 대부분 가족이나 유모, 배우자 남성, 천자, 태자 등으로 설정된다.

고 여성을 성별적 여성으로 회귀시켜 억압하고 있다.

이때 주목할 점은 서사가 먼저 여성의 영웅성을 강하게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영웅성이 극에 달하고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을 때 서사는 일부러 혼담을 배치하여 여성의 모든 공을 무로 돌려버린다. 이와 같은 서사구성은 선혼담 서사와 다른 목적으로 혼담이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앞서 선혼담 서사에서 혼담 서사는 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공동체적 성격으로서의 조력을 형성하는 것을 살펴본 바 있다. 이는 여성의 주체적, 독립적 삶을 지원하는 방식으로서의 혼담 활용이었다. 반면 후혼담 서사에서 혼담은 여성을 억압하는 장치로 활용되면서 조력이 아닌 반조력망을 펼쳐 여성의 사회관계망을 모두 끊어내고 여성을 억압하며 다시 부부의 공간이라는 성별적 제약이 작용하는 세계로 여성을 밀어넣게 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여성에게 조력 관계가 형성되면 여성은 선혼담 서사의 능혼처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될 수 있다. 따라서 서사는 여성의 조력 관계를 모두 끊어내고 반조력 관계를 형성하여 여성이 혼담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이때 천자처럼 남성사회의 최고 지위자가 관여함으로써 여성이 혼담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방어하게 된다.

이러한 서사구조는 혼담이 여성에게 얼마나 부당하게 작용하는지, 여성의 능력과 상관없이 여성을 차별적 대상으로 규정하고, 남성의 가부장적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여성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당대 현실은 ‘영웅’이 ‘여성’으로 회귀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과장하여 반영되었다. 즉 후혼담 서사는 조력을 반조력으로 전환함으로써 여성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동한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혼담이 여성영웅소설의 성격을 규정짓는 기초 서사이자 근본 서사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여성영웅소설은 남성영웅소설과 달리 군담뿐만 아니라 혼담이 주요 서사로 부각되면서 남성영웅소설과는 다른 서사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이때 서사는 혼담의 순차구조에 따라 선혼담 서사와 후혼담 서사로 나타났다. 여성영웅소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선혼담 서사는 ‘혼담→군담→혼담’ 순으로 서사가 진행되면서 혼담이 근본서사로 작용하고 있으며, 후혼담 서사도 ‘군담→혼담→군담’으로 서사가 진행되지만 혼담 비중이 군담에 비해 작지 않다. 특히 확장된 서사를 통해 혼담과 관련된 갈등이 길게 묘사되면서 군담보다 비중 있게 다뤄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여성영웅소설은 혼담을 근본적 서사로 삼으면서 남성영웅소설과는 확연하게 대별되는 서사 구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2장에서는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혼담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여성영웅소설은 혼담의 순차구조에 따라 서사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선혼담 서사이고 다른 하나는 후혼담 서사이다. 선혼담 서사는 혼담이 먼저 제시되고 이후 군담이 나타나는 서사로 <김태자전>, <김희경전>, <백학선전>, <오선기봉>, <위봉월전>, <음양옥지환>, <이대봉전>, <이봉빈전>, <운향전>, <장국진전>, <정비전>, <홍연전>, <화옥쌍기>, <황운전>, <정수정전>이 해당한다.

반면 후혼담 서사는 군담이 먼저 제시된 후 혼담이 나타나는 서사로 <방한림전>, <석대룡전>, <옥주호연>, <홍계월전>, <이형경전>이 있다. 여성영웅소설은 대체로 이 두 서사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며 서사 유형에 따라 혼담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여성영웅소설은 공간 이동에 따라 서사가 진행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공간 이동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변화시키며 여성영웅소설의 성격 및 주제 의식을 돋보이게 만들었다. 이때 혼담의 위치와 공간이 결합하면서 같은 공간이어도 선혼담 서사와 후혼담 서사가 서로 다른 의미를 내포함을 알 수 있었다.

선혼담 서사에서는 여성이 부모의 공간, 영웅의 공간, 부부의 공간을 이동하며 ‘여성’, ‘영웅’, ‘여성 영웅’이라는 지위를 차례로 획득하였다. 이러한 지위 변화는 제약의 대상이었던 여성이 주체적 인간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려냄으로써 당대 여성들이 꿈꾸었을 이상적 공간을 형상화하였다.

한편 후혼담 서사에서는 여성이 부모의 공간, 영웅의 공간, 부부의 공간을 이동하며 ‘여성’ 혹은 ‘영웅’으로 시작하였다가 ‘영웅’이 되고, 다시 ‘여성’으로 회귀하는 과정을 겪은 후 ‘여성 영웅’의 지위에 오르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성별적 제약을 강렬하게 그려내며 당대 여성들의 억압받는 삶을 현실적으로 그려내고자 하였다. 하지만 서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부조리함에 저항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당대 여성의 삶에 위로를 전하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여성영웅소설의 서사 유형에 따른 조력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영웅소설은 주인공이 진정한 영웅으로 성장하기까지 초월계는 물론 현실계의 존재가 영웅의 일생에 관여하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게 되고 성장 후에도 주인공이 영웅성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주인공과 연대하며 서사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조력은 영웅과 분리될 수 없는 운명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이때 여성영웅소설에서 조력은 혼담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먼저 초월계의 조력은 영웅성 및 배우자 암시, 위기 구출 및 기회 제공, 정신적 안정감 형성, 역량 계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실계 조력은 위기 감지, 보호와 양육 지원, 정서적 연대 형성, 동지적 연대 형성에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조력은 서사 유형과 결합하며 서로 다른 조력의 특성을 형성하였다. 먼저 선혼담 서사에서는 조력 관계가 영웅의 성장기에 집중되어 나타나면서 여성을 성장시키는 조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지상계의 조력은 사회 공동체적 관계망이라고 볼 수 있다. 성별적 제약을 받던 여성이 강제로 사회에 끌려 나왔을 때 사회는 관계망을 형성하여 여성을 지탱하며 여성과 소통하고 연대 관계를 형성하며 여성이 영웅으로 성장하기까지 함께하는 협력 공동체인 것이다.

반면 후혼담 서사 속 조력은 여성을 억압하는 반조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후혼담 서사는 서사 초반 군담에서 조력 관계가 약화되어 나타나다가 혼담이 개입되는 순간 여성의 연대 관계는 무너지고 반조력 관계가 형성되며 여성을 압박하게 된다. 여성과 연대 관계를 형성했던 부친, 유모, 천자 등의 주변인들이 여화위남이 밝혀지는 순간부터 여성에게는 방해자로 역전되고 남성에게는 조력자로 작용함으로써 영웅 서사를 여성 억압 서사로 전환시킨다. 특히 군담을 통해 여성의 영웅성을 최고조로 이끌어 낸 다음 혼담을 개입시켜 여성을 ‘영웅’에서 ‘여성’으로 회귀시키는 과정은 여성의 현실적 억압을 극렬하게 담아내며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혼담과 조력 사사의 상관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선혼담 서사는 영웅 서사와 혼담 서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조력 서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 영웅 서사는 천상계의 조력을 통해 영웅으로의 성장담을 그려내고 혼담 서사는 현실계의 조력을 통해 인간으로의 성장담을 그려내고 있다. 선혼담 서사에서 조력 서사는 영웅 서사와 혼담 서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력 관계망을 형성하여 여성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정신적, 육체적 안전망이 되어주고 있다.

한편 후혼담 서사는 선혼담 서사와는 다른 조력망이 형성된다. 후혼담 서사는 혼담을 서사 중반에 배치함으로써 그동안 여성이 형성했던 사회 관계

망을 파괴하고 반조력망을 펼침으로써 여성에게 가해지는 현실적 억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여성에게 사회관계망은 곧 주체적, 독립적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안전망에 해당한다. 하지만 후혼담 서사는 이러한 안전망을 파괴하며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주목할 점은 서사가 먼저 여성의 영웅성을 강하게 부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의 영웅성이 극에 달했을 때 서사는 혼담을 배치하여 여성의 지위를 형식적으로만 남기거나 환수하게 된다. 이러한 서사 구성은 선혼담 서사와 다른 목적으로 혼담이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혼담이 여성에게 얼마나 부당하게 작용하는지, 또한 여성의 능력과 상관없이 여성을 차별적 대상으로 규정하며 남성의 가부장적 권위에 복종하게 만드는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4장에서는 특히 여성영웅소설을 해석하는 또 다른 관점을 제안해 보았다. 여성영웅소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서사망, 즉 영웅 서사, 혼담 서사, 조력 서사를 연결하여 유기적으로 해석하면 기존과는 다른 방향에서 여성영웅소설을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혼담과 조력 서사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해보았다. 여성영웅소설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만 다르게 한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여성영웅소설의 가치를 좀 더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자료

- <김태자전> 선우일, 『김태자전』, 유일서관, 1917.)
- <김희경전>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2, 아세아문화사, 1976.)
- <방한림전> (나손본 필사본, 『고소설자료총서』 11,보경문화사, 1991.)
- <백학선전> 조동일 소장, 『국문학연구자료』 2차분19~30,박이정, 1999.)
- <석태룡전> 김기동, 『오옥기담 외』 21,아세아문화사, 1983.)
- <오선기봉>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4, 아세아문화사, 1976.)
- <옥주호연>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5, 아세아문화사, 1976.)
- <운 향 전> 김기동, 『(필사본)고전소설전집』 3, 아세아문화사, 1980.)
- <위봉월전> 사재동 소장본(충남대), 『필사본 위봉월전』)
- <음양옥지환>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5, 아세아문화사, 1976.)
- <이대봉전> 인천대학 민족문화연구소, 『(구활자본)고소설전집』 11,동서문화원, 1983.)
- <이봉빈전>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7, 아세아문화사, 1976.)
- <이형경전> 사재동본, 필사본 상하, 기축년 필사.
- <장국진전>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7, 아세아문화사, 1976.

- <정 비 전>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활자본 고전소설전집』 7, 아세아문화사, 1976.
- <정수정전> 인천대학 민족문화연구소, 『(구활자본)고소설전집』 26, 은하출판사, 1984.
- <홍계월전> 인천대학 민족문화연구소, 『(구활자본)고소설전집』 16, 은하출판사, 1983.
- <홍 연 전> 단국대 율곡기념도서관 소장본. 필사본. 발행연도 미상.)
- <화옥쌍기> 동국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활자본)고전소설전집』 12, 아세아문화사, 1976.
- <황 운 전> 인천대학 민족문화연구소, 『(구활자본)고소설전집』 1, 동서문화원, 1983.

2. 단행본

- 고전번역원DB, 「성종실록」 33권, 성종 4년 8월 4일 계해.
-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2000.
- 박일용,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월인, 2003.
- 박일용,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월인, 2003.
-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제이앤씨, 2008.
- 안기수, 『영웅소설의 수용과 변화』, 보고사, 2006.
- 이상옥 역주, 『예기(중)』, 명문당, 2003.
- 임성래, 『영웅소설의 유형연구』, 태학사, 1990.
-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해』, 지식 산업사, 2012.

3. 논문

- 강봉근, 「여성영웅소설의 출현동인 일고찰」, 『국어문학』 26,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1986.
- 강화수, 「여성영웅소설의 존재양상과 소설사적 의의」, 경성대 박사학위논문, 2004,
- 곽기숙,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양식과 의식세계」,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2002.
- 곽동엽, 「고소설 주인공들의 태몽 연구:영웅소설, 심청전, 춘향전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논문집』 15, 국어국문학회, 1992.
- 곽정식·강화수, 「여성영웅소설의 존재양상과 역사적 전개」, 『인문학논총』 9,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 곽현희,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남성인물 형상과 의미-〈이현경전〉의 남성인물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51,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2.
- 김대곤, 「활자본 여성영웅소설 연구」, 동의대 석사학위논문, 2012.
- 김도환, 「고전소설 군담의 확장방식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0.
- 김수연, 「여성영웅소설의 서사형식과 사회적 의미」,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2001.
- 김재용, 「영웅소설의 두 주류와 그 원천」, 『한국언어문학』 22, 한국언어문학회, 1983.
- 김진영/차충환, 「화소와 결구방식을 통해 본 영웅소설의 유형성」, 『어문연구』 2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1,
- 김태영, 「여성우위형 여성영웅소설의 근대적 성향 연구 : <이현경전>, <정수정전>, <홍계월전>을 중심으로」, 울산대 석사학위논문, 2004.
- 류준경, 「한국 고전소설의 작품 구성원리」, 『한국 고전소설의 세계』, 돌베

- 개, 2006.
- 민 찬, 「여성영웅소설의 출현과 후대적 변모」,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6.
- 박상란, 「여성영웅소설의 갈래와 구조적 특징」,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92,
- 박성미, 「여장군 소설 주인공의 변신 연구-서사적 기능과 문화적 의미를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01.
- 박양리, 「초기 여성영웅소설로 본<이현경전>의 성격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54, 한국문학회, 2010.
- 박은미, 「영웅소설에 나타난 조력자의 유형과 역할 - <홍길동전>, <유충렬전>, <용문전>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2013.
- 박혜숙, 「여성영웅소설과 평등,차이,정체성의 문제」, 『국문학연구』 16, 국문학회, 2007.
- 백옥경, 「여성과 법, 제도: 조선시대의 여성폭력과 법 - 경상도 지역의<검안(檢案)>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 성현경, 「여걸소설과 설인귀전」, 『국어국문학』 62, 국어국문학회, 1973.
- 손연자, 「조선조 여장군형 소설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2.
- 심치열, 「<금방울전>에 나타난 주인공의 조력적 변모와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4.
- _____, 「<유화기연>, 기이성과 대중성의 서투른 결합」, 『인문과학연구』 36,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 이유경,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젠더 정체성 형성의 양상과 그 교육적 의미 -<홍계월전>과 <방한림전>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43,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0.
- 양민정, 「고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과 의의-장편 가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11, 한국어문학연구회, 2000.

- 여세주, 「여장군 등장 of 고소설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1981.
- 윤보윤, 「재생서사에 나타난 초월적 조력자의 비교 연구-불교서사와 고전소설을 중심으로」,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연순, 「조선 여성의 유교적 여성상 내면화 연구-여훈서(女訓書)와 규방가사(閨房歌詞)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8, 한국여성연구소, 2008.
- 이윤경,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남장의 특징과 의미」, 『돈암어문학』 13, 돈암어문학회, 2000.
- 임병희, 「여성영웅소설의 유형과 변모양상」,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89
- 임치균, 「영웅소설 연구-출생과 투쟁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5.
- 장시광, 「고전 대하소설의 남녀 결연 관련 모티프 연구-늑혼 모티프를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23권,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6년.
- _____,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여화위남(女化爲男)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 장정수, 「규방가사에 나타난'와 여성의 인식」, 『어문논집』 80, 민족어문학회, 2017.
- 전용문, 「여성계 영웅소설의 설화적 연원」, 『한국언어문학』 25, 한국언어문학회, 1987.
- _____, 「한국 여성계 영웅소설의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1978.
- 정명기, 「여호결계 소설의 형성 과정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80.
- 정병헌, 「여성영웅소설의 서사 구조와 변이 양상 연구」, 『한국언어문학』 36, 한국언어문학회, 1996.
- 정선희, 「장편고전소설에서 여성 보조인물의 추이와 그 의미-여성 독자층, 서사 전략과 관련하여」, 『고소설연구』 40, 한국고소설학회, 2015.

- 정준식,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적 기반과 정착 과정」, 『한국문학논총』 61, 한국문학회, 2012.
- 정지영, 「조선시대 혼인장려책과 독신여성」, 『한국여성학』 20, 한국여성학회, 2004.
- 조재현, 「조선 후기 영웅소설에 나타나는 남성 노인의 형상과 역할」, 『돈암어문학』 36, 돈암어문학회, 2019.
- 조현우,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위반·봉합·균열의 문제」, 『한국고전연구』 30,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 조희선, 「조선시대에서 혼인의 사회적 의미-가부장제 강화와 신분제 실천기체로서의 혼인」, 『유교사상문화연구』 17, 한국유교학회, 2002.
- 주재우, 「한국 고전 소설에 나타난 삶의 의미 탐구」, 『우리말글』 80, 우리말글학회, 2019.
- 차옥덕, 「'여도'(女道)거부를 통한 남성우월주의 극복」, 『한국여성학』 15, 한국여성학회, 1999.
- 최기숙, 「불멸의 존재론, '한'의 생명력과 '귀신'의 음성학 -18·19세기 야담집 소재 '귀신'과 '자살' 일화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16, 열상고전연구회, 2002.
- 최지녀,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와 이념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5.

ABBSTRACT

The correlation Marriage and assistance in Female Hero Novels

park eun-mi

Dept, of Korea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tiy

This study noted that marriage is a basic and fundamental narrative that defines the nature of female hero novels. Unlike male hero novels, female hero novels have a different narrative structure from male hero novels as not only military stories but also marriage stories have emerged as major narratives. At this time, the narrative appeared as which is divided into narratives in which the marriage comes-first and the narrative in which the marriage-comes-later according to the sequential structure of the marriage. In the marriage-comes-first structure, marriage precedes and underlies all military stories and all narratives appear in connection with marriage. In the marriage comes-first narrative, which accounts for the majority of female hero novels, marriage acts as a fundamental narrative as the narrative proceeds in the order of "marriage → military narrative → marriage → military narrative" but the proportion of marriage narrative

is not small compared to military narrative. In particular, through the expanded narrative, conflicts related to marriage were described for a long time, and were treated more heavily than military narrative. Therefore, women's hero novels secured a narrative structure that was clearly distinguished from male hero novels while using marriage as a fundamental narrative.

Meanwhile, in female hero novels, as spatial backgrounds change, so does the heroine status. In the marriage-comes-first structure, narrative depicts the process of women growing into heroes by showing the process of changing their status to heroes and becoming female heroes again as they move from parent space to hero space and back to couple space.

On the other hand, in which the marriage comes later, narrative depicts the process of destroying women's subjectivity, unlike in the marriage-comes-first narrative, by moving from the parent's space to the hero's space and back to the couple's space. This reveals the contradiction of the social system that suppresses women.

As such, even if In the marriage-comes-first structure narrative and in which the marriage comes later narrative are the same space, women's status is shaped differently depending to the order of the marriage, and the theme consciousness of the female hero novel has a different direction.

On the other hand, another characteristic of female hero novels, Supporting roles, into transcendental roles and real world roles. Transcendental roles can be further categorized into a transcendence type that implies potentiality and spouse, a dragon king type and an elderly type that provide opportunities for women to demonstrate their abilities, a

ahwaong and yeoyeong type that forms women's mental stability, and a dosa type that develops and supports women's abilities. The real world roles can be categorized into a blood relationship type that detects and notifies women's crisis, an acquaintance type that supports protection and parenting, a nanny type that forms an emotional solidarity, and a maid type that forms a fellowship.

This supporting relationship forms a network for different purposes depending on the type of narrative. In the marriage-comes-first structure forms a network of assistants to help women grow, forming a social common network to unite and communicate with women and grow women into heroes. Female hero novels can usually be separated into hero narratives and marriage narratives, and In the marriage-comes-first structure narratives, the two narratives are not carried out separately, but at the same time. At this time, in the hero narrative, with the help of the heavenly world appears as the main help to grow a woman who is subject to gender restrictions into a hero, and in the marriage narrative, the real world appears as the main help to protect women from all risks arising from entering society.

On the other hand, in which the marriage comes later comes later narrative, the hero narrative and the marriage narrative are separated and progressed at a time difference, and in the hero narrative, the heavenly world appears as the main assistant, but the assistant is weakened. In the marriage narrative that occurs afterwards, the real world mainly appears as the main assistant, but the reversal of the assistant target occurs. In other words, in the hero narrative, as soon as people around them, such as

their fathers, nannies, and Emperor, who were in solidarity with women, enter the marriage narrative, it turns into anti-help for women. At this time, those around them who form an anti-help relationship with women switch to a way of assisting their spouse men, and the target of assistance is reversed. As a result, in which the marriage comes later narrative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the hero narrative being converted into a female suppression narrative as an anti-help network is formed for women. In particular, the method of returning as a woman through marriage immediately after bringing women's the ability of a hero to the highest level through military story has the effect of dramatically revealing society's oppression of women.

The narrative of the marriage-comes-later story depicts unfair marriage forced to women and the reality of regarding women as discriminatory objects regardless of women's ability and forcing women to obey men's patriarchal authority by proving it, it reveals the reality faced by women of the time.

As such, in female hero novels, marriage and supporting roles it forms a network of relationships and leads the direction of the entire narrative. Noting this point, This study attempted to reveal that female hero novels form a close network of supporter narratives and marriage narratives as well as hero narratives. In addition, in this process, proving that the theme consciousness of women's hero novels is also progressing in two directions it was studied with the purpose of highlighting the value of women's hero novels.

Key word : Female hero, hero novel, female hero novel, female narrative, marriage, military story, assistance, prophecy, rescue, guardian, Kim Tae-ja-jeon, Kim Hee-kyung-jeon, Baekhak Seon-jeon, Oh Seon-gi-bong, Wi Bong-wol-jeon, Eumyang Ok-ji-hwan, Lee Dae-bong-jeon, Lee Bong-bin-jeon, Unhyang-jeon, Jang guk-jin-jeong, Jeong vi-jeon, Hong yeon-jeon, hwaokssanggi, Hwang un-jeon, Bang hanrim-jeon, Seok tae-ryong-jeon, okjuhoyeon, Hong gye-wol-jeon, Lee hyeong-kyeong-jeon, Jeong su-jeong-jeon